



2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2호

(루계 508)



◆◆◆◆◆◆◆◆◆◆

차 례

◆◆◆◆◆◆◆◆◆◆

영원한 흰눈	4
눈은 내려도	5
지휘봉	6
백두성산과 같이 숭고하여라	15
동행자	16
백두밀영의 밤에	19
인민의 마음속에	20
언제나 마음의 첫자리에	21
백두산 지구	22
오직 하나의 기준	25
당이어 그대가 있어	26
남녘에 피는 꽃	27
백두의 바람소리	27
향도의 자욱을 따라	28
염분진의 샘	30
12 월의 눈송이(외 1 편)	31
샘물	31
위대한 인간세계의 예술적탐구	32
믿음	36

세월은 가도	37
정다운 공원에서	45
영광이 있으라.....	46
따르는 마음	48
돌격대원들의 하루.....	49
아버지 모습	58
지배인의 대답(외 1 편).....	59
분노의 시.....	59
초병의 서정	60
아이 이름짓는 마음	60
죄물아, 너는... ..	61
한 당일군의 모습.....	62
새 비날론이 쏟아진다.....	66
시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67
흘러라 떼목이여	73
하나의 맥박속에	74
미래앞에서	75
속담풀이	78
생활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두고	79

영원한 흰눈

전계승

그리워 찾아온
고향집뜨락에 들어서니
눈덮인 지붕우에
키낮은 들창가에
오늘도 평평 내리는구나
하얀 눈송이
햇شم같은 눈송이

바라보니 감회깊고
쫓아보니 소중하여
손을 모아 한웅큼 가슴에 안아보는
백두의 흰눈
밀영의 흰눈이여

수림깊은 골짜기
키를 넘는 눈밑에서
흐르는 소백수의 맑은 물소리
탄생을 알리던 2월의 그 아침
겨레의 소박한 축복을 담아
송이송이 내리던 그 흰눈인가

박달나무 울창한 벼랑우에서
세차게 내리부는 산꼭봉을 막아
포근히 귀틀집을 감싸주던 밤눈
꿈을 불러 부드러운
자장가의 선률에 실려
창문에 넘쳐흐르는 불빛
밤새도록 지켜주던 그 흰눈이 아니던가

아 천만년 오랜 세월
이 나라 강산에 내리고내렸어도
속절없이 녹아버리던 조선의 눈
그날의 그 아침에 여기에 내려
찬란한 해돋이 빛발속에서

다함없는 축복의 꽃으로 피어난
송이송이 천만송이여

조선의 미래
창창한 미래를 우러러
기쁨에 목메이던 겨레의 마음 담아
만대에 받드는 꽃바구니 되고저
오늘도 그날처럼 내리고내리며
여기를 찾아온 누구나의 가슴속에
봄꿈을 속삭이는 고향집의 흰눈

지붕우의 눈이여
뜨락의 눈이여
깨끗한 그 모습 수정처럼 아름답고
눈부신 그 모습 천금보다 소중하여
그 모습 그대로 안고가고싶어도

여기에 내려서만
가장 빛나는 백두산의 눈
여기를 떠나서는
순간도 그리워 못사는 밀영의 눈이여서

여기서 솟아오른
향도의 태양
우러러 받들어갈 내 한마음
한평생 비추어볼
영원한 흰눈이여서

내 여기를 떠나며
깨끗한 마음속에 간직하나니
저 불타는 척도우에 선대도
내 마음속에서는 순간도 녹지 않을
아 영원한 백설
백두산고향집의 흰눈을

눈은 내려도

김상조

하늘 가득 날리며

눈은 내려도

길우엔 사람들 그칠새없구나

우에서 내려오는 일꾼들

로동자, 농민들, 박사들...

때없이 찾아오고

떠나가는 길이건만

세상에 나서 처음 걷는듯

승엄한 생각에들 잠겨 걷는

석두재 기슭의 마을길

수령님 거니시던 그날의 오솔길

오늘은 드넓게 다져지고

그날의 초가집들, 울바자들

문화주택 추녀아래 옛말처럼 사라졌어도

약속이나 한듯

30 년전, 그날을 불러세우며

리로인의 집에도 들려보고

민주선전실 앞마당 버드나무아래에도 서보누나

발동소리 그칠새없는

저 풍요한 들길과

열매 주렁지는 파일동산길

그 어느 이름없는 길옆에 서도

가슴속 깊이 울려오는 수령님 음성

그이의 거룩하신 발자욱소리...

아, 이 길에 흘러간 창조의 나날

그날에 터져오른 2 월의 환희여

그날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나래쳐간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여

눈은 내리고 덧내려도

그날의 빗발 어린 길 메우지 못하누나

찾아오고 떠나가는 사람들로

청산리길은 봄비누나

사람들 한가정처럼 화목하고

《쌀공장》같은 들판 펼쳐져

농장대학의 창가 더욱 빛나는

공산주의리상촌에로의 길

정녕 이 길에 한번 서본 사람들

대번에 새힘을 얻고

참다운 대중령도의 화불을 지니더라

주체혁명위업의 열쇠를 쥐더라

수수한 농촌마을길이어도

청산리 길은 정녕

수천수만 사람들 가슴속에 이어진

혁명과 건설의 지름길

크나큰 사랑속에 넓어지는 영광의 길이어라!

지휘봉

한정아

시연회는 끝났다.

격동적으로 움직이던 지휘자의 지휘봉이 관현악의 종곡을 매듭지으며 조용히 잦아들자 객석에 불이 켜졌다. 주위세계가 환히 드러났다.

예술부단장 최춘석은 불안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심사석에 앉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인침 일어설념을 앓는다. 가극의 마지막 여운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아니면...

춘석은 오랜 경험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그들의 얼굴에 실리는 각이한 표정의 무게를 감득했다. 실패였다. 어느모로 보나 가극의 모든 안삼불이 완성된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는것이 뚜렷이 알려졌다.

가극의 완성된 안삼불, 그것은 지휘자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노래와 무대형상, 관현악의 3대요소가 빈틈없이 짜여졌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바로 중추적인 요소로 되는 지휘자의 지휘가 문제로 된다는것이 묻지 않아도 모두의 얼굴에 진하게 표현되었다.

춘석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그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불안감은 좀처럼 덜어질 줄 모른다. 예술단의 책임적인 지위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그는 내밀성이 강한 패기있고 정열있는 일군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도 동요없이 결단성있게 일을 내밀어왔다. 신진배우들도 그의 손탁에 들어서면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요즘처럼 번거롭고 초조해보기는 처음인것 같다.

당앞에 보고한 날자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지휘자의 기량은 아직 어리고 가극창조는 너무도 전진이 굼뜨다. 요구성을 높여도 여전히 답보상태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여러모로 모색해보았으나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에 잠겨 사무실안을 거닐던 그는 문득 벽면거울에 눈길이 닿자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늘진 칙칙한 얼굴이 언뜻 비쳐왔던것이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졌는가?)

순간이나마 난관앞에서 위축되었던 자신을 보는것이 몹시 불쾌했다.

그는 약해진 마음을 털어버리려는듯 성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정심지휘자를 찾으시오.》

이윽고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가극지휘자 유정심이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섰다. 부른 까닭을 아는지, 첫 시연회의 실패로 해서인지 얼굴을 들지 못한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어울리는 가름한 얼굴이 오늘따라 더 좁아보인다. 춘석은 고뇌어린 그의 모습을 보자 이미 하려던 교훈적인 이야기보다 측은한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없었다. 갓 가정생활을 꾸린 녀성으로서 가정도 돌볼라 가극지휘도 맡아할라 고생인들 오죽하겠는가?

불현듯 문명을 자랑하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백발의 한 녀성지휘자의 말이 쓰겁게 상기되었다. 그는 지휘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희생시키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었다고 말했었다. 지휘자가 쌓아야 할 방대한 지식과 육체적인 준비, 능숙한 통솔력과 완강한 의지력, 이것을 쌓기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을 귀중한 생애에서 떼어냈다고 했다.

아마 그래서 녀성과학자와 녀성활동가들이 수많이 배출되는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녀성지휘자수가 손에 꼽을 정도인것 같았다. 더구나 동방에서는 아직 잠자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단 며칠사이에 유정심에게서 완성된 기교를 기대했으니 스스로도 어리석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득 엿저녁일이 떠오르자 그의 이런 마음은 한층 더해졌다. 관통훈련이 끝난 뒤였다.

문이 벌럭 열리며 안무가가 들어섰다. 균형잡힌 어깨를 들썩이며 그는 들어서자바람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부단장동지! 정말 힘듭니다.》

무대우에서 40 고개를 넘긴 그였으나 급한 성미만은 도저히 못고치고있다.

《무슨 일이요?》

《음악을 당겨달라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한채 채머리만 흔들었다.

최춘석은 짐작이 갔다. 유정심이 아마 승낙하

지 않은 모양이었다.

《알겠소. 토론해봅시다. 음악적인 요구성도 고려해야 할게 아니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춘석의 내심은 좋지 않았다. 유순하면서도 고집이 센 정심은 바로 그때문에 배우들간의 마찰이 드문히 제기되곤했다.

얼마전엔 단소연주가가 다른 파트로 옮겨달라고 제기해왔다. 죽판악파트의 1 번수였다. 그가 표방하는 리유는 기량이 낮아 유정심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것이지만 단장은 그말에 깔린 속대사를 어렵지 않게 짐작하였다.

유정심은 가극의 여러 장면에서 흐르는 관현악 음악에서 민족적색채를 진하게 돋굴수 있는 새 주법을 연주자들에게 요구했다. 새 주법이란 관현악연주에서 울림이 강한 통음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지지와 반대의 복잡한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최춘석은 이를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녀성 지휘자의 의견을 중시한것보다 그의 지위를 창작가들과 배우들 속에서 높여주려는 의도적립장으로부터 출발했던것이다.

그런데 연주자들이 이를 달가와하지 않았다. 요구수준에 올라서기가 몹시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연주자들이 신심없어하니 오히려 원래의 안삼불마져 형클어지곤했다. 단소연주가가 그 기본대상이었다. 그러나 정심은 자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을뿐더러 어느날엔가는 련습끝에 연주자들에게 그림감상과제까지 제시했다. 이것은 이전 지휘자들에게서 당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점심은 연주자들인 생동한 회화적표상을 가지고 연주에 림하면 보다 훌륭한 선률을 창조할수 있으리라 타산한모양이었다. 그런데 단소연주가가 지휘자의 지시를 통담으로 받아들였다. 여느때 없는 류다른 지시가 그의 웃음을 자아냈던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정심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그로서는 처음일지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지적이었다. 높은 기량을 인정받는 연주가로서의 자존심, 녀성지휘자에게서 받은 《모욕》...

춘석은 그의 엇드레질을 엄하게 추궁하여 되돌려보냈으나 마음은 불안했다.

연주가로서의 의견을 무시할수 없지 않은가.

그는 기회를 보아 유정심에게 조용히 충고를 주었다. 그는 고집스럽다할만치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정심의 마음을 리해할수 없었다. 언제나 유순하다고 믿어왔던 그에게 이런 고집도 있었던가 여러번 말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춘석은 그 《고집》앞에서

손을 들었다. 어찌보면 정심은 그것을 역대우같은 남자들을 지휘할 때 쓰는 《무기》로 리용하는 것 같았다. 배우들속에서 완력센 녀성이라는 비방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이 우연치 않다. 여러번 충고를 주었으나 그때뿐이다. 오늘 와서 그 《무기》는 창조성원들 호상간의 융합조차 깨뜨리고 있지 않은가.

고집, 그것은 억지다. 억지는 예술과 통하지 않는다. 지휘봉은 말그대로 음악의 신비한 세계를 더욱 풍만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이끌어내는 예술의 한 구성부분이다. 지휘봉이 그 어떤 강권으로 사용된다면 예술은 빛을 잃고만다. 그때는 지휘봉의 사명보다 회초리의 사명으로 수행될 것이다.

춘석은 수심에 잠긴듯 그린듯이 앉아있는 유정심을 바라보았다. 초점잃은 눈동자가 새 임무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그의 마음을 비쳐보고있었다. 역시 그 눈빛에서 함께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자 춘석은 다시금 마음을 수습했다. 그러나 정신적안정을 잃고있는 그에게 요구성 일면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최춘석의 눈길은 어스름이 스며드는 창너머로 향해졌다.

얼마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새 가극창조와 관련하여 가르침을 받던 일이 떠올랐다.

이들이 창조하는 가극은 지금까지 창조된 가극과 달리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으로서 더없이 밝고 아름다운 양상을 요구했다. 그런것만큼 가극창조를 이끌어갈 지휘자선정은 매우 심중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시일은 촉박했다. 꽃피는 4 월-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까지 완성하자면 관록있는 유능한 지휘자여야 했다. 춘석은 그동안 가극창조에서 이름을 날린 몇몇 남성지휘자를 선출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안을 올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유정심동무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작품의 양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아 그 동무에게 알맞을 것 같습니다.》

한가위는 놀람을 금할수 없었다. 유정심은 그의 머리에서 너무도 멀리 있었다. 작은 콘첼트의 지휘밖에 해본 경험이 없는 그가 주단역의 노래와 방창, 관현악의 음악 등 가극전반을 통채로 틀어쥐고 이끌어야 할 지휘석에 오를수 있겠는지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았다.

더구나 녀성이 가극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아직

동서고금의 력사에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이토록 가극은 어느 음악과 달리 거대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종합예술이다. 하기에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에서도 수십년, 지어 세기를 두고 완성했다는 가극이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은 그가 어떻게...

그이께서는 놀라는 춘석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녀성가극지휘자를 키워내는 일이니 춘석동무가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심동무의 지휘에는 남다른 특기가 있습니다. 녀성다운 섬세성과 소박한 지휘기법을 잘 살린다면 능히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듣는 춘석의 눈앞에는 녀성지휘자의 아련한 모습이 나타났다. 항상 머리를 소꿉이 숙이고 다니는 차분한 성미의 녀성이다. 사회생활한단도 그리 오래지 않다. 그런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수백명의 인원을 능숙하게 지휘할수 있겠는지. 관록있는 남자들도 바빠하는 가극지휘다.

그의 내심을 환히 꿰뚫어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유있는 웃음을 지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부단장동무야 이미 녀성기악중주단을 키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녀성들이 피리와 단소, 저대 부는것을 우습게 여기었는데 춘석동문 그 모든것을 타매하고 훌륭히 키웠습니다.

가극지휘도 신비한것이 없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부단장동무, 우리 힘을 합쳐 잘 키워봅시다.》

그이의 뜨거운 말씀에 춘석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오늘날 세상사람들로부터 높은 절찬을 받고있는 녀성기악중주단으로 말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키워주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신진배우들에게 신심을 주시고 악기편성으로부터 편곡과 연주형식, 기량훈련체계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거의 매일과 같이 지도하여주셨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모셨던 그 나날은 춘석에게 있어서 그 어느 대학에서도 배울수없었던 일군이 지녀야 할 품성과 기풍을 새롭게 받아안은 뜻깊은 날들이였다.

그런데 자신께서 쌓으신 그 모든 성과와 업적을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니 그이의 고결한 품모에

자연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가슴 절절히 울리던 그이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춘석의 가슴은 갑절 무거워졌다. 어떻게 하나 유정심을 이번 가극의 유능한 지휘자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기의 임무임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춘석이었다. 그런데... 어느 고리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생각만 든다.

그동안 그와 마주앉아 가극의 형상안도 구체적으로 토론하여 신심도 주고 관현악의 각 파트장들에게도 정심을 적극 돕도록 여러가지 조치도 취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부단장의 실망어린 표정에서 그 무엇을 느낀듯 정심은 락심한 태도로 힘겹게 말을 비치는것이였다.

《부단장동지, 전... 정말... 흠.》

정심은 끝내 손바닥에 얼굴을 묻는것이였다. 녀성지휘자의 돌발적인 태도에 춘석은 아연해졌다.

동정심보다 불만감이 머리를 쳐들었다. 어쩌면 큰 가극을 책임진 사령관이 이리도 나약할수 있는가. 남의 애타는 속은 모르고 쉽사리 물러설길을 택하다니... 춘석은 보지 말아야 할 약점을 본것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모진 말마디들이 뛰어나갈것 같았다. 애써 기분을 누착히느라고 번들거리는 밤빛책상에 눈길을 떨구었다. 그는 유정심을 리해하려고 애썼다. 어린 녀성이 아닌가. 그러나 믿음이 저절로 허물어지는것을 어쩔수없었다. 녀성가극지휘자를 키우는 일이 험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안과 위구심은 또다시 봄콜썩마냥 움터올랐다.

이때 문이 벌컥 열렸다. 예술행정과장이 헐떡이며 뛰어들었다.

《부단장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부단장은 한동안 굳어진듯 서있었다. 이어 마음을 수습한 그는 황급히 달려나가다 우뚝 멈춰섰다. 몹시 당황해하는 정심의 시선과 마주쳤던것이다. 알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엄습해왔다. 아직 가극이 제 수준으로 오르지 못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그이앞에 나선단말인가. 이런 죄책감에 모대기던 그에게 언뜻 기회를 보아 지휘를 남자들에게 맡겨달라고 제기할 생각이 들었다.

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여주시려고 극장에 나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객석에 앉으시였다.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는 유정심에게 다정한 미

소를 보내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러보는 춘석의 마음은 몹시 긴장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관통연습이다. 아직 모든것이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우들이 실수없이 해야 할텐데... 그의 원심은 유정심에게 쏠렸다. 방금전에 곱씹어 주의를 주었던, 그는 널뛰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지휘석으로 눈길을 돌렸다.

순간 춘석은 연주자들의 손과 손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듯한 감촉을 읽었다. 아닐세라 지휘봉을 들려던 정심의 눈길이 지휘대에 쏠리는 것이었다.

분명 연주자들의 손을 거쳐 날아온 쪽지들이었다.

로파심 많은 어느 창작가가 그 어떤 요구를 적어보낸 모양이다. 기분이 탁 흐려졌다.

어째서 그들은 책임적이고도 긴박한 시각에 지시없는 행동을 하는지, 연습후 단단히 책망해야겠다고 베틀는데 그이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부단장동무, 지휘자가 어쩐지 혼란된 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창작가들이 지휘자에게 무례한 요구를 한것이 아닙니까? 시작전 지휘자는 자감세계에 꼭 잠겨야겠는데...》

춘석의 잔등으로는 뜨거운 땀발이 짝 내뿜혔다.

더없이 친근한 그이의 음성이었으나 빈틈 많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가슴아픈 질책으로 안겨왔다. 심장은 더욱 널뛰기 시작했다.

긴장과 초조, 불안과 기대속에서 춘석은 언제 막이 오르고 닫기였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

관통연습을 보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 꽃망울이 부풀기 시작한 창문가로 다가가셨다. 그이의 안광에는 철없는 막내딸에게 너무도 큰 짐을 맡긴 근심어린 아버지의 심려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최춘석은 아까부터 송구스런 마음으로 서있었다.

방금전 무대우에 올랐던 가극의 설익은 장면들이며 세련되지 못한 관현악의 선물들이 귀가를 맴돌았다. 정적이 흘렀다. 파아란 창가림만이 방안의 고요를 깨뜨릴세라 가벼이 흐느적이고있었다.

《지휘자가! ...》

조용히 입속말로 뇌이신 그이께서 또다시 생각에 잠기셨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려를 온몸으로 느끼고있는 최춘석은 이 순간이라도 앞이 확 트이는 묘술적인 방책이 떠올랐으면 했다. 그러나 적중한 말을 고를수가 없는것이 한스러웠다. 자신의 무능력을 지금처럼 통탄해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수습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모자랐다.

근심어린 그이의 안색에서 춘석은 이것을 누구보다 절박히 느끼고있었다.

그는 자세를 바로가지며 그이께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제라도 지휘자를 교체하는것이...》 춘석은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춘석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광에 짙은 그늘이 비껴던것이다. 믿음에 대한 기대가 심히 허물어지신듯...

가극무대에서 한생을 보낸 징표인듯 귀밑머리에 희끗희끗 서리내린 그를 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마음은 좋지 않으셨다. 언제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패기로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키워낸 최춘석이로만 믿고싶으신 그이시였다.

《부단장동무 벌써 퇴각하려는겁니까. 춘석동무 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였다. 문득 대학을 갓졸업한 유정심에게 녀성중창단의 지휘를 맡기던때 일이 회상되시였다. 문학예술에서 대전성기가 마련되던 그 나날 중창반주에서도 피아노로 대치되던 낡은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기악반주가 도입되였다.

그때 유정심은 중창 《발같이노래》의 기악반주곡을 훌륭하게 형상했었다.

서주부터 음의 속도와 힘의 교차가 변화무쌍하여 웅간한 경험자들도 선뜻 말아나서기 꺼려하던 음악이였다.

그러나 유정심은 녀성다운 섬세성과 인내성으로 까다로운 선물들을 능숙하게 세련시켜나갔다.

더욱 놀라운것은 크라와 홀류트의 짧은 굴림을 현악기와 배합하여 신비한 음색을 만들어낸 그의 재능이였다. 그것은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녀성만이 찾을수 있는것이였다. 정심의 지휘에는 확실히 남성들과는 다른 소박성과 함께 미묘한 음의 깊이까지 놓치지 않는 구체적이며 밝은 활동이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금전 가극시연회를 보시면서도 이점을 포착하시였다.

비록 불안정하기는 하나 방울춤반주와 기타 장

면들에 형상화하던 민족적색채가 짙은 새 연주주법은 녀성만이 찾을수 있는 독특한 개성이었다. 이 우점을 잘 이끌어준다면 이채로운 가극의 양상을 창조할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장점이 한껏 아지를 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그이께서는 가극의 장면장면들을 음미해보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지휘자와 배우들, 연주가들과의 호흡과 숨결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는것이 주되는 결점이다. 가장 훌륭한 지휘창조는 집체적지체의 배합이 아니겠는가. 일방적인 지휘가 아니라 뜨겁고도 열렬한 맥박이 굽이치는 숨결있는 지휘여야 한다.

그이의 사색은 바닥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협의회성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문화예술부의 책임일군이 그이께 보고드렸다.

《부단장동무, 협의회에서 토론해봅시다.》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의 협의회에 참가하셨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좌중을 둘러보시었다. 첫 시연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느끼고있는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숨을 죽이고 그이의 말씀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동안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렁우렁하신 그이의 음성이었다.

그이의 말씀에 맨 구석에 앉은 유정심은 부끄러움에 못이겨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오늘 협의회를 먼저 자리부터 제대로 정돈하고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모두 어리둥절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안광을 우려했다.

《군대에서는 군사회의를 할 때 사령관을 위시로 관등급별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사령관을 뒤구석에 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유정심을 가리키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이의 맑은 미소는 봄날의 안개마냥 실패라는 무거운 중압감에 눌러있던 방안의 공기를 단번에 날려버리셨다. 협의회의 분위기는 한결 풀렸으나 춘석은 강한 실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미인 정심은 가극의 중임을 지니고도 지난날의 관습대로 뒤에 앉곤했다. 춘석은 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춘석이었다. 그는 자책감을 가지고 유정심에게 눈짓했다.

앞에 앉은 정심은 격해오르는 감동으로 해서인지 눈굽을 훔치며 고개를 들지 못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친근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정심동무, 울었는지? ... 사령관의 배심이 아직 약하거든.》

호탕한 그이의 웃음소리에 장내는 한결 더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친어버이를 모시고 둘러앉은 한가정을 련상시켰다.

그이의 허물없고 소탈한 인품에 마음이 끌린 모임참가자들은 너도나도 다투어 의견을 피력하였다.

협의회는 의례적인 형태인 공식적인 물음과 대답의 한계를 벗어나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담화의 흐름으로 번져졌다.

음악의 속도에 대한 안무가의 의견이며 새 주법에 관한 연주가들과 작곡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주의깊게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선을 유정심에게 보내셨다.

《지휘자동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휘자의 권위를 존중해주시며 합리적인 지휘형상안을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유정심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황망히 일어섰다.

《제가 미처 ...》

《지휘자동무, 전선사령관들도 큰 작전을 앞두고 반드시 병사들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의견들을 깊이 연구해보시오. 성공의 비결은 창조성원들의 하나와 같이 뭉쳐진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에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그이의 말씀은 춘석의 흥벽을 쿵 울리었다.

가극지휘에서 나타난 편향과 부족점을 제때에 발견하시고 능숙하게 풀어주시는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뭉쳐진 통일과 단결, 이것이였다. 이런 측면에서 지휘자의 위치와 배우들의 의무를 자각시켰더라면 가극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올랐을것이었다.

그런데 머리를 쓰고 키우려는 생각보다 지휘자의 교체와 같은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 하였으

니...시간이 흐를수록 춘석은 뭉뚱 달아오르는 얼굴을 바로 들수가 없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협의회를 마치시고 떠나기에 앞서 정심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

《정심동무,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소. 신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동무는 얼마든지 해낼수 있으며 꼭 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편들어주겠으니 대담하게 해보시오.》

정심은 흐느꼈다. 감격에 겨워 미처 말을 고르지 못했다.

그러나 춘석은 그의 눈길에서 새로운것을 발견했다.

늘 근심과 우려 속에 잠겨있던 그늘진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심이 한가득 넘치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그의 환한 표정에 춘석은 웬일인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듯 어깨가 가벼워짐을 느꼈다.

고리는 풀렸다. 담당자의 신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춘석의 눈굽은 뜨거워올랐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 녀성지휘자의 성장문제때문에 마음쓰시며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었다.

예술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차에 오르시던 그이께서 문득 멈춰서시었다. 아직 심려의 빛이 다 풀리지 않은 안색이었다.

마음속에 깃드는 안정감에 취해 그이를 바라던 춘석의 손이 굳어졌다.

《부단장동무, 힘이 들더라도 정심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그가 능숙하게 지휘봉을 들수 있게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를 키우는 일이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것 못지 않게 더 깊은 사색과 지혜를 요구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물며 녀성인재를 키우는 일이니 결코 쉬울수는 없습니다.

부단장동무를 믿고 가겠습니다.》

멀리 사라져가는 그이의 차를 우러러보는 춘석의 눈시울은 젖어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부디 근심말아주십시오.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유정심에게 창조의 활력으로 정열의 원천으로 된 듯싶었다.

그는 자신에게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가극의 형상수준을 올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작곡가들에게 음악의 형상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편곡도 요구했고 방창의 노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발성법도 배우들간의 진지한 토론속에서 찾아냈다.

전과는 다른 능숙한 지휘관다운 체모가 잡히기 시작했다. 성장하는 그를 볼 때마다 춘석의 마음은 흐뭇했다. 가극지휘자의 첫 임무를 받아안았을때의 소심성과 위축감은 씻은듯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수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이 후덥게 안겨와 그는 자주 눈시울을 붉혔다.

그이의 지도가 없었더라면 아까운 재능이 움터보지도 못하고 스러졌을것이 아닌가.

질어가는 봄빛과 함께 가극의 장면들과 음악선물들이 주옥처럼 다듬어졌다. 그동안 허심하게 개별지도를 받은 단소연주자도 인제는 자신있게 롱음소리를 올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건드러졌던지 무용배우들은 물론 방창배우들까지 어깨춤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런데 구성진 선율을 따라 흥겨운 민족적장단으로 반주를 넣어야 할 양악기의 안삼불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정심의 구상에 의하여 설정되고 시도된것인데 양관으로 민요를 해결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되지 않는다. 전번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시연회에서도 이 대목을 불안하게 넘겼던것이다. 유정심은 어떻게나 살려보려고 아글타글 애썼다. 그러나 처음으로 하는 형상이다보니 좀처럼 수준이 오르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속에 흐르는 날을 안타까이 세이던 춘석은 이 문제를 두고 협의회를 열었다.

모임에서는 심각한 토론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주법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어졌다.

《죽관악기의 짙은 민족적선율에 양관이 같은 선율로 합세하니 어느것 하나 푹푹치 않은게 문제입니다.

그래 제 생각엔 양관반주를 바꾸자는것입니다.》

그것은 정심의 구상대로 편곡을 한 작곡가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정심은 그의 의견에 동감할수 없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주형상에서 양악기의 반주를 감칠맛나게 튕겨주는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지요. 의도는 의도대로 남아있고 형상은 형상대로 나가니말입니다.》

《...》

이때까지 잠자코있던 연출가가 입을 열었다.

《보다 중요한것은 시간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통시킬수 있는 과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단말입니다.》

《옳소, 시간이 긴박하오. 불협화음을 계속 안고 있을수도 없단말이요.》

어지간히 지친 춘석은 마침내 이렇게 결론짓고 말았다.

가극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은 그로서는 누구보다도 시간의 촉박성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날자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새것이라고 해서 편이여 반복되는 관현악의 불협화음에만 매달릴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시간문제가 나오자 유정심의 태도는 달라졌다.

더구나 협의회의 많은 참가자들속에 유독 혼자뿐인 녀성의 도의심때문인지 그는 더 말을 하지 않는것이였다.

말없는 침묵이 그의 아쉬운 마음을 대변하고있다는것을 춘석은 모르지 않았으나 별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

대동강의 봄빛은 점점 짙어가고있었다.

만물을 소생시켜 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부드러운 봄빛은 새로운 가극탄생을 준비하는 정심이네 극장무대에서도 완전히 무르녹고있었다.

극장은 감격의 선풍속에 휩싸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또다시 극장을 찾으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기념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으시기 위한 분명한 시간을 보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극창조가 못내 걱정되시여 일감을 미루시고 나오신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극원본을 번저가시며 무대를 주의깊이 살펴보시였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조마조마한것은 최춘석이였다.

자그마한 실수라도 생기면 어찌랴. 그는 긴장한 눈길로 유정심의 지휘를 살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옆에 앉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지휘자동무의 수준이 올랐습니다. 안삼불이 전보다 훨씬 세련된것이 알립니다.》

무대는 바뀌어 어느덧 금강산의 절경이 나타났다. 방울소리를 귀맛 좋게 울리며 너무용수들이 등장했다. 재치있는 춤가락이 무대우에 펼쳐졌다.

경쾌한 방울소리와 어울려 서정적으로 흐르는 관현악의 선율을 주의깊이 들으시던 그이께서 문득 최춘석에게로 몸을 돌리셨다.

《부단장동무, 이 장면에 형상했던 민요선물이 왜 없습니까?》

저르기 아쉬운듯한 그이의 음성이였다.

춘석은 얼른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얼마전까지 협의회의 논의점에 올라 복잡하게 토론되던 정심이 제기한 바로 그 문제였던것이였다.

춘석의 당황해하는 모습에서 사태를 짐작하신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자우에 두손을 모은채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전번에 시도했던 새 주법을 잘 살리면 흥취를 돋굴수 있는 매력적인 선물로 될수 있었는데...》

혼자처럼 하시는 그이의 말씀이었으나 춘석의 가슴은 썩늘하였다.

그이의 뜻을 옳바로 받들지 못했다는 의식이 머리한끝을 세차게 때렸다.

시연회가 끝난후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소 서운하신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도 부단장동무가 정심동무의 주장을 적극 밀어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술가들의 동지적의리를 봐서도 그것은 응당한일입니다. 가극 지휘봉을 처음 들었지만 낯은 틀을 답습하지 않고 새롭게 형상해보려는 그의 의도가 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싹을 버리다니 ...》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그대로 춘석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확실히 가극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 협의회때도 그렇고 녀성을 존중하는 기풍이 약한것이 한눈에 알립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녀성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새로 창조되는 가극의 운명파도 관련되어있지만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관점문제에 귀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녀성의 지도를 받으면 남자의 자존심과 인격이 손상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천박한 사고입니다. 지성이 높고 인

격이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여성을 존중합니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물론 여성지휘자를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긴박한 이때 경험있는 남성지휘자에게 맡긴다면 훨씬 수월하게 창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들을 내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들은 인간의 첫 교양자가 아닙니까. 옛날부터 이름난 장수나 명인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와 안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명의 현명한 어머니가 백명의 교원과 맞먹는다는 말도있지 않습니다.

인간교양의 직접적담당자인 그들이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오를 때 인류는 진보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좋은 발기를 적극 지지하고 키워줄대신 물어버리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춘석은 깊은 충격과 감동에 젖어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그는 비로소 모든것을 알게 되었다. 기량이나 담력이 어린 유정심을 왜 가극의 지휘자로 내세워주시는지, 아, 그이께서는 얼마나 심원한 높이에서 우리모두를 이끌고계시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자신의 사업방식이 날날이 해부되는것 같아 머리를 들수없었다. …

그이께서 다녀가신 뒤에도 춘석은 빠져리는 피로움속에서 오래동안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이를 가까이 모시고 오래동안 일해오면서도 그처럼 높으신 뜻을 모르고 근심만 끼쳤으니… 난 의리도 믿음도 모르는 인간이다.…)

언제 노을이 스러들고 어스름이 깃들었는지 그는 감감 잊고있었다.

갑자기 정적을 깨뜨리는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무춤 수화기를 잡던 그의 몸가짐이 굳어졌다.

열정에 넘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음성이 전류를 타고 울려왔던것이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차 하겠습니다.》

춘석은 정중히 말씀올렸다.

《몸을 돌보면서 일해야겠습니다. 하루이틀에 끝날 혁명도 아닌데…》

다심한 말씀에 춘석은 목이 메어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시연회때 지적된 방울춤장면의 음악안 삼부를 좀 토론해보았습니까?》

《예. 여러가지 형상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 동무를 비롯하여 작곡가들이 신심을 가지고 달라 붙었습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정열이 불타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부단장동무, 내 좀 생각해보았는데 배합관현악에서 죽관악이 짙은 룡음을 울릴 때에는 양악기를 배경으로만 깔아주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조선민족악기의 고유한 맛을 특색있게 살리면서 양악기반주의 룡동이 수월히 보장될것 같습니다.》

순간 춘석은 머리속에 번개가 일면서 앞이 확 트이는 감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죽관과 양관이 동일한 선률로 울리곤했다. 그러다보니 이따금 양관의 본성적인 뻑뻑한 울림이 짙은 민족적선률에 적지 않은 손상을 주어 창작가들의 애를 먹이고있었다.

유정심이 고심한것도 바로 이때문이었다.

양관을 배경으로 깔아주면 마치 미술가가 그림의 중심부분을 돋구기 위해 배경채색을 하듯 양관의 은은한 반주를 타고 민족악기의 주선률이 선명하게 살아날것이였다.

훌륭한 해결책이였다. 그렇게만 되면 배합관현악에서 민족적장단과 리듬이 훌륭히 보장될수 있었다. 신묘한 배합관현악의 선률이 벌써부터 귀가에 메아리쳐오는듯하여 춘석은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짹 틀어잡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다음순간 그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1 분 1 초가 귀중한 그이께서 그토록 사색을 기울여 찾아주신 그 방안, 그것은 바로 춘석이자신이 해야 할일이 아닌가.

언제인가 인재를 키우는 일이 국가정책을 수립하는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언제면 그이의 뜻을 다 따르게 될것인가.

그가 후더워진 눈시울을 습벽이는데 그이의 정 깊은 음성이 다시 들렸다.

《춘석동무, 오늘은 그만 쉬고 나와 함께 밤거리를 산보하지 않겠습니까?》

은정넙친 그이의 말씀에 춘석은 목이 메어올랐다.

×

그이를 모신 승용차는 고층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진 시내 중심을 벗어나자 활엽수들이 수림을 이룬 대성산어구에 들어섰다.

열려진 차창으로 봄의 훈향인듯 시원한 대기가 피부를 찌르며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이를 따라 렬사릉으로 오르는 춘석의 마음은 더없이 승엄해졌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들어선 투사들의 반신상을 바라볼수록 그들 모두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출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생각에 잠겨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춘석은 너전사들의 반신상앞에서 조용히 뇌이시는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에 타고난 영웅이란 없습니다. 여기에 향상된 너투사들도 처음에는 제 이름 석자도 쓸줄 모르던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처음으로 우리 글을 익히며 성장하여 마침내 무적의 전사로 자라던것입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품은 평범한 사람도 불굴의 영웅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 위대한 품입니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국가경제문화기관의 중견간부로 자라났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이 고귀한 업적을 오늘 더욱 빛나게 계승완성해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들의 어깨에 놓여있습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셨던 뜨거운 인간애로 우리 인민을 대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석은 가슴이 몽클 젖어올랐다.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 극장에 찾아오시여 부족점을 일깨워주시고 막힌 고리를 풀어주시며 우리모두를 유능한 예술가로, 일군으로 키워오신 은정깊은 나날들이 바로 이처럼 위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는줄을 지금이야 알게 된듯싶었다.

인간에,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세상을 놀래우는 재능있는 인재를 키우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춘석은 그이를 모시고 일해오는 과정에 누구보다도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원칙성과 요구성, 풍부한 인간성을 어느정도 소유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 자신에게는 그이의 높

은뜻에 비해볼 때 너무도 큰 공간이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휘자교체와 같은 손쉬운 방법, 시간에 빙자하고 새싹을 무시해버린 무책임한 사업작풍의 근원이 바로 인간고유의 감정인 인정미 결여의 후과가아닌가.

언제인가 인간성없는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일깨워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이 떠올랐다.

깊은 자책과 함께 뜨거운 감동이 솟구쳐올랐다.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누구보다 폭넓게 안으시고 가장 빛나게 꽃피워가시는분.

그이시야말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인간의 자주성이 활짝 꽃핀 주체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위대한 애국자, 인민의 지도자이시다.

위대한 애국자만이 참다운 인민의 재능을 발현하시교 키워줄수 있다.

태양보다 뜨거운 그이의 사랑속에 떠받들려있기에 우리 인민은 더더욱 긍지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세계의 경탄속에 살고있는것이 아닌가.

춘석의 심장은 높이 고동쳤다. 밤과 더불어 가슴속에서는 한생을 그이를 받들어 싸워나갈 불타는 맹세가 더더욱 불타올랐다.

봄.

4 월의 봄.

강산의 온갖 꽃 이날을 우리러 망울터치고 새들도 날아와 축원의 인사 삼가 드리는 우리 인민의 가장 경사스러운 봄명절이 왔다.

평양예술극장에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였다.

단풍든 금강산의 황홀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행복에 넘친 금강산처녀들이 달려나와 노래를 부른다.

목란꽃 송이송이 곱게 피었네

수령님 해빛아래 활짝 피었네

지휘봉을 흔드는 정심의 눈에 맑은 이슬이 그득히 피여오른다.

오늘의 이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안고 그의 지휘봉은 아름다운 정서를 타고 물결쳤다.

아름답고 우아한 음향이 장래를 서서히 흔들었다. 녀성가수들의 고운 목청을 부드럽게 감싸며 신비하게 울리는 관현악의 선율이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듯했다. 힘있게 우로 솟구쳐올라 장중한 선들을 끌어내는가 하면 가볍고 재빠른 물동으로 밝고 경쾌한 소리를 올려가는 그의 지휘봉은 미술가의 붓글처럼 무대를 조화롭게 채색하여나갔다.

가극은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장엄한 메아리를 일으키며 주제가 터져오르는가운데 가극의 절정장면이 펼쳐졌다. 합창과 무용, 주단역들의 연기, 관현악의 폭넓은 화성, 유정심의 지휘봉에 따라 무대가 통채로 뒤흔들리는듯했다.

하면서도 그의 지휘봉은 천가닥 만가닥의 미세한 음향과 색깔까지 속속들이 놓치지 않고있었다.

가극은 성공적이었다.

관중석에서 터져오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견한 미소를 금치 못하

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셨다.

《녀성동무가 큰 몫을 하고있구만. 아주 대단합니다. 또 한명의 녀성사령관이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접하는 최춘석은 뿌듯한 긍지감을 느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우러렸다.

오랜 가극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몇십년이 걸려서야 완성할 큰 형식의 가극을 짧은 기간에 그것도 녀성의 지휘봉으로 완성한 기적적인 비결이 결코 한 인간의 특출한 재능이나 슬기때문 이아니었다.

인간을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거장이 쥐여준 지휘봉이 아니고서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춘석은 이것을 심장으로 느끼었다.

그는 부풀은 가슴으로 바다 키높이 자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고있었다.

백두성산과 같이 숭고하여라

제임스 비. 비쏘비에

주체의 조선에
친애하는 지도자 계시여라
그이는 주체위업의 계승자
조선혁명의 향도자
혁명적기념비의 창조자
오 **김정일**비서
백두산과 같이 숭고하여라

그이께선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서해갑문
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고
조선의 주체교육을 꽃피워가시나니
오 **김정일**비서
백두산과 같이 숭고하여라

그이 계시여
조선청년들 자랑넘치고
그이 계시여
조선의 노동자들 기쁨넘쳐라

조선의 영웅적혁명전사들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
조선로동당원들
그이를 높이 우러르거니
오 **김정일**비서
백두산과 같이 숭고하여라!

2월 16일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지구상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
한결같이 그이를 흠모하며
그이의 만수무강 삼가 축원하나니
우리 그이를 따르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노라
오 **김정일**비서
백두산과 같이 숭고하여라
(필자는 우간다 재정성 공무원일)

동행자

리석

1

차창으로 다가오고 물러서는 산발
저 멀리 산기슭엔 단풍이 붉게 타고
무겁게 고개숙인 과일들
한껏 향기를 풍기는
풍요한 가을날

북방의 광산을 찾으시여
나아갈길 환히 밝혀주시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 이어가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깊은 명상에 잠기고계시여라

차창밖엔
차판마다 넘쳐나게 쇠돌을 싣고
기운차게 내달리는
전기기관차의 정찬 기적소리...

하건만
마치도 고요한 호수가에 계시는듯
깊은 사색의 숲속을 거니시는
그이의 눈빛은 승엄히 빛나고
함께 동행하는 도당의 책임일군
친애하는 그이의 피로를 헤아리며
잠시라도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해빛이 흘러드는 아늑한 차안에
조용히 울리시는 그이의 음성
-오늘 보니까 광산당비서가
얼굴이 몹시 축간것 같지 않았소?
해별에 다 타고...

웅근 한결동안 광산의 언덕길과
갈래많은 광구길을 걸으시는
광산 현지지도의 길에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던
당비서의 모습을 두고
어찌면 그리도
세심하게 말씀하실가

그이께서 물으시는 말씀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며
잠시 대답을 망설이는데
다시금 그의 가정형편이며 건강상태까지

일일이 물어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돌먼지 날리는 산정에서
광부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께
광산의 형편을 말씀드리며
곁에서 그이를 안내해드린 일군은
이 광산지배인 교학빈

말없이 그이를 따르며
지배인이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할 때에는
뒤에 섰던 광산당비서 리용수
가끔 한마디씩 대답을 드렸을뿐

경건히 그이를 따르는
당비서의 모습에서
지배인과 함께 발을 맞추어
조국의 보화를 퍼내는 그 길로
온 광산을 이끌어난
그의 말없는 수고를 헤아리신것인가

깊은 사색에서 깨어나신듯
천천히 의자의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시며
그이는 말씀하시여라
-내 오늘 광산당비서동무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온종일 그 동무와 말을 한것 같소

2

친애하는 그이께서
기별도 없이
소문도 없이
이 광산에 나오셨던
지난해 이무렵

그이께서 보내주신 착정기도
기세 좋게 돌아가고
쇠돌을 듬뿍듬뿍 실은 대형자동차들도
기운차게 굽이굽이 달리고있었어라

뜻밖에도 그이를 맞이하여
끝없는 감격에 설레이는 광산

달려와 뜨겁게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과 광부들 손잡아주시며
그이께서는 또 누구를 찾으시는듯 물으셨어라
-왜 당비서동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도 광산에 나와
광부들과 착정기도 함께 돌리던
도당의 책임일군 김성국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을 올렸더라
-선광장확장공사에 쓸
설비제작을 하는 기술자들을 찾아
며칠째 분광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순간 아무 말씀도 없이
막돌들이 나뒹구는
광산의 언덕길을
생각깊이 거니시던 지도자동지

지배인을 찾으시어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현장을 돌아보시며
광산의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어라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던 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성국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었어라
-오늘 당비서동무를 만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기쁘오
지배인의 걱정을 덜어주려
당비서가 기술자들속에 들어갔단말이지...

3

도당책임일군 김성국
조용히 생각을 더듬어보아라
몇해전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진행했던
도당협의회

어떻게 하면
쇠돌생산을 높이겠는가
제철소들의 만가동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그날

설비타발
로력타발
자재타발의 자그마한 요소도 묵과하지 않고
심각히 비판되던 잇을수 없는 그날

협의회 전과정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료해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일군들은 수자만 보지 말고
광부들의 심장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일깨워주시고
모자라는 생각 보태어도 주시며

아름찬 과제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행정일군들을 잘 도와주지 못한
당일군의 부족점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군중과 함께 있다고 하여
군중속에 들어간것이 아니라고,
당조직을 움직이고
군중을 발동시키는데
다시말하여 쇠돌을 캐는
광부들의 심장을 울려주는것
이것이
아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쇠돌을 빠른 기일안에 높이 끌어올릴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이라고
그리도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던
한없이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고
뿔뿔이 머리를 쳐들지 못한 사람
광산당비서 혼자만이었던가

광산에 내려올 때마다
제일 먼저 찾은곳은
당비서의 사무실
제일 먼저 잡은 손도
당비서의 손

언제한번 지배인이 일하는
사무실 문고리
먼저 잡은 일 있었던가

생각할수록 깊은 자책으로
친애하는 그이앞에
머리를 뿔뿔이 쳐들수 없었던 성국

바로 그것이였어라
행정일군들이 제구실을 하게 하고
창발성을 내여 마음껏 일하도록
환히 밝혀주신 지름길

우리엔 이것이 없었어라
그래서
이 모퉁이를 막으면
저 모퉁이가 터지고
저 모퉁이를 막으면
이 모퉁이가 터지지 않았던가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
그대로 피와 살이 되어
막장과 광구마다
선광장과 착정기마다
활기넘친 목소리가 울리던 나날이
화면처럼 차창에 비껴 흘러라

아, 자식의 성장을 두고
그처럼 대견해하시는 어버이심정으로
힘과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어
훌륭히 자라난 충신의 참모습
그리도 기쁘시여 기쁘시여
못내 잊지 못하시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4

차창으로 흘러가고 다가오는
련련한 산발들
북방의 산세 험한 골짜기와 골짜기 지나
승용차는 달리어라

이제 그이께서 이어가실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라
가닿으실 끝은 그 어디바루나

굽이굽이 산길을 주름잡아
차는 조용히 달리고 달리는데
또다시 울리시는 그이의 음성
-내가 광산에 찾아올 때마다
당비서는 나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소
하지만 가는곳마다
쇠돌보화의 난가리는
높이 쌓여있고
저 쇠돌산들이
당비서의 말을 대신하고있소

쇠돌바위도 찢찢 금이 가는
정이월의 강추위속에서도
굴착기의 기관이 열세라

남먼저 솜옷을 덮어준 사람
쇠돌계단이 깊어갈수록
착정기의 길을 앞에서 열어주며
언제나 현장에서
광부들과 함께 있는 사람

억만재부를 품고있는
말없는 철산봉의 그 마음처럼
언제나 앞에 나서는
걸린 문제를 한몫 내대어 풀며
승리의 돌과구를 열어온 일군

말없는 당비서의 그 모습에서
깊은밤
이른새벽
광부들의 마음을 따듯이 덮어주고
충성과 위훈의 한길로 이끌어준
그 수고 헤아려보시며
깊은 사색속에 잠기신 그이

후손만대에 길이 물려줄
위대한 창조의 기념비를 떠받들어
흔들림없는 초석과 같이
이 나라 주체공업의 강철기둥 받들어
말없이 말없이
철산봉을 어깨로 떠받들줄 아는 사람

말은 없어도
어디서나 가장 큰 쇠돌의 메부리로
당을 받드는 당비서의 가슴속
높뛰는 뜨거운 박동소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가시는 그이

아, 차창밖엔 파사로운 해빛에
무르익은 과일들이 향기 풍기고
아늑한 승용차안에서는
친애하는 그이의 해빛을 받아
말없는 광산당일군의 참모습이
참된 충신의 향기를 풍기거니

풍요한 가을날
산세 험하고 굽이 많은
북방의 험한 령길로
차는 달리는데
멀어져가는 광산으로
다시금 눈길을 보내시며
조용히 지으시는
해빛밝은 그 미소

어깨 나란히 걸어서
 동행자라
 먼길 시련의 고비 넘으며
 뜻을 함께 하는 사람
 우리 당의 의도대로 일할줄 아는
 미더운 동행자를 대견해하시는
 그 사랑의 심중

아, 현지도도를 마치시고
 오시는 그 길
 그이께서 그리도 기쁘신것은
 광구마다 높이 솟은
 석돌의 메부리만이었던가
 뿔어올리는 정광의 흐름소리만이었던가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말없이 당을 받들줄 아는
 참다운 동행자의 모습을
 그이께서 여기 광산에서 보시였기때문이어라

그이께서는 가시여라
 천만 메부리가 키돋움하는
 조국의 산밭들을 넘고넘으시며
 손들어 멀리 바래워주던
 광산당비서도
 광산의 지배인도
 마음속 가장 가까이 거느리시고
 오, 부강하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로

백두밀영의 밤에

김선

내리는 눈송이도
 아지마다 눈꽃을 곱게 피우고
 밀림에 지저귀는 철새들도
 이곳에 와 보금자리 찾는곳

한겨울에도 물안개 피어올리며
 봄날의 아지랑이 생각케 하는
 소백수물소리도 노래처럼 정다운
 백두밀영의 밤

이밤이 새면 2월 16일
 고향집 찾아온 이내 마음
 잠들수 없어
 잠들수 없어
 조용히 숙영소를 나선 이밤
 어느새 다달았구나
 꿈에도 그림던 백두밀영고향집에

얼마나 그리던 고향집인가
 내 마음속에 언제나 솟아있던 집
 하얗게 눈꽃으로 단장한 추녀아래
 별빛도 다투어 내려앉는 밤
 달빛도 유정한 빛 모아오는 밤

이 세상
 가장 높은곳에 선듯
 가슴속 진정할수 없는 환희를 터치며
 저 멀리 미래의 언덕에 빛나는
 봄노을이 바라보이는 이 언덕

여기서

솟는 해를 남먼저 맞고싶어
 이 땅에 백두의 광명성이 솟아오르던
 그 아침의 영광에 나도 서고싶어
 조선의 하늘가에 영원할
 주체의 해발을 우러러
 신념의 맹세도 새로이 다지고싶어
 고향집앞에 선 이밤

나 하나의 마음이 아니구나
 길가의 눈을 정히 쓰는
 저 너인은 누구인가
 꽃을 안고 방금 들어서는
 저 소녀는 또 누구...
 고향집 야경을 사진에 담고있는
 저 외국인은 또 언제...

아, 답사길 함께 걸은 그들도
 이밤 나처럼 잠들수 없어
 새날을 앞당겨 이곳을 찾았구나
 온 나라의 마음이
 온 세계의 마음이
 하나의 념원속에 찾아오는구나

정녕
 이밤 고향집을 찾은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구나
 인류의 하나같은 마음에 받들려
 백두밀영고향집은 솟아있구나
 낮에도
 밤에도

인민의 마음속에

리영춘

꽃은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생기있고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 취할듯한 향기...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꽃을 많이 가꾸고 즐기며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들은 제나름으로 피고 지는 계절이 있으며 찬서리가 내리면 빛을 잃고 스러진다.

허나 이 땅에는 사시절 영원히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곱게 피어있는 꽃도 있다. 나는 그러한 꽃을 알고있다.

나는 얼마전에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백두산고향집에 갔다온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백두산고향집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하여 갔었다.

백두산고향집앞에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활짝 핀 김정일 화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김정일 화.》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며 바라보는 나의 눈시울은 뜨거웠다. 그 누가 피워놓았는지 알수 없으나 그들의 지극한 심정에 머리가 숙여졌다.

백두의 천리수해우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정일봉앞에 자리잡은 백두산고향집은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거룩하신 력사가 뜨겁게 어려있는곳이다.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푸르려 설레이는 백두산고향집의 한그루의 나무에도 해방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밝은 미소와 력사의 자취가 그대로 비껴있어 무심히 볼수 없는곳이다.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깃들어있는 백두산고향집을 어찌 한순간인들 잊을수 있겠는가.

하여 연백벌과 분계선마을에서 온 농장원들, 황철과 김철의 로동계급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성원들, 조국방선을 지켜선 군인들, 대학생들, 어린학생들이 끝없이 찾아오고있는것이 아닌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칠줄 모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려고 백두산고향집앞에 김정일 화를 피워놓은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싶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시려는 효자들을 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싶었다.

나는 그 주인공이 이곳 일군들속에 있을것이라고 넘겨짚고 해설강사를 만나 속에 품은 심정을 털어놓았다.

얼굴이 도리암직하게 생기고 몸매가 미끈한 처녀강사는 인상 좋게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 주인공이야 선생님 자신이 아닙니까.》

《강사동무, 그런 룡담은 삼가하고 솔직히 말해 주시오.》

《어마나, 룡담이라니요. 선생님도 김정일 화를 정성껏 포장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꽃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강사를 야속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글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는가. 내가 자기를 자랑하자고 김정일 화를 가져왔단 말인가. 정말 생각할수록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선생님이 찾는 주인공들은 온 나라 인민입니다. 그분들이 저기 오는군요.》

강사는 백두산고향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나는 강사가 가리켜주는곳에 시선을 돌렸다. 옷차림을 곱게 한 처녀들과 총각들, 로인들과 외국의 벗들까지 한데 어울려 이야기를 꽃피우며 올라오고있었다.

그들속에는 취재길에서 만났던 공훈광부아바이도 있었다.

백두산고향집에서 공훈광부아바이를 만나니 기쁨은 여간 크지 않았다. 나는 강사와 말하던것도 감감히 잊고 공훈광부아바이한테 달려갔다.

《아니 이게 누구요? 작가선생이구만.》

공훈광부아바이가 나를 알아보고 너무 기뻐 벅글거리며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아바이, 그동안 건강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하자 공훈광부아바이는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자식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인사들 해라. 우리 광산에 왔던 작가선생이다.》

《처음 뵈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공훈광부아바이의 아들딸과 손녀들이 저저마다 인사했으나 나의 시선은 커다란 비닐 《집》에 가있었다.

(저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아담하게 만들어가지고 왔을까?)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비닐 《집》을 바라보며

공훈광부아바이에게 물었다.

《저 함에 무엇이 있습니까?》

《**김정일**화요.》

《**김정일**화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날 백두산고향집에 가져오자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 꽃피웠지요.》

공훈광부아바이는 긍지높이 자랑하였다.

나는 **김정일**화란 말에 마음이 이끌려 비닐《집》안을 들여다봤다.

순간 나는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찬바람이 스며들세라 나무판자로 이중벽을 하고 그사이에 숨을 다져넣은 함에는 **김정일**화가 활짝피어있었다.

꽃에도, 푸른 잎에도 사람들에게 힘과 신심을 안겨주는듯 생기가 돌았다.

나는 감동된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이렇게 감탄의 말을 올렸다.

《공훈광부아바이, 정말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게 어디 우리 가족뿐인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그러하지요.》

공훈광부아바이 말은 평범하고 범상하고 소박하였다. 그러나 그 말속에 얼마나 깊은, 진속이 있는가.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찬비내리는 들길도, 칼바람 휘몰아치는 겨울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이 세상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다 바쳐 **김정일**화를 피워가지고 온 공

훈광부의 응심깊은 진속이 돋보이였다.

얼마나 미더운 인민인가.

우리 인민의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날 백두산고향집에 향기 그윽한 **김정일**화를 피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찌 공훈광부아바이뿐이겠는가.

백두산고향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공훈광부아바이처럼 정성들여 꽃피운 **김정일**화를 가지고 와서 창턱밑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들속에는 언어와 풍습도 다르고 피부색도 서로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고 재일동포 조국방문단과 상공인들, 재미교포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백두산고향집으로 잇닿은 길에는 언제나 사람의 물결이 끝없이 흘러넘치고 백두산고향집앞에는 **김정일**화가 붉게붉게 피어있다.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 효자로서 그이를 충성다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마음, 그것은 바로 실생활과 투쟁의 깊은 체험속에서 형성되고 뿌리내렸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길을 영광으로 빛내여가는 숭고한 사상감정인것이다.

바로 그 숭고한 사상감정이 오늘 그대로 백두산고향집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것이 아닌가.

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속에 뿌리박고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는 백두산고향집앞에,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만발하는 불멸의 꽃인것이다.

가사

언제나 마음의 첫자리에

박세일

자식을 두고 마음 쓰시는

아버이 그 심정인가

언제나 어디서나 남먼저

우리를 생각하시네

한없이 친근한 **김정일**동지

마음의 첫자리에 인민이 있어라

하루가 시작되는 첫 아침

우리 일터 찾아오시고

한해가 시작되는 설날도

우리과 함께 계셨네

우리의 모든 소원 헤아려

나라일 펼치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희망 담아서

앞길을 밝히시네

시조

백두산 지구

김영길

길은 열려있다

신비로운 동화의 세계로

이 몸을 이끌어가는듯

태고의 밀림속

소소리 높은 숲사이로 뻗은 길

그 끝은 어드메나

오래고오랜 세월

지구 형성대의 신화만이 깃들었던

료원한 천고의 밀림속에

광복의 총성이 메아리쳐간 길

수령님 찍으신 그 첫 자욱으로부터 열려진 길

세월속에 문힘이 없이

크나큰 위업의 한길로 뻗어있는 길

수령님 걸으신 자욱자욱을 따라

래일에도 뻗어있는 백두의 길이어

저 숲속

저 험한 준령들에 비껴간

준엄했던 세월은 그 몇몇해던가

아우성치는 대륙풍속에

아름드리 거목이 꺾이여도

우리 수령님 따라 이 길을 가고간 대오

오늘도 변함없이 가고가는 우리 혁명의 길

시련의 천만고비는 어떻게 넘으며

다진 맹세는 어떻게 지켜야 함을

한줄기 목깃을 스치는 바람결도 속삭이고

천만리로 뻗어있는 이 길우에

자욱자욱 났을 불러 깨우쳐주는 길

가다가 돌아설 길도 아니

힘겨웁다 쉬여갈 길도 아니

오늘도 그날의 눈보라를 불러

투쟁의 마당으로 이끌어주는 길

우리 혁명의 간고했던 그 첫 기슭에서

우리 혁명의 승리한 래일의 언덕까지

다 내다볼수 있는 길

주체의 태양이 찬란한

락원의 오늘에도 길은 열려있다

먼 반세기전

인적없던 밀림에 찍혀진 그 첫 자욱에서

그 자욱이 이어져 가닿을

꽃피는 인류리상의 봄동산으로

길은 열려있다

귀틀집이 서있는곳

뻘뻘한 밀림으로 올라리쳐

몇걸음 앞에서도

그 자태 드러내지 않는곳

태고연한 교요의 신비로움속에

건설마냥 귀틀집이 서있는곳

인적없는 천년원시림속에

이런 신묘한 자리도 있었던가

온 하늘의 빛을 다 모아오는듯

정신한 아침의 해발이

제일 처음 비쳐들어

해종일 머물러있는곳

오 광막한 백두용암대지우의 단 한자리

세상이 어지럽던 세월에도

그 뉘에게도 내보임이 없이

수수만년 세월이
고이 아꼈던 자리여

간절히 타끓는 민족의 열망
세기의 뜨거운 숙원을 용암으로 터치며
하늘땅 가득
백두광명성의 채운을 뿜어올린
태양의 분화구여

청신한 산천의 정기속에
깨끗한 인류의 소원속에 지켜온
지구우의 단 한자리
주체의 향도성을 높이 안아올린
전설의 신비로움 하 많이 깃든곳에
이 땅의 눈비를 다 막아안고
누리에 봄천지를 펼치는 산상에
귀틀집은 숙연히 솟아있어라

봇나무야 말하여다오

그날 너는 보았겠지
여기 해돋이 바위기슭
소백수 물소리 소연한
산비탈 구호목결에 나란히 서있는
줄기 하얀 봇나무야

장군님 모시고 조국땅을 밟은 그밤
껍질 벗긴 나무에
한자한자
항일의 너전사 새겨가던 그 글발

말하여다오
아직 애어리던 아지아지
살랑대는 잎새마다에
감격의 이슬맺혀 내 바라본것
그날에 새긴 글발 무엇이던가를...

수수십년 눈비에 젖고
세찬 광풍은 불어지나
글발은 희미해졌어도
그 세월의 증견자로 자라오른 봇나무
너전사의 숨결로
조용히 설레이며 속삭여주는 말

-백두산에 장수별 폈다
백두산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아, 세월을 넘어오는 감격의 파동으로

심장은 고동치고
그날의 뜨거운 환희로
눈가엔 감격의 이슬이 어린다

나무야
줄기 하얀 봇나무야
아지가 꺾어질듯 휘여들며
백두의 바람을 일으켜
너는 세월을 넘어 전해주고있구나
조선의 기쁨 영원한 행복을

울울창창한 밀림속
인적없는곳에 새겼어도
장군님 높이 모신 크나큰 조선의 영광 담아
후손만대의 력사우에 재보로 남겨놓은
행복의 글줄이여!
환희의 메아리여!

말하여다오, 말하여다오 봇나무야
흐르는 세월속에 영생하는
너전사의 그 녀트로
백두의 천만나무숲을 붓삼고
만리 푸른 창공을 종이 삼아
나도 쓰고싶은 글발이 있다

-주체의 태양 찬란한 조선에서
향도의 빛발 온 누리에 빛난다!

넌린폭포

눈부신 하얀 명주필
열백겹 이어 드리운듯
바위 틈새를 헤치고
얼음장속에서도 스며올라
넓은 암반을 뒤덮으며 쏟아지는
넌린폭포

박연, 구룡연 ...
아슬한 하늘가에 끝을 두고
땅을 짚는 명승의 폭포가 많아도
크게 알려지지도 않고
요란한 소리도 없이 흘러내리며
혁명의 성지를 감싸안은
리명수폭포

내 이 땅 어디서든 본적없는
장폭의 폭포수 물보라에 눈곱이 젖는구나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쳐

꿈속처럼 안긴 소중한 조국땅
손이 닿도록 쏘아보던 그 마음들이
뜨겁게 어려있는 산천

한갓 자연의 조화만이라면야
바라보는 가슴 이리도 후더울수 있으랴
조국을 찾아 피흘려 싸운
그 애국의 마음과 마음들이
넓은 이 땅을 다 안아보고 쏘아보고싶어
한줄기만이 아닌
폭으로 펼쳐안고 내리는 폭포

아아
봄, 여름, 가을...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바뀌어도
순결한 조국애의 그 마음들이
어머니 대지를 끝없이 애무하며
쉬임없이 흘러 넘치는구나

《천군바위》

선오산을 지나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
아찔한 천길 허공으로 뻗어나간
길녘의 로대끝에 조심히 다가서니
오, 눈앞엔 깎아지른 돌의 밀림
펼쳐진 바위의 숲

장쾌하구나
먼 옛적 이름난 석공의 손길이 닿았는듯
뾰족한 용암이 흘러내려 굳어진듯
비바람에 씻기어 다듬어진
천고의 대황홀경!

키높은 바위숲의 정수리엔
백두산상에 서리어 빛발치는
태양의 채운이 서리고
돌기둥 밀뿌리엔
좌아-
천지의 거세찬 물 감돌아 솟구친다

오, 항일의 총검을 비껴들고
압록강을 뛰어넘어

천만산야 주름잡으며
광복의 함성높이 기세차게 내달던
투사들의 그 모습인가

못잊을 옛 대오를 사열하시는듯
바위들의 군상을 황홀히 바라보시며
감회로운 추억속에 서계시던 수령님
다감히 불러주신 그 이름

《천군바위》

《천군바위》

오오
전설많은 백두의 옛 전장에
영웅적항일전의 대격전상을 펼쳐놓으며
떼지어 선 바위
《천군바위》여!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 변치 않을 천군바위
백두에서 무어진 우리 혁명의 대오
불패의 그 모습 영원함을
세월을 넘어 증언하는 불멸의 군상이여

오직 하나의 기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며 수령이 내놓은 사상과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하는데서 엄격히 지키시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교시를 하시면 티끌만치도 보태거나 덜거나 하는 일이 없이 무조건 그대로만 집행하는것이다.

실사 그 어떤 어렵고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어도 그이의 그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

그를 말해주는 실례들이 있다.

196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그이께서는 몇몇 일군들과 함께 승용차로 평안남도의 들길을 달리고계시였다.

농촌체제의 첫 결실이런듯 어데 가나 만풍년이든 가을이였다.

차창밖으로는 황금이삭 설레이는 논벌들과 울긋불긋 열매주렁진 과원들이 련련히 흘러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가을의 정서를 한껏 돋구는 농촌의 풍요한 모습에 심취되시여 전야를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 순천시 룡봉리를 지나고있을때 문득 한곳을 가리키시였다.

아름다운 농촌전경에 흘러있던 일군들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쪽으로 눈길을 모두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포도나무들이 가로세로 줄지어 늘어선것외에 다른것은 보이지 않았다.

무엇때문이실까? ...

일군들은 서로 의아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 좋은 땅에 포도밭을 꾸렸다고 하시며 포도나무는 야산의 비탈밭에도 얼마든지 심을수 있는데 아까운 농경지를 침범했다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아, 그때문이시였구나!)

그제서야 잘못된 문제임을 깨달은 일군들은 자책감을 느끼였다. 전군중적운동으로 과수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나오자 아무런 고려없이 과수원조성면적을 내려먹인 후과였다.

승용차는 어느덧 대동강을 건느는 룡봉나루가에 멈춰섰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룡봉리의 앞벌과

주변을 다시금 빙 둘러보시였다. 지나오면서 보신 평지의 그 포도밭을 옮길만한 자리가 없는가 생각되시여서였다.

그러시는 그이의 시야에 나지막한 야산이 펼쳐졌다. 그 야산둘레는 과수원의 적지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북청확대회의에서 교시하신대로 밭으로 리용할수 없는 땅에 과수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좋은 농경지에 포도밭을 만든것을 보니 이곳 일군들이 당정책을 잘 모르는것같다고 하시였다.

그 말씀을 새기느라니 일군들의 가슴에는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산이 많고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야산이나 산비탈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구절구절이 뜨겁게 안겨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농촌의 들길을 지나시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과수원조성사업을 보살피시며 잘못된 문제들을 즉시에 바로잡아주시는것이였다.

왜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당정책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바로잡아주지 못했던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기는 대동강이 가까이 있고 땅도 좋으니 넓은 벌을 다 논으로 풀고 경지면적을 늘려 알곡생산을 높이도록 하라고 따듯이 이리시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시려는 그 투철한 립장에 고개를 숙이였다.

그리하여 그 이듬해부터 들판의 포도밭은 산기슭으로 옮겨지고 포도밭이 앉았던 벌에는 황금나락이 무겁게 실리게 되였다.

이 이야기는 1975년 5월에 있던 일이였다.

어느날밤 국제전화를 받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슴이 저리시였다.

그무렵 먼 알제리에 가계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의 농사가 격정되시여 또다시 장거리전화를 걸어주시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곧 한 일군을 찾으시여 전국의 영농사업정형을 알아보시였다.

보고에 의하면 제일 긴장한것이 화학비료였다.

특히 이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에 따라 400 억포기라는 천문학적수자의 강냉이를

십은것만큼 이제 알찬 열매를 거두자면 결정적으로 화학비료를 제철에 넉넉히 주어야 하였다.

그런데 소요량에 비해 절대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이의 안색은 무거웠다.

그이께서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그러면 모자라는 화학비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이렇다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있던 일군은 머뭇거리었다.

그러다가 농업지도기관에서는 문덕군과 숙천군을 비롯한 일부 군들에 특혜분으로 나가는 비료 가운데서 논 정보당 100 키로그램씩 자르고 강냉이포기당 9 그램씩 주게 된것을 8 그램씩으로 기준을 낮추어 여기서 나오는 비료를 다른 지방들에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긴장한 비료문제를 풀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말씀드리었다.

논 정보당 100 키로그램, 강냉이포기당 1 그램씩 줄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었다.

문덕군과 숙천군 등지에 내려보내기로 된 그 특혜분의 비료가 어떤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농법을 창시하시면서 지대별 품종별로 되는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연구완성하시려고 얼마전에 친히 몇개 군들에 그종류와 수량까지 일일이 규정하여 내려보내게 하신 비료였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특혜분의 그 비료를 덜어내는 손쉬운 방법으로 긴장한 비료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허용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곧 해당부문 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긴장한 비료사정과 그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화학비료소비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요령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수령님께서 문덕군과 숙천군을 비롯한 일부 군들에 특혜분으로 주라고 하신 비료는 한그람도 어김없이 다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여도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방향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방도도 생기고 제기된 문제들을 다 옹골케 풀어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립장은 단호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겨서는 안되는 법이고 지상의 명령이며 오직 그대로만 집행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깨우쳐주었다.

이처럼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긴장한 화학비료문제를 풀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것은:

첫째로, 화학비료공장들에 전력과 보수용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원만히 보내주어 모든 기대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화학비료생산을 부쩍 추켜세우며,

둘째로, 무역부문을 비롯한 다른 부문들에서 요긴하게 쓰려던 화학비료들도 전량을 농촌경리 부문에 돌려주며,

셋째로, 교통운수부문에서 화학비료수송에 힘을 집중하여 최단기간내에 화학비료를 협동농장에까지 실어다주며,

넷째로, 도처에서 전군증적운동으로 분토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것이었다.

이 혁명적인 조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특혜분의 화학비료는 해당 군들에 전량 철저히 보장되었고 다른 모든 군들에서도 비료를 충분히 받아가며 알곡 800 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었다.

가사

당이여 그대가 있어

최준경

푸른 꿈 키워주는 그 손길 없었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도 같으리
당이여 그대 준 사랑이 있어
희망의 나래펴고 내 청춘 꽃피웠네

내 생명 이어주는 그 품이 없었다면
이 몸은 바람에 진 락엽과 같으리

당이여 그대 준 숨결이 있어
인생의 푸른 봄을 사시절 안고사네

내 앞길 비쳐주는 그 빛발 없었다면
이 몸은 등대 잃은 배와도 같으리
당이여 그대 준 미래가 있어
신념의 노를 잡고 희망찬 길을 가네

남녘에 피는 꽃

문재건

피었구나
피여났구나
내 집 창가에도
한송이
내 가슴에도
한송이

피는 꽃
아름답다 기뻐더니
남해라 한끝
바람 세찬 내 집 창가에도 피었구나
설음 많던 이 가슴에도 피었구나

아 타는듯 불타는듯
불게 불게 피어난 **김정일** 화
밤에 봐도 낮에 봐도
변함없는 그 모습
꽃을 보니 더더욱 간절하구나
그리워 다시 보니
그이 모습 뵈옵는듯

흙속에 뿌리내린 꽃이더냐
계절이 피워준 꽃이더냐
소원속에 뿌리내리고
그리움속에 피어나서

가사

피여도 마음의 꽃

그래서
비바람 몰아쳐도 피고
그래서
칼바람 모질어도 피는

투쟁의 험한 길 떠나면서도
가슴속에 품어안고 가는 꽃
칭칭 쇠사슬에 묶이워서도
심장에 고이 지켜가는 꽃

아 꽃이여도 지지 않는
신념의 꽃 **김정일** 화
이 꽃아래
자주의 꽃들이 피어나리
민주의 꽃들이 만발하리
내 나라 통일의 봄은 오리

찬란한 통일러명을 마중가는 마음들이
심장으로 가꾸고
흠모로 꽃피우는
아 꽃이여
남녘에 핀 **김정일** 화여

백두의 바람소리

정도희

밀영의 푸른 숲 흔들어주는
정일봉마루의 저 바람소리
눈보라 헤치며 붉은기 날리던
그날의 투사들 그 숨결인가
아 백두의 바람소리

못잊을 사연을 전하여주며
이 가슴 울리는 저 바람소리
고향집 안녕을 지켜온 투사들

그날에 남기고간 그 목소리가
아 백두의 바람소리

세월의 언덕을 넘고넘어서
오늘도 울리는 저 바람소리
투사들 넋으로 한생을 빛내갈
내 삶의 숨결로 안고살리라
아 백두의 바람소리

향도의 자욱을 따라

-문화예술부혁명사적관(2관)을 찾아서-

리영환

아직은 산과 들에 흰눈이 점점이 남아있었지만 2월의 태양아래서 대지는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며 봄기운을 풍기고있었다.

바람한점 없고 해빛 따사로운 좋은날을 골라 우리들은 문화예술부혁명사적관을 찾았다.

사적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47년 2월 28일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예술영화촬영소에 자리잡고있었다.

영광의 그날을 노래하듯 사적비가 웅건히 솟아 있는데 사적관들은 사적비를 웅위하듯 양켄에 장중하게 자리를 잡았다.

사적관(2관)출입문우에는 백두의 고향집이 벽화로 부각되어있었다. 백두의 고향집을 숭엄하게 바라보며 우리들은 사적관(2관)에 들어섰다.

우리가 들어선 넓고 높고 아늑한 방에는 예술영화 **《피바다》** 촬영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화폭에 모셔져있었다.

천리혜안의 빛나는 눈길로 촬영장을 굽어보시는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는 강사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였다.

《2층으로 꾸러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사적관은 전부 15호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 1층 1호실은 총서실로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제사상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벽면에 모셔진 그림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감회도 새로운 1969년 8월 29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술영화 <피바다>를 촬영하고있는 현지에 나오시여 현지촬영을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그림을 보았다.

집들이 불타고 타래치는 화염이 하늘을 뒤덮는다.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서로 찾고 부르며 뛰어가다가 일제놈들의 총칼에 맞아 피를 뿌리며 쓰러진다. 말발굽소리, 사람들의 웨침소리, 집이 무너지는 소리, 하늘과 땅이 온통 불과 피속에 잠긴듯싶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망이 좋은 둔덕에 서시여 영화의 촬영장면을 굽어보고계신다. 흘날리는 먼지며 매캐한 연기,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연방 터지건만 그이께서는 아랑곳 않으시고 팔

을 엮으신채 깊은 사색에 잠겨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무엇을 생각하고계실까. 저 멀리 항일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피바다》**를 창작공연하던 그때를 돌이켜보시는것은 아닌지?

강사는 이야기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것-이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고 원대한 구상입니다.》

혁명적문학예술의 계승발전!

순간 거대한 진리를 체감한듯 가슴이 쿵 울리고 섬광같은것이 눈앞에서 번쩍한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제 사상과 업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봉의 높이에 끌어올리시였다.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 바치신 그이의 로고와 심혈을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자욱을 따라 우리는 2층에 모셔진 사적실에도 발길을 옮겼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 전반에 일반화해나가신 령도의 사적이 수록되어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순결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려면 그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화면에 옮기는것을 영화혁명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시였다.

2호실에는 그 준비단계로서 1964년부터 1968년까지의 영화예술부문을 지도하신 사적을 수록하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선영화보급사, 영화필림복사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사진들과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내가 찾은 길》** 등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도록 창작일군들을 이끌어주시는 사진들을 감명깊게 돌아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67년 5월 3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움데 대하여》**를 발표하시고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우리 당의 문예전사로 자라도록 이끌어주시었다.

1967년 2월에는 **《백두산창작단》**을 무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비롯한 혁명적인 예술영화창작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2호실에는 그 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용하시던 수수한 책상이며 결상, 전화기, 록음기, 쌍안경 등 사적물들이 전시되어있었다.

3호실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김으로써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이 이룩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으로 가깝게 접근하게 된 사적들을 수록하였다.

우리들은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속도전을 벌려 40일에 창작완성하도록 111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작가, 예술인들이 감기에라도 걸릴세라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앞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2년 3월 6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형식이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이어야 한다는 대작창작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셨다.

4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화면에 모시는 역사적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불멸의 업적을 전시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3년 4월 **《영화예술론》**을 발표하시어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밝히시었다.

벽면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화면에 모신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 **《친위전사》**,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의 장면들을 찍은 사진들과 70년대, 80년대 성과작들인 **《열네번째 겨울》**, **《그날의 맹세》**, **《월미도》**, **《보종》**, **《요람》** 등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영화의 주인공들의 투쟁모습이 걸려있었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를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드릴 예술영화 **《조선의 별》** 창작과정을 지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은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5호실에는 우리 당의 역사를 수록하는것을 기

본사명으로 하는 기록영화촬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영화와 아동영화를 우리 식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업적을 수록하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비약시킨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불멸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느끼며 다음 호실로 걸음을 옮겼다.

6호실, 7호실, 8호실, 9호실에는 우리 식의 음악무용을 발전시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와 업적을 수록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노래와 춤을 창작하는것을 음악무용예술의 기본임무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그이께서 무어주신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하여 예술인들은 노래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무용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사파풍년》** 등 훌륭한 노래와 춤을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5대 혁명가극을 창조하시어 세상사람들을 놀래웠다. 그이께서 **《피바다》**를 절가화하기 위하여 몸소 2,400여곡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47곡을 골라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사적실에는 음악무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예술인들에게 보내주신 각종 사랑의 악기들과 록음기, 전축 등 사적물들도 전시되어있었다. 잊을수 없는 그날의 사연을 노래하는듯 록음기에서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북두칠성 저멀리 달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디 계실까? ...

우리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따라부르며 경건하고 숭엄한 심정에 휩싸여 다음 호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 호실에는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문학예술의 후비를 굳건히 키우며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활동정형이 수록되어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옥양의 시집과 군중문학통신원작품집들, **《6.4 문학상》** 메달과 상장들을 볼 수있었으며 문학예술의 후비를 키우기 위하여 돌

려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다.

다음 호실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발길을 멈추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의 문학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주체적문학 건설과 창조의 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주제로 한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고 친히 《4.15 문학창작단》을 무어주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와 보살핌속에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등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과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장편소설들,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소설로 옮긴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사적실에는 우산장창작실을 비롯한 창작기지들과 작품토의를 하는 작가들의 사진과 함께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뜨거운 심장》, 《빈터우에서》, 《평양시간》, 《철의 신념》 등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형상한 장편소설들과 서사

시들이 진렬되어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현실주제 작품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사적관을 다 돌아본 우리들은 주체적문학예술 건설에 탁월한 공헌을 하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앞에 다시금 뿔어오르는 감동을 금치못하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학예술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최고봉의 높이에 끌어올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수천년의 인류문화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던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쳐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문예전사된 공지와 사랑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우리는 당과 수령께 충직한 효자로 한생을 살리라 굳게 결심하며 사적관을 나섰다.

정오의 광휘로운 해빛이 우리의 머리우에 눈부시게 쏟아져내린다.

염분진의 샘

박창규

동그랗게 오래낸 거울인듯
수정을 다듬어 고여놓은듯
어머님 꾸리신 샘가에 서니
금시 샘우에 가득
어머님 모습 어려와라

엄마 잃은 아기의 불에
말라붙은 눈물자욱 닦아주시듯
한잎 두잎 샘우의 가랑잎 걷어내시고
금잔디, 기름잔디
샘가에 떠옮기신 김정숙어머님

약수도 아닌
그래서 숲속에 가려
목은 쭉대에 덮여
그 어느 길손 한번 찾은적 없는 샘
이 샘물 어이하여
그리도 참 좋은 샘이라고

어머님은 정히 꾸리셨을가

치마폭 적시며
하얀 자갈 씻어 샘속에 잠그시고
돌을 쪼아 한돌기 두돌기 샘둘레 쌓으시던
그날의 어머님 오늘도 못잊어선가
염분진 바다가엔 갈매기 목매여 울어라

아 샘
염분진의 샘
피로 찾은 이 땅
그 땅우에 돋는 풀 한대
그 내줄기에 덩구는 조약돌 하나

그 모든것
어떻게 가꾸고 꽃피워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며 깨우쳐주며
조국애의 맑은 샘 가슴마다 부어주는
아 염분진의 샘이여

12 월의 눈송이 외 1 편

김봉문

이른새벽
어머님 탄생하신 그날 못잊어
대성산혁명렬사릉 찾아 문밖을 나서니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송이송이 탐스런 눈송이
혁명의 한길에 바치신
어머님의 고귀한 한생을 축복함인가
눈이 내린다
뜨거운 눈이 내린다

눈이 어찌 뜨거우랴만
피바다 불바다 혈전만리 헤치시던
백두의 엄혹한 그 시절에
찬눈은 어머님께서 다 맞으시고
락원의 이 강산에 내리는 눈인데야...

마음속에 하많은 이야기 속삭이며
눈이 내린다
한몸 그대로 방패로 성새로
장군님을 옹위하여
불멸의 군상으로 솟아 빛나시던
대사하 그 언덕의 메아리도 실고
눈이 내린다

마음속에 후더움을 안겨주며
눈이 내린다

자신은 찬눈가루로 끼니를 에우시며
몇알의 통강냉이마저
전우들 위해 끊이시던
못잊을 우등불가
그 뜨거운 열기를 안고...

눈이 내린다
어머님께서 걸으신 피어린 자욱자욱우에
만대에 이어질 그 불멸의 위훈을 전하며
오늘도 그날처럼 눈이 내린다

아, 백두성을 안아올리신
력사에 길이 빛날 영광을 전하며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진
영웅중의 영웅의 위대한 영상
그날의 모습으로 불러주며
락원의 이 강산에 눈이 내린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을 따르며
오늘도 우리들을 손잡아 이끌시는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 서니

송이송이 눈이 내린다
12 월의 그날을 못잊어
하늘땅 가득히 흰눈이 내린다
영원한 인민의 마음인가
축복의 송이송이 꽃눈이 내린다

샘물

깊은 산속의 샘물
천년을 굳은 바위도 뚫고 솟아
이리도 맑고
이처럼 정가로운가

샘물
천길 땅속 이 넓은 대지에
시원을 두었기에
얼지도 않고 쉬임도 없이
끝없이 솟아만 나는가

한점 티도 없이
조국의 푸른 하늘 고이 비껴 담고

흐리지도 마르지도 않네
사시장철,

두무릎 꿇고 앉아
너를 한껏 들이키니
내 가슴속에 샘솟는 열정
조국 위한 마음 진함말자
샘물이 이처럼 속삭일 줄이야

아, 맑은 샘
례사롭게 마주했던 샘물에서도
내 마음 다잡음이
얼마나 좋은가

위대한 인간세계의 예술적탐구

조재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오늘 우리 소설문학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한 작품을 적지 않게 내놓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특히 이 주제의 소설에 형상된 위대한 인간세계는 사람들을 끝없는 숭고한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강한 정서적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인간세계, 인간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미학적요구에서 기본을 이룬다.

현실생활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인간을 그리는데서 기본은 내면세계에 대한 치밀한 묘사이다.

인간세계,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리는것은 산 인간을 그리기 위한 기본과제이며 바로 여기에 인간학의 미학정서적감화력이 뿌리박고있다.

그러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한 소설에서 인간세계를 형상화할데 대한 요구는 인간학일반의 이러한 미학적요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소설은 위대한 인간세계를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할것을 형상창조의 기본과제로 제기한다.

이 주제의 소설은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인간학의 미학적요구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구현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위대한 인간은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가는 가장 매혹적인 인간이며 참된 인간의 최고의 전형이다.

위대한 인간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영웅적인 인간세계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있는 구체적인 인간개성이다.

이러한 위대한 인간을 형상한 소설은 위대한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여 예술적형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 위대한 인간을 열렬히 칭송하는 문학이다.

위대한 인간에게 남다른 숭고한 인간세계가 간직되어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면 할수록 위대한 인간을 형상한 소설의 정서적감화력은 튼튼히 담보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인간세계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신 충성의 빛나는 귀감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정신, 감정과 의지는 만사함을 존경과 흠모의 열정으로 가슴가슴을 뜨겁게 해주며 사람들은 그이의 인간세계에 완전히 매혹된다.

인정세계라고 하면 많은 경우 그것이 도덕이나 윤리적관계에서 빚어지는 감정, 정서세계를 가리키게 된다.

인간의 내면세계로서의 인간세계에는 물론 인정세계, 다시말하여 인간의 감정정서세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인정세계는 어디까지나 사상과 감정과 의지의 유기적인 결합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인간의 내면세계의 한부분, 한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세계를 사상, 감정,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면전체를 특징짓는 용어로 보고 사용하는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학의 기본과제인 인간성격 창조에서 가장 주되는 분야, 기본분야가 인간세계의 천명문제라고 말하게 되는것이다.

오늘 우리 소설문학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천명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미학적성과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첫째로 정치성과 인간성을 튼튼히 결합하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뚜렷이 형상한것이다.

우리의 소설문학은 인민을 위한 정치활동에서 그이의 위대한 인간적품모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관점에 서서 정치성과 인간성의 완전하고도 최상의 높이에서의 결합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혁명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이 다름아닌 위대한 인간이다.

위대한 인간은 자기의 지위와 역할로부터 본성에서 정치성을 체현한다.

위대한 인간성격의 본질적특성은 그의 강한 정치적성격에서 나타난다.

인간세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인간을 정치와 분리시켜 순수한 인간성, 인정세계에서만 형상할 때 거기에서는 결코 위대한 인간에게 특징적인 인간세계가 밝혀질수 없다.

정치성과 인간성을 결합하여 인간세계를 천명하는것은 위대한 인간의 지위와 역할로부터 출발하는 형상의 기본요구이다.

정치성과 인간성을 결합하여 인간세계를 천명

하는것은 위대한 인간의 인간세계를 그가 지닌 인간적면모에 맞게 위대한 인간세계로 부각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조건이다.

정치성과 결합시켜 인간성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그 인간적면모, 인간세계가 결코 위대한것으로 형상될수 없다.

정치성을 지향하고있으며 정치성에 바탕을 두고있는 그러한 인간성만이 위대한 인간세계로 될수있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영웅적인 사상과 감정, 의지의 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펼칠수있다.

이는 정치적각도에서 인간세계를 깊이 탐구할때 위대한 인간의 사상, 감정, 의지에 대한 형상이 전사회적인 견지에서 깊이있게 그리고 폭넓게 추구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소설문학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세계의 위대성의 기초를 그 정치성에서 확고히 찾고있다.

그러면 인간세계의 위대성의 기초에 굳건히 놓여있는 정치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려는 정신이며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로 이끌어나가려는 지향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의지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과 립장, 정신과 지향에 대한 탐구가 강한 정치성을 체현하게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바탕우에서 사상과 감정, 의지의 세계가 형상됨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세계의 위대성이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정치성에 관한 문제는 특히 우리 당과 인민의 령도자로 추대되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형상을 모신 작품들에서 전면적으로 해결되고있다.

이 주제의 작품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밝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현명한 령도를 주시는 불멸의 활동을 통하여 정치성을 높은 경지에서 실현하고있다. 《고향길》(김병훈), 《북소리》(김원종), 《수확의 계절》(김명익), 《손길》(박현)등 단편소설들은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활동을 형상함으로써 정치성을 구현하고 위대한 인간세계를 천명하는 바탕을 확고히 마련하고있다.

이처럼 정치성구현에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인간성을 이에 튼튼히 결합하여 위대한 인간세계를 천명하는것은 우리 소설문학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에 대한 형상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도로 되고있다.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감정과

의지의 세계로 전환되어 강렬하고 심오한 인간세계를 뚜렷이 나타낼 때 위대한 인간세계가 천명될수 있다.

그러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에 대한 형상에서 천명되여야 할 감정과 의지의 거대하고 강렬한 세계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운명에 대한 열렬하고 세심한 감수와 배려이며 또한 거대한 포용력과 대해같은 도량이다.

우리 소설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인간세계의 위대성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불타는 열정과 무한한 헌신성, 무비의 담력과 불굴의 의지를 통하여 뚜렷이 형상하고있으며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써 감명깊게 천명하고있다.

단편소설 《고요》(리종렬), 《밝은 해살》(박현)등에 형상된 인민들의 운명에 대한 열렬하고 세심한 감수와 배려는 그 얼마나 뜨겁고도 진실한 것인가.

이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만사람을 울리는 그토록 거창한 세계를 이루고있다.

단편소설 《고향길》(김병훈), 《새 건설》(진재환)등 수많은 작품들에서 우리는 조국의 앞날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발휘하시는 무한한 열정과 왕성한 정력, 끝없는 헌신성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 등 감정과 의지의 거대한 세계를 느낀다.

우리는 단편소설 《기억》(현승걸), 《햇복숭아》(김정), 《영생》(김영근) 등 수많은 작품들에서 또한 혁명의 길에 나선 우리 인민의 각이한 세대들을 모두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여주시며 영원한 의리를 다하여 보살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인간애를 본다.

이 모든 감정정서세계, 의지의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구현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대를 이어 완성하시려는 지향과 정신으로부터 흘러나오고있으며 그러한 지향, 정신의 세계와 확고히 결합되여있다.

이처럼 위대한 사상과 정신에 확고히 뿌리박은 것으로 하여 감정과 의지의 거대하고 강렬한 세계를 드러내고있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인간세계를 그리는 우리 소설문학의 형상특성이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천명하는데서 우리 소설문학은 이처럼 정치성과 인간성의 결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또한 위대한 생활의 탐구를 통하여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천명하는데서 우리 소설문학이 거둔 미학적성과에

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위대한 생활을 탐구하여 그것을 인간세계의 형상화에 지향시킨것이다.

생활에 대한 탐구가 없이 인간성격에 대한 예술적형상화가 있을수 없으며 인간세계에 대한 진실하고 심오한 묘사를 줄수 없다.

오직 생활에 기초하여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천명할 때만이 그것이 형상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킬수 있다.

인간세계의 위대한 면모를 부각하려면 위대한 생활이 탐구형상되어야 한다.

위대한 인간에게는 위대한 생활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위대한 인간에게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가장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이 있게 된다.

우리 소설문학은 자기의 창작적성과를 통하여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천명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생활을 탐구형상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생활은 가장 숭고하고 영웅적이며 아름다운 인간생활의 정화이다.

그러면 그이께서 펼치시는 생활이 가장 숭고하고 영웅적이며 아름다운 인간생활의 정화로 되는 내적근거는 어디 있으며 그이의 이러한 생활을 탐구하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 소설문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뚜렷한 실천적대답을 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생활이 위대한 생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는 충성을 다하시며 인민대중을 또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실천속에서 살며 투쟁하시기때문이다.

수령에 대한 관계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충성과 함께 인민대중에 대한 관계에서 또한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사랑의 폭과 깊이를 안고 있는 그러한 삶인것으로 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생활은 그 어떤 사소한것도 사상미학적높이에서 모두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위대한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생활이 위대한 생활로 되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력사적뿌리를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공산주의의 미래를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앞당기시는 그러한 관점과 립장에서 살며 사업하시기때문이다.

혁명의 과거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도 따를수 없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에 서계시면서 인민들을 행복한 공산주의 앞날으로 인도하시는데서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힘을 발휘하시는 까닭에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생활은 그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사상미학적질에서 모두 숭고하고 아

름다운것, 위대한것으로 된다.

이처럼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생활의 위대성을 특징짓는 근본조건은 그 생활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다 바치시고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심장깊이 간직하시고 공산주의 미래를 힘껏 앞당기시는 그토록 거대한 폭과 심원한 깊이를 가진 생활이라는데 있으며 그것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미학적특성을 가진 생활이라는데 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생활을 적극 탐구형상화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소설문학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생활은 어떻게 탐구되어야 하는가.

창작가로 하여금 생활을 탐구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옳바로 맺어나가는데 있다.

생활은 인간의 존재방식이며 그것은 사회적관계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언제나 인간관계에 주목을 돌려야 하며 그것을 생활이 형성되도록 심화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간관계만 잘 맺어주면 생활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탐구하는 문제도 그 생활을 어떠한 인간관계속에 내세우며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심화시켜나가는가 하는 문제로 분석되고 고찰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련결되어있는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감정, 의지가 표현되는 감명깊은 생활을 찾아내야 한다.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이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것이 또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호상관계에서 웅심깊은 사상과 감정과 의지의 소용돌이를 안고있는 그러한 정수적인 생활을 찾을 때 그 생활은 위대한 인간에게 특징적인 생활로 되며 범박한 생활, 범속한 세대생활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위대한 생활로 된다.

이것은 소설가들로 하여금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련결시키는 호상관계의 중심에서 위대한 인간의 감명깊은 생활을 찾을것을 요구한다.

단편소설 《조선시간》(성혜량)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아주신 문건에 씌여진 수자 하나를 놓고 사색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생활이 그려져있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쓰신 작은 수자에 깃든 의도를 남들이 따를수 없는 높이에서 파악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충성심의 숭고한

높이가 그대로 깃들어있으며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힘있는 존재로 키워가시는 그이의 인간사랑의 숭고한 경지가 심오히 반영되어있다.

하기에 이 생활은 위대한 생활로서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인간세계, 그이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뚜렷이 형상하는 바탕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단편소설 《고요》(리종렬)에서 탐구현상된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자그마한 산간역에 열차를 세우시고 늙은 역장을 만나주신 생활도 이러한 각도에서 탐구된 위대한 생활이라고 할수있다.

우리 소설문학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생활을 탐구하는데서 구현하고있는 중요한 방도는 또한 혁명의 역사적시기, 과거와 공산주의 미래의 호상관계의 중심에서 그이의 사상, 감정, 의지를 감명깊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생활을 탐구하는것이다.

혁명의 역사적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빛내이는 그것이 공산주의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는 위대한 열매로 되고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나가는 그 위대한 노력이 그대로 혁명의 역사적뿌리를 찬연히 빛내이는 투쟁으로 되는 그러한 호상관계에서 웅심깊은 사상과 감정, 의지를 안고있는 생활을 찾을 때 그 생활은 위대한 생활로 된다.

이것은 소설가들로 하여금 혁명의 역사적뿌리와 공산주의미래가 한줄기로 이어진 역사의 매듭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감명깊은 생활을 탐구할것을 요구한다.

단편소설 《고향길》에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모닥불에 손수 감자도 구우시고 폭풍도 맞받아가시며 백두산전적지를 행군하신 위대한 생활이 담겨있다.

이 생활에는 조선혁명이 개척되던 역사의 그 자욱을 안으시고 공산주의의 찬란한 노을을 남먼저 앞당겨나가는 심오한 내용, 혁명선열들의 숭고한 뜻으로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나가시려는 높은 뜻이 깃들어있으며 혁명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집약되어 웅건한 세계를 이루고있다.

하기에 이 생활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부각하는 생활로 되고있다.

심심산골 림산작업소 예술소조원들의 복소리를 그토록 높이 치하하시며 항일유격대식으로 예술선동을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예술발전의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시는 감명깊은 생활을 담은 단편소설 《복소리》에도 혁명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찬란한 미래가 하나로 고동치는 위대한 생활이 탐구되어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천명하는데서 우리 소설문학이 거둔 미학적성공에

서 중요한것은 셋째로 격식화,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배격하고 위대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생동하게 그리는것을 중요한 방도로 제기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하는것은 창작가의 근본자세이다.

그러나 정중성문제를 격식화문제로 혼돈하여서는 안된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소설문학은 정중성문제를 원칙적요구로 제기하면서 그것을 진실한 생활적형상문제와 밀접히 련결시켜 제기하고있다.

정중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결코 형상을 생활적으로 창조하는 문제와 저촉되지 않는다.

생활적인 형상에 대한 요구는 문학 그자체의 근본요구이다.

형상을 생활적으로 창조하는것이 정중성문제에 저촉된다면 문학예술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형상창조문제를 제기조차 할수 없다.

물론 생활적으로 형상한다고 하여 이 주제의 소설에서 생활을 비속화하고 세속적인 세계로 끌어내리워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과 감정, 의지의 세계를 찾아 그것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생활을 최상의 경지에서 묘사하는것은 생활탐구에서 저속성을 극복하고 정중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소설문학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 형상에서 정중성문제와 진실성문제를 밀접한 통일속에서 구현하고있으며 격식화,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이를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방도들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의 매 시기의 생활을 묘사하는데서 부모님들과의 관계, 동무들과의 관계를 어디까지나 역사주의적원칙에서 생활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묘사하는것이다.

우리 소설문학에서는 어린시절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정신적장성과정을 생활적으로 그리면서 희로애락의 구체적인 감정세계를 굴곡있게 생동하게 그림으로써 형상의 진실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소설문학에 대한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는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신념이 비껴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의 소설창작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의 소설문학은 앞으로도 이 주체의 소설창작에서 이룩된 실천적성파에 기초하여 심오한 인

간세계를 보다 높은 경지에서 탐구형상하기 위하여 계속 혁신적전진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믿음

김만영

그것만 있으면

이른아침 창을 열다가도

하늘가에 떠오르는 붉은 노을이

소중한 꿈에처럼 더없이 아름다워라

그것만 있으면

뜻을 같이하는

친근한 동지들과도

언제나 땀땀이 마주할수 있어라

당의 믿음!

그것은 마치 온몸에 흐르는 온기인양

비와도 눈바람 불어도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거니

무엇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바라던가

명예도 재산도 아니고

그 어떤 부귀영화를 주는것도 아니건만

그것없이는 순간도 살기 피로워하던가

아 험치않은 과업을 두고도

그것은 선뜻 나서게 한 신심의 불길이었고

멈춰설줄 모르게 한 용기였고

지칠줄 모르게 한 정열이었나니

그렇더라 그것은

가장 값높은 삶의 경지로

떠밀어주고 힘을 주며

이끌어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그 숨결

하기에 그것만 있으면

배낭 하나 둘러메고도

정든 부모처자와 헤어져

홀가분히 떠날수 있고

살아서 돌아올수 없는 그 길에서도

기적같이 살아 돌아오지 않던가

그 믿음에는 작고 큰것이란 따로 없네

모두가 소중하고 뜨거웁거늘

믿음을 저울질하는 그보다

더 배은망덕한것 없더라

사람이 심장없이 살수 없듯이

정녕 그 믿음 없이 살수 없어라

힘들어도 피로워도

그것만 있으면 더 바랄게 없나니

아, 산악같은 그 믿음

대해같은 그 믿음

행복과 영광과 삶의 전부인

김정일동지의 한량없는 그 믿음이여

바치는 심장이 변하지 않는 한

다하는 진정에 티있지 않는 한

심장에 불길처럼 활력을 주는 그 믿음

행복하더라

그 믿음속에 한생을 사는 사람은

생은 끝나도 당의 믿음은

영원히 남아 그 삶을 빛내주기에

세월은 가도

백철수

산, 산, 산...

한 굽이 돌아서면 앞이 텅가실어 뚜벅뚜벅 지팡이를 옮겨짚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보면 또 다시 막아나서는 령길. 산밭은 한창 단풍철이다. 황금빛으로 눈부신 이깔나무들과 피빛으로 불타는 고로쇠, 참나무들이 화려한 무늬를 수놓았는가 하면 길아래 계곡에서는 골개물이 소란을 피우며 은구슬 금구슬로 부서진다.

손녀를 앞세우고 지팡이걸음으로 유연스레 령길을 뚫아오르는 오보금할머니는 눈정을 모아 자주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억속에 묻어둔 60 년전의 낯익은 지형을 찾아보려고... 허나 모든것이 낯설어보이기만 하였다.

긴 산굽이를 돌아가자 마침내 길이 흘러넘어간 짙룩한 령마루가 바라보이었다. 그러자 망각속에서 되살아나는 추억과 눈앞의 현실 그리고 가슴속에 품은 크나큰 소원이 한시에 이름못할 격정으로 북받쳐올라 무릎 발걸음을 멈추고말았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몇걸음 앞서가던 은희가 벗어버린 지팡이 소리에 돌아보더니 급히 다가와서 할머니를 부축하였다.

《원 걱정두, 아무 일도 아니다.》

《힘들어 그러시면서... 난 몰라요.》 사랑받이 은희는 기강한 할머니의 성미에 어쩔수 없다는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꾸넌하였다. 《음에서 하루 더 쉬고 떠나자는데도 고집하시더니...》

《걱정말아. 이제 다 왔다. 저 고개만 넘어서면 합지골이란다.》

《할머니가 늘 옛말처럼 외우시던 합지골... 야정말!》

울가망이던 은희는 환희에 차서 소리치더니 먼저 령마루를 향하여 달린다.

(저 애도 성수났구나. 하지만 철없는게 이 할미의 마음을 다 알게 뭐람.)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달려가는 귀여운 손녀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오보금할머니는 짙고온 지팡이를 낭떠러지 길아래에 홀 던져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이 길을 걷게 된 사연깊은 일들이 길우에 밟혀와서 훨훨 나래돈친 발걸음을 옮기었다.

집에서 패지를 많이 길러 인민군대를 지원하는 것을 여생의 락으로 삼고있던 오보금할머니는 그 날도 우편통신원을 패지우리앞에서 맞이했다. 통신원에게서 신문을 받아가지고 읽어보는것은 할머니의 다음가는 중요한 일과였다. 집안으로 들

어와서 한달전에 아들이 사다준 로안에 꼭 맞는 돋보기를 걸고 신문을 펼쳐보다가 2면에 사진과 함께 실린 새로운 혁명적구호문헌이 발굴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자 거기에 먼저 눈길을 겨누었다. 백두산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대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발굴되고있는 구호문헌소식에 접할적마다 50 여년전에 자기가 본 구호문헌에 대한 생각으로하여 가슴을 두근거리며 관심하게 되는 오보금할머니였다. 그런데 바로 오늘 신문에는 그가 살았던 랑림군에서도 구호문헌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이 실려있지 않는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진출. 모두다 장군님 두리에 뭉쳐 조국광복 이룩하자.》

사진에 찍힌 구호문헌을 읽은 오보금할머니는 가슴에 쿵 울리는 큰 충격에 신문을 잡은 손이 화들화들 떨리었다.

(이제 집으로 찾아오군하던 그 《밤손님》이 쓴 글발이 아닌가!)

너무도 오래전 일이어서 이제는 살아생전에 다 지워졌으리라고 생각되어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글발... 오보금할머니는 밤에만 찾아온다고 하여 《밤손님》으로 불렀던 유격대공작원을 다시만나기라도 한듯 나어진 그때처럼 훌훌 흐느끼며 울기까지 하였다.

온 가족의 기쁨도 한량없이 컸다. 랑림땅의 합지골이란데서 못살던 이야기를 옛말처럼 하면서 오늘의 고마운 제도를 위해 일을 잘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기만 하던 할머니가 혁명군을 돕고 그들이 쓴 구호문헌까지 본 사람이라니... 삽시에 소문이 퍼져 동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왔다.

오보금할머니는 어린 때에 듣고본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번씩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럴수록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듯 추억속에 간직된 랑림땅이 가슴사무치게 그리워지면서 그 구호문헌앞에 다시 선다면 시제 당장 눈을 감는다 해도 한이 없을것 같았다. 그리하여 하루 아침 오보금할머니는 가족들앞에서 분연히 말하였다.

《내 아무래도 합지골에 다녀와야겠다.》

가족들은 70 고개에 올라선 할머니를 천오백리도넘는 먼길을 어떻게 떠나보낼가실어 아무도 말이없었다. 그러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아들만은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보는듯 신중한 빛으로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구호문헌을 찾아낸 거기 사람들도 그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주 기뻐할것 입니다. 말동무삼아 저 은혜를 데리고 떠나십시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열두살나이로 자란 은혜는 기쁨에 겨워 쿵당쿵당 뛰었다.

그렇게 기쁨속에 떠난 려행길은 순탄치 않았다. 긴 시간 려차를 타자 오보금할머니는 차멀미를 시작하였다. 처음엔 그저 어지러워하다가 강계에서 뻘뻘이차를 갈아타고 하늘에 치당은 아득령을 넘어 랑림군소재지에 이르렀을 때엔 려관방에 아주 드러누워버렸다 급하면 부지깽이도 편다고 응석받이로만 여겼던 은혜가 뛰여다니면서 무슨 복새를 놓았는지 병원에서 달려오고 군당에서도 사람이 나왔었다. 그런 보살핌속에서 하루밤을 폭쉬고난 오보금할머니는 이튿날 일찌감치 또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군에서는 하루 더 쉬고가도록 권고하다가 듣지 않자 목적지까지 의사를 붙여 승용차로 모시려고 하였다.

오보금할머니는 차를 타면 또 멀미를 한다고 거절하여버리었다. 땅길을 쪼면서 걸으면 천리도 갈수 있다고 우기며 지팽이한개만을 주어주고 길을 떠났다, 산발에 불타는 단풍과 맑은 물, 신선한 대기는 원기를 북돋아주었다. 지팽이걸음으로 유연스레 40 리 와서 하루밤을 쉬고 다시 떠나와 함지골로 넘어가는 려길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제 저 짙룩한 려마루만 넘어서면 함지골이다. 자기가 살던 고장에 세발걸음을하며 들어서서야 무슨 산 목숨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오보금할머니는 지팽이를 내어던져버리고 씨엉씨엉 걸음을 옮기는것이다.

《할머니, 다 왔어요.》

먼저 달려올라간 은혜는 손저어부르다가 참지 못하여 도로 뛰여와서 팔을 잡고 부촉한다.

손녀의 손길에 이끌려 허둥지둥 평마루에 올라섰다. 그 순간 오보금할머니는 뉘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눈길을 허둥거리기만 하였다.

그 이름과 같이 우묵하게 분지를 이룬 함지골에는 림산사업소가 들어앉았다. 사무실들과 주련이 늘어선 집들, 학교와 유치원, 상점과 식당...

《어쩌면!》

오보금할머니는 경이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길옆에 풍덩 물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전변된 현실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일종의 상실감도 엿갈리고있었다. 그리운 추억으로 떠올리였던, 예닐곱의 귀틀집이 띠엮띠엮 널려있던 화전마을이 저런 거리로 변해버렸다니...

《할머니, 여기가 함지골이 맞긴 맞아요?》

은희도 할머니가 들려준 함지골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기만에 그려본 표상을 가지고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맞는다. 맞구말구... 날에 날마다 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함지골이라구 그대로 있겠느냐? 정말 나누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오보금할머니는 흥분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할머니가 사신 집은 어느바루에 있었나요?》

은희는 한가지라도 빨리 알고싶은 모양이다

오보금할머니는 지형을 더듬듯 한참 림산마을을 눈여겨보다가 말하였다.

《저-기 학교가 서있는곳이었다.》

산밑에 가로 덩그렁히 서있는 학교, 손바닥처럼 뽀뽀 내려다보이는 운동장에서는 소년단원들의 분렬행진이 진행되고있었다. 소고대를 앞세우고 발맞춰나가는 행진대렬이 어찌도 끼끗하고 장해보이는지 오보금할머니는 눈가에 이슬을 고여 울리며 혼자말처럼 말하였다.

《너의 증조할아버지가 살아서 저런 모습을 보신다면 그분은 소학교에서 교편도 잡고 야학방을 열고 훈장노릇도 하셨단다.》

《전엔 그저 화전민이었다고 하시구서...》

은희의 얼굴에는 다시 의문이 실렸다.

지난날의 이야기를 그제 재미나는 옛말처럼 들어온줄로만 알았던 손녀의 얼굴에서 진심으로 알고싶어하는 기대의 빛을 읽자 오보금할머니는 저절로 신중해졌다. 하지만 은혜로운 품속에서 행복 한가지만을 알며 자라난 손녀에게 피는물나던 그전날의 생활을 무슨 말로 바로 알려줄수 있을까? 오보금할머니는 생각에 잠겨 주위를 둘러보다가 앉아있는 고개마루에 눈길을 멈추었다.

모든것이 변해버린속에서도 예이제없이 한모양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고개마루... 여덟살 어린 나이로 이 고개를 넘었던 그날의 자기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졌다.

...보금은 일본놈들이 금지시킨 조선글을 배워줬다는 죄로 아버지가 소학교에서 쫓겨났다는것과 그 일로 어머니도 병이 심해져 세상을 떠버렸다는것을 알았을뿐, 어찌하여 고향을 등지고 이런 심심산골로 찾아왔는지 알길이 없었다. 들러막힌산발이며 소란스러운 골개물소리며 뻘뻘이 들어선 나무숲이며 그제 모른것이 무섭기만하였다. 그리고 다리는 또 얼마나 아프던지...

그런데 바로 이 려마루에 올랐을 때 아버지는 험험한 목소리로 이제는 다 왔다고 말하였다. 보금은 그것이 죽음의 선고처럼 들리어 왕 울음을 터치였다.

《아버지, 가자요. 돌아가자요. 이런데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는 눈물에 젖어 애처롭게 하소연하는 딸의 모습을 측은히 지켜보다가 땅이 꺼지게 큰숨을 내긋더니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난 너를 생각해서 이런곳으로 찾아왔다. 너만 없었다면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게다.》

그 말이 얼마나 심장을 찌르던지 보금은 울음을 툭 그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응석을 모르고 아버지를 돕는 일에선 남달리 애바른 계집애로

된 보금이었다.

아버지는 인심 좋은 이고장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부엌과 구들이 통간으로 이어진 귀틀집을 지어놓고 뜨락에 심으려고 나무 한그루를 떠왔다. 큰가시가 삐죽삐죽 내돋친 나무가 험상스럽게만 보이어서 보금은 무슨 나문가고 물었다.

《이 나무가 바로 네가 <돌배나무가지에 걸린 질신은...>하고 노래부르는 돌배나무란다. 우리 잘키워서 돌배가 주렁주렁 달리게 하자.》

보금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동생한테 따주려고 돌배나무에 올랐다가 가지에 질신을 남겨놓고 떨어져 죽은 오빠를 그리워하며 불렀다는 슬픈 내용의 노래를 조용조용 부르며 아버지의 나무심는 일을 돕다가 그만 손가락을 가시에 찔리웠다.

아버지는 피가 빨갛게 배어나오는 보금의 손을 호호불면서 손가락을 싸매주었다. 보금은 눈물이 나도록 저리고 아팠지만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애써 참으면서 물었다.

《아버지, 언제면 돌배를 따게 되나요?》

《보금이가 열뒤살 될 때엔 따게 되지.》

《그렇게 오-래요?》

《바르게 세월이란다. 어디 내 말이 틀리나 여기 나무그루에 매해 돌을 한개씩 얹어보렴.》

보금은 그 말을 명심하고 해마다 생일날이 오면 개울가에서 차돌을 주어다 한개씩 얹어놓곤 하였다. ...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은희는 눈물 가느스름히 꼬프리고 새물새물 웃었다.

《정말 재미나게 사셨군요. 돌배나무도 키우구...》

《원참.》

오보금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혼자 웃고나서 말하였다.

《그래 일본놈들을 보지 않고 지냈으니 재미나게 살았다고 할수 있지, 여긴 길은 산골이어서 순사놈들도 봄가를 청결때에 십오리밖에 있는 구장한테까지 와서 닭 잡아먹고 돌아가곤하였단다. 그렇게 세상을 등진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부대기를 일구고 사냥을 하면서 산사람처럼 되어버렸단다. 머리와 수염도 텅수룩하게 기르구... 그저 사람들에게 글을 쓸일이 생기면 글이나 써주구... 여기 40 리안밖엔 글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단다. 학교도 서당도 없구... 일본놈들이 그렇게 까막눈으로 만들어놓았지. 그래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오면 너의 증조할아버님은 읽어주고 또 회답도 써주곤했지. 그래서 집에는 먹과 붓만은 갖춰놓고있었던단다.》

《증조할아버님은 야학도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아까 들은 말을 잊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래 야학을 열었지. 하지만 그건 후에 우리

집에 웬 어른이 찾아온 다음부터였다.》

오보금할머니는 《밤손님》을 처음 만나던 때가 떠올라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마치 가늘게 잡힌 주름살마다가 그윽한 인정미로 빛나는듯이.

...그날은 바로 돌배나무에 조약돌을 가져다놓아야 할 생일날이었다. 그러나 이웃집과 품앗이로하는 발방아를 찼느라고 그전날부터 나가있어서 돌을 가져다놓지 못하였다.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보니 아버지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상에는 보금이 제일 좋아하는 풋콩을 박은 귀밀떡이 올라있었다.

《어마나, 웬 떡을...》

《오늘이 네 귀빠진 날이 아니냐.》

《난 그것도 모르고있었네.》

저녁을 맛있게 먹고나서 생각해보니 돌배나무에 새 돌을 가져다놓지 못했다. 벌써 박은 킁킁해졌다. 그래도 마음속에 새긴 일을 안하고 잘수 없어 강가로 나갔다. 어둠속에서 돌을 좇자니 마음에 드는것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 어스병어스병 손더듬하고있는데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났다.

《애야, 거기서 뭘하느냐?》

소스라쳐놀라 돌아다보니 어둠속에 키가 꺾두룩한 사람이 서있었다. 온몸이 화들화들 떨리었다.

《놀라지 말아. 나는 삼매타는 사람(삼캐러 다니는 사람)이다. 마을을 찾아내려온다는게 길을 헛들어 이렇게 늦었구나. 그런데 넌 어두운데서 뭘 찾느냐?》

친절한 목소리에 보금은 마음을 놓고 대답했다.

《차돌을 주어요.》

《차돌을? 그건 뭘하려고?》

보금은 돌을 주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거참 중한데 쓰일 돌이구나. 어디 함께 주어보자.》

삼매군은 잠간사이에 고운 조약돌을 찾아 내여 주었다.

《정말 고마와요.》

보금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였다.

《하하하... 무슨 큰 일을 해주었다구 고맙기까지야. 그럼 나도 한가지 청을 드리자꾸나.》

《어서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서 저녁밥을 해먹을수 없겠느냐?》

《그거야 어렵겠나요? 어서 가시자요.》

보금은 이렇게 말하고 먼저 집으로 달려들어 아버지에게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는 문을 열고나와 삼매군을 맞아들이었다.

방등불빛에 보니 삼매군은 시원스레 트인 이마며 억실억실한 눈이며 아주 의젓해보이였다.

《밤중에 안됐습니다.》

삼매군은 미안해하며 메고온 중대에서 땀사람 분갈되는 좁쌀주머니를 꺼내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 지어달라고 하였다. 보금은 거기에 집에 있는 보리쌀을 더 보태어 안치고 불을 지피면서 구들에서 아버지와 삼매군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었다.

《…전에 교편 잡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여기산골에서도 야학방같은것을 열수 있지 않습니까?》

《글을 가르쳐선 뭘하겠소. 화근거리밖에 되지 않겠는데…》

무뚝뚝하게 거절해버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아는것이 힘이라고 알아야 앞을 내다볼게 아닙니까?》

《…》

《여기 젊은이들을 바로 눈뜨워주면 나라 찾는 싸움에도 나설수 있을겁니다. 삼매군 다니면서 듣자니까 저 백두산밑에서는…》

삼매군은 수군수군 목소리를 낮추었다. 보금은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바싹 귀를 도사리다가 그만 밥짓는 소리가 나서 급하게 아궁불을 꺼냈다.

이윽고 아버지는 국가마를 통채로 지게에 지고 보금은 밥함지를 이고서 삼매군을 따라나섰다.

지척을 분간하기 힘들도록 어두운 밤이었다. 그러나 길잡이를 하는 삼매군은 어찌도 밤눈이 밝고 산길에 익숙한지 아버지도 보금이라도 별로 힘든줄을 모르고 걸었다. 한시간쯤 걸으니 숲속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쪽의 인기척을 듣고 달려와서 밥함지와 국가마를 받아드는데 그들의 어깨에는 총이 메워져 있었다.

(이분들은 삼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혁명군이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시키듯 우등불가에 다가가보니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젊고 꼴같았다. 보금은 어찌도 가슴이 드근거리는지 밥을 담는 손까지 제대로 놀려지지 않았다. 가가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섯사람에게 밥과 국을 골고루 퍼드리었다.

혁명군들은 몹시 시장했던 모양으로 반아든 밥과 국을 푹푹 뜨면서 음식이 별맛이라고 저마다 치하하였다.

(이럴줄 알았더면 콩보리밥이나마 더 지워오고 이윽집 방아를 찧어주고서 반아온 더덕이도 무쳐오는걸. 설날에 쓰자고 내놓았으니… 난 멍꽁이야.)

보금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러자 이러한 기미를 차리기라도 한듯 삼매군행세를 하고 집에 왔던 혁명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음식이 왜 별미인지 바로 알아야 하오. 그건 얼굴 예쁘고 맘씨 착한 저 보금이가 해준 음식이어서 더 맛있는거라오.》

《어마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구서두…》

보금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원망스레 눈을 빨았다.

《하하… 그러니 우리 보금이가 더 예쁘구나.》

《아이참, 난 몰라요.》

보금은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그자리에 푹 썩 주저앉고말았다. 그러자 혁명군들은 모두 즐겁게 웃어댔다.…

그렇게 허물없는 혁명군들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좋은 꿈자리를 더듬듯 허전해지기만 하였다. 늘 산길을 다니느라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 무사히 가시기나 할까? …

아버지도 등디목에 앓아 뺨뺨뺨 담배만 태우시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내 날이 밝았다.

보금이가 아침을 짓자고 일어서는데 아버지는 물을 떠다달라고 하였다. 마시자고 청하는 물인 줄로만 알고 떠드렸더니 아버지는 껌속속에서 먼도칼을 찾아내어 텅수룩하게 길렀던 수염을 밀기 시작하였다.

보금이가 아침상을 차려들고 구들로 올라왔을 때엔 아버지는 판사람처럼 젊어져서 껌속속에서 꽂쳐놓았던 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있었다. 그것을 보고 보금은 아버지가 삼매군행색을 하고 찾아왔던 그 《밤손님》의 권고대로 야학을 열 생각을 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고나선 아버지의 그 젊음이 넘친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겨운지 보금은 끝내 눈가에 웃고름을 울려가고말았다…

야학방이 열린다는 소문은 삼시에 퍼져 보금이 나이또래는 물론 이십리안팎 동대에서 장가가서 아이아버지가 된 젊은이들도 찾아와 통간방이 비좁도록 꽉 차있게 되었다. 밤마다 해불을 켜들고 모여온 야학생들의 글소리는 세상을 등진 막바지산골에도 새 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얼마나 보람스러운 나날이었던지 야학에서 남달리 글눈이 빨리 튼 보금의 마음은 늘 명절과도 같았다. 그것은 삼매군행색을 하고 집에 왔던 혁명군이 다시 찾아옴으로 해서 더해지는 기쁨때문이기도 하였다. 밤중에 왔다가 날밝기전에 가버리는 그 《밤손님》은 아버지에게 야학에서 배워줄 책이랑 혁명적출판물들을 넘겨주었는데 그때마다 보금의 공책을 보아주곤하였다. 생김새처럼 글을 곱게 잘 썼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탄탄하게 맨 새 공책을 주면서 어서 더 많이 배워 훌륭한 녀성혁명가로 되여야 한다고 고무해주기도 하였다.

한번은 돌아갈 때 밤눈에도 하얗게 떠보이는, 프락가의 돌배나무가지에 핀 꽃을 보더니 인사하러 나온 보금에게 물었다.

《이젠 차돌멩이가 몇개지?》

《다섯개를 놓았어요.》

《다섯개라... 참 빠르게 세월이구나.》

그때 아버지는 곁에서 흐뭇이 웃기만하였다. 그러더니 《밤손님》을 바래우고나서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밤손님》이 왔다가면 그가 가지고 온 책과 혁명적출판물들을 꾸러가지고 어디론지 다녀오곤하는 아버지였다. 《밤손님》이 아버지와 쭈근쭈근한 이야기로 미루어보면 그때 련화산밀에랑 황포에랑 다른곳에도 야학방이 여러개 있었는데 그 야학방들이 잘되어야 조직도 내오고 또 혁명군을 직접적으로 도울수 있는 무장대도 꾸릴수 있게 된다는것 이었다. 혁명군의 지도밀에 야학방들은 그런 큰 기틀을 마련하는 온상으로 준비되어가고있었는데 바로 그 일을 아버지가 말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일제놈들이 증조할아버지를 잡아간것은 그때문이였겠군요?》

깊은 감동에 젖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은희가 기대어린 얼굴로 불쑥 물어보는 말이였다.

오보금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행복속에 살아온 천진한 손녀는 증조할아버지가 혁명사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 류다른 생기를 띠고 웃고있지만 마음과 피부로 체감한 오보금할머니는 지금도 아버지가 잡혀가던 그때를 눈앞에 떠올리면 뼈가 저려나고 살이 떨린다.

...그것은 너무도 급작스레 닥쳐온 생버락이여서 그저 앉은자리에서 맞을수밖에 없었다.

한 야학에서 발각된 혁명적출판물이 발미가 되어 경관놈들이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다는 급보를 받았을 때는 벌써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있었다. 보금은 피신하기를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밤손님》이 찾아왔던 흔적을 없애버리는것이 더 급한듯 옷궤속에서 책이랑 꺼내여 아궁속에 집어넣고 불을달았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있는 보금의 품에 종이쪽지를

찔러주면서 《밤손님》이 오면 꼭 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럴 때 밖에서 구두발소리가 울리더니 경관 세놈이 뛰어들었다. 놈들을 옷궤며 선반이며 앉자리며 온통 뒤집어놓으면서 무엇인가 찾았다. 그러다가 한놈이 아궁속에서 불타버린 종이 재가루를 헤집어보더니 《네놈이 벌써 알고서...》하고 아버지의 먹살을 잡고 악에 받쳐 날치였다. 그러자 다른 두놈까지 합세하여 차고치고 하다가 피자박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손에 쇠고랑을 채우고 밖으로 내몰았다.

몸서리치는 못매질에 넋을 잃었던 보금은 아버지를 못데려간다고 달려들다가 놈들의 발길에 채워 나동그라졌다. 다시 일어나 따라나가려는데 아버지의 결연한 목소리가 울렸다.

《보금아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라.》

경관놈들은 빨리 걷거나 하라고 다몰아대면서 호통쳤다.

《너같은놈을 돌려보낼줄 알아?감옥귀신으로 튀지게 할테다.》

아버지는 그때위는 개짖는 소리로 여기듯 큰 목소리로 다시 말하였다.

《아버지가 온다면 꼭 온다. 명심해라.》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간 말이였다.

그 즉시엔 심장에 박혀든 화살이 너무도 커서 보금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와서 외롭게 될 처지를 동정하여 함께 눈물지으며 저마다 자기 곁으로 가자고 할때에야 《밤손님》을 꼭 기다려야 한다는 당부라는것을 깨닫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그리하여 보금은 아버지가 준 종이쪽지를 손에 꼭 움켜잡고 《밤손님》을 기다렸다. 경관놈들이 온통 뒤집어놓은 빈집... 그러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잃은 원통한 마음으로 하여 무섭다는 생각같은것은 들지도 않았다. 《밤손님》만 온다면...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갔다. 《밤손님》은 언제면 오겠는지... 보금은 기진해서 눈을 번히 뜨고도 꿈속에 있는듯이 모든게 아리송해지기만 하였다. 오늘밤도 안오시는가봐...닷새가 되던 날 밤에도 보금은 아래목에 꼬부리고 누워 이런 애라는 기다림속에 굳잠이 들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문득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기척을 느끼며 보금은 어지러운 꿈속에서 깨어났다.

《애 보금아, 보금아!》

보금은 화닥닥 일어나 앉았다.

《나다, 나야!》

《밤손님》의 목소리를 가려듣는 순간 보금은 그의 무릎우에 쓰러지면서 왈칵 울음을 터치였다.

《왜 인제야 왔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밤손님》의 큰 손이 보금의 입을 짹 틀어막았다.

《이러면 안된다. 놈들이 이 집을 지키고있다.》

칼로 베는듯한 엄한 목소리에 보금은 입술만 썰룩거리며 아버지가 말기고간 종이쪽지를 넘겨주었다. 《밤손님》은 그것을 받아 안주머니에 간수하면서 귀속말로 말하였다.

《우린 빨리 이 집에서 떠나야 한다. 꼭 가지고가야 할 귀한 물건은 뭐냐?》

째지게 가난한 부녀의 살림에 무슨 귀한 물건이 있겠는가? 그런대로 보금은 아버지의 유물인 붓과 꼬투리먹을 찾아들었고 허드레옷가지들과 공책을 보자기에 꿰저쌌다. 그리고는 《밤손님》을 따라나섰다. 것처럼 꿈을 안고 기다렸던 뜨락의 돌배나무에 달린 첫 열매도 따보지 못하고 인정깊은 소박한 이웃사람들에게 하직인사도 드리지 못한채...

숲속에서 보금을 맞이해준 사람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술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의 한 중대장이었다.

그는 정치공작원인 《밤손님》이 내어준 보금의 아버지의 종이쪽지를 펼쳐보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까운 사람을 잃었소. 혁명조직을 꾸릴수 있는 골간을 이렇게 많이 키워놓고 잡혀가다니 …》

그 말이 어떻게든 애석하게 가슴에 사무쳐드는지 보금은 슬피 울었다. 중대장도 피로운듯 보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려었다.

《보금의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급보를 받으신 장군님께서 빨리 나가 구원해오라고 우리 중대를 파견하셨는데… 아버지를 도경찰서로 압송한 뒤여서 주재소만 치고 돌아섰으나… 장군님께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드려야 할지…》

이 말을 들은 보금은 입술을 꼭 옥물고 눈물을 거두었다. 장군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그토록 소중히 여겨주시는데 딸인 내가 약한 마음을 보여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중대장도 그 마음을 읽은듯 한결 우선우선해서 보금에게 물었다.

《보금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무망중에 받게 된 질문이어서 보금은 놀란 눈으로 중대장의 거뭇거뭇한 수염턱을 쳐다보다가 분명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혁명군아저씨들을 따라가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요.》

《우리 혁명군에선 녀성대원들이 잘 싸우고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너무 어리구나.》

《어려도 나는 다 할수 있어요. 밥도 짓구 빨래도 하구…》

《하하하…》

둘러앉아있던 혁명군들이 웃음을 터치었다.

《정말이에요. 알아보세요.》

보금은 구원을 청하듯 곁에 앉아있는 《밤손님》을 돌아다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주던 《밤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피로운 빛을 감추려듯 얼굴을 돌려대고있지 않는가. 보금은 금시 울상이 되어 말하였다.

《난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무슨 일이든 다 해보았어요. 이제 총쏘는것만 배우면…》

중대장은 말없이 터실터실하게 거칠어진 보금의 손을 잡고 쓸어만져보더니 목에 잡겨 약간 갈려진 목소리로 말을 뱉었다.

《보금아, 장군님께서 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단다.》

보금은 뜻밖의 말에 중대장의 눈길에 매여달리듯 간절한 빛으로 쳐다보았다.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장군님께서 너를 꼭 찾아 고다지골에 보내라고 가르치셨단다. 거기엔 우리 혁명군에 입대하여 원쑤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대원의 유가족이 살아있겠는데…》

말씀을 하셨을까?

《장군님께서 너를 꼭 찾아 고다지골에 보내라고 가르치셨단다. 거기엔 우리 혁명군에 입대하여 원쑤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대원의 유가족이 살아있겠는데… 보금이가 거기 가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라고… 조국광복도 멀지 않다고 하시면서말이다.》

(어쩌면 장군님께서 나한테까지!)

보금은 젖어오르는 눈시울에 옷고름을 울려갔다가 중대장을 다시 쳐다보며 불쑥 물었다.

《조국광복이 언제면 되나요?》

《허허… 보금이가 마음이 급하구만. 늦잡아도 10년안밖에 되지.》

이때 《밤손님》이 신중한 얼굴로 말하였다.

《중대장동무, 보금이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도록 여기 나무에다가 글을 남깁시다.》

《웁소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구성으로 우리러 보며 조국광복의 그날을 기다리는것은 우리 조선사람들의 절절한 념원이요. 여긴 령길옆이니 사람들이 찾아볼수 있을것이요. 글은 나보다 글씨가 나은 동무가 쓰시오.》

《예 씹시다.》 하고 《밤손님》은 보금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보금아, 아버지가 쓰시던 먹을 갈아라.》

보금은 아버지의 귀중한 유물로 품에 품고온 붓과 꼬투리먹을 꺼내놓았다. 벼루가 없어 어쩌나할 때 한 대원이 배낭을 뒤져 양재기를 꺼내주었다. 보금은 거기에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서 먹을 갈기 시작하였다. 글쓸 일이 생기면 아버지곁에 앉아 정성스레 먹을 갈아드린 때처럼.

한편에서는 다른 대원들이 미출하게 자라온 가문비 한대를 골라잡고 나무껍질을 벗기었다. 밀림속은 큰 경사를 맞은듯이 즐겁게 설레었다.

준비가 다 되자 《밤손님》은 붓에 먹을 듬뿍 찍어들고 속살을 하얗게 드러낸 가문비나무앞에 다가섰다. 잠시 글자수와 글쓸 자리를 료량해보듯 지그시 겨냥해보다가 붓대에 힘을 주면서 쓰기 시작하였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진출. 동포여 장군님두리에 뭉쳐 조국광복 이룩하자…

보금은 자기가 갈아드린 먹으로 씌여진 글발을 한자한자 마음속으로 읽어보았다.

아직은 그 글발의 깊은 뜻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다. 그러나 낯설은 산골이 무서우니 돌아가자고 아버지의 속을 태우며 함지골에 와서 오늘까지 작은 가슴에 받아안은, 기쁨보다도 슬픈적이 더 많았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앞

으로 살아가야 할 앞길이 그 굴밭속에 명시되어 있다는것만은 뚜렷이 느낄수 있었다. 그리하여 보금은 마음속 깊은곳에 불멸의 녀트로 새겨둘듯이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굴밭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랬던 그 구호문헌이 50 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남아있다니 진정 이게 꿈이 아닌지...

오보금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다. 은희는 그런듯이 앉아있었다. 기대와 초조, 기쁨과 슬픔으로 엇갈리는 걱정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듯이.

오보금할머니는 천진한 기색을 가무리고 어른처럼 되어버린 은희의 얼굴을 일별하고 어린 가슴을 너무 뒤흔들어놓은듯싶어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리고 그뒤의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처음 앓을 때엔 없었던 나무그늘이 발 앞에 드리워 그물거리고있었다.

《저기 사람들이 와요.》

은희가 꿈속에서 깨어난듯이 열빠진 목소리로 말하였다.

림산마을로 굽이져내려간 길을 바라보니 대어섯명의 사람들이 급히 걸어오고있었다.

(저 사람들에게 시간이나 물어보고 우리도 내려가야지.)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평남도에서 오시는 할머니가 아니십니까?》

《예, 뉘신지요?》

오보금할머니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일행속에서 나이지숙한 사람이 정중히 인사하면서 다가왔다.

《나는 여기 림산사업소 초급당비서입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보금할머니는 덩돌해서 물었다.

초급당비서는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피우며 사연을 설명하였다.

《군당에서 전화로 할머니이 도착하셨는가 물어와서 안했다고 했더니 어제밤 숙박했던곳에서 아침 일찌감치 떠났다는데 웬일인가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라구야... 이렇게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는데 ...》

오보금할머니의 대답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젊은 녀의사가 위생가방에서 청진기와 혈압계를 꺼내들었다.

《예구- 싫소다. 제 살던고장에 와서 죽은들메라오!》

오보금할머니가 기급하여 횡하니 일어 서는바람에 즐거운 웃음이 떠올랐다.

초급당비서는 은희의 멜가방을 벗겨들고 걸으

며 말하였다.

《할머니는 구호나무를 보시러 오신다지?》

《예, 우리 할머니는 혁명군이 구호문헌을 쓰실때 그자리에 계셨어요.》

《아주 잘되었구나. 구호문헌터를 원상대로 해놓자구 하는데 할머니이 보아주시게 되었으니...》

오보금할머니는 귀결에 주고받는 말소리를 듣고 중얼거리었다.

《조용히 보구서 돌아가자구 했는데 이번 걸음이 이렇게 크게 번지리라구야!》

×

구봉산의 구호문헌은 림산마을에서 20 리 떨어진령마루의 갈림길, 북으로는 칠평으로 남으로는 장진으로 헤어지는곳에서 한마장가량 떨어진 수림속에 자리잡고있었다.

아침에 떠난 오보금할머니는 사업소초급당비서와 은희의 부축을 받으며 령마루갈림길까지 올라왔다. 련련히 뻗어나간 산밭들과 높이 기여오를 념을 못하고 산골짜기들에 굼시른 안개를 바라보자 가슴이 넓어진듯 오보금할머니는 한결 혈색이 좋아져 빨리 구호문헌터로 가자고 재촉하였다.

초급당비서가 앞에 서서 수림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였다. 초벌로 닦아놓은 길은 들어갈수록 우중충한 수림에 가리워졌다. 멀리에서 바라볼 때엔 그리도 화려한 풍치를 돋구었던 나무들은 높은 정수리에서부터 황든 잎사귀를 떼어버리기 아쉬운듯 소리없이 한잎두잎 떨어지고있었다.

락엽으로 덧쌓여진 주변에서는 싱그러운 냄새가 풍겨오는데 거기에는 덩굴을 지어보지 못하고 키높은 나무들을 따라 뻗어올라간 다래와 머루넝쿨에서 나는 코속이 아릿해지도록 짙은 향기도 엿섞여있었다.

오보금할머니는 밀림속의 그 특유한 향취에 젊음을 되찾은듯 씨렁씨렁 걸어갔다. 백발의 머리우에 내려앉았던 한잎의 락엽도 그 원기스러운 걸음걸이에 놀라 땅우에 떨어지고만다.

드디어 나지막한 목책으로 표시해놓은 구호문헌터에 이르렀다.

오보금할머니는 옷깃을 여미고 목책앞에 발을 멈추었다. 무성한 푸른 잎새로 하늘을 가리우며 소소리높이 솟은 가문비나무, 암갈색의 나무껍질에 에워싸인 구호나무를 알아보자 높뛰는 가슴을 누르듯 조용히 숨결을 가누며 원상대로 현출해놓은 굴밭을 읽어본다. 초점이 깊어진 그 눈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는것인가!

다음 순간, 오보금할머니는 불멸의 굴밭에 이끌리어 자기를 잊은듯 목책을 넘어 구호나무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날의 흔적을 몸과 피부로 감각해보려는듯 손을 들어 어루쓰다듬었다. 세월의 년륜에 터실터실하게 살아오른 나무껍질속에 한치나 우무러져들여간 속나무에 그대로 고스란

히 살아있는 굴발을 살뜰히 만져보는 손길이 가늘게 떨리더니 오보금할머니는 허물어져내리듯 그자리에 뚝썩물앉아버리었다.

《할머니!》

할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있던 은희가 소스라치며 목책안으로 뛰어들어가 팔을 잡고 흔들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내 너무… 너무 기뻐서 그런다.》

오보금할머니는 오열로 그냥 어깨를 떨며 목책인 소리로 말하였다.

《평생 마음속에 새겨온 굴발을 다시 찾아보게 되니… 아, 어찌면 이렇게 되살려놓았담.》

초급당비서도 감격의 파동이 그대로 옮겨와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고나서 말하였다.

《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항일혁명시기의 구호문헌과 유적유물들을 다 찾아서 원상대로 보존하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고 해놓느라고 했습시다만… 미진한데가 없는지 잘 살펴주십시오.》

오보금할머니는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주위를 찬찬히 눈여겨보다가

《그럼 그 돌도 그대로 놓아둬야겠구먼.》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더니 손으로 구호나무밑둥을 헤치기 시작하였다.

덧쌓인 락엽으로 부근부근하게 부식된 흙속에서 조약돌이 나왔다. 하나, 둘… 셋… 다섯…

전설의 보물처럼 고운 조약돌이 연방 나오는것이 신기하고 재미나서 은희도 다가앉아 헤치려고 하자 오보금할머니는 말했다.

《그만둬라. 다섯개를 다 찾아냈다.》

화강암질의 윤곽을 갖춘 조약돌 한개를 손에 집어들면서 초급당비서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건 어찌된 돌입니까?》

《사연이 있는 돌이라오.》

오보금할머니는 구호문헌을 쓰다듬어볼 때와는 달리 어디라없이 우수가 비낀 서글픈 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고다지골의 늙은부부. 그 다심한 인정이 고마와 보금은 그들의 손발이 되어 부지런히 나뒹어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사무친 그리움이 늘 떠나지 않았다. 사지판에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그렇듯 큰 희망을 안겨주던 혁명군을 다시 만날수는 없을가.

산나물 뜯으러 산에 갈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가는데 발이 간다고 보금의 발길은 저절로 구봉산으로 향하였다. 거기에 가면 혹시… 하여 30 리나

잘되는 산길을 빨리빨리 걸음쳐 구봉산의 구호나무앞에 이르러 굴발만 쳐다보면 《보금이가 왔구나.》 하고 반겨주는듯싶어 눈물이 솟았다. 그렇게 마음속에 사무쳐드는 구호나무에서 보금은 산나물도 그 주변에서 뜯곤하였다. 그러면 또 함지

꿀의 집뜨락에 심은 돌배나무그루에 엮을 조약들을 주어주던 그 밤처럼 《밤손님》이 함께 산나물을 뜯어주는듯… 기쁜 마음으로 바지런히 산나물을 뜯고보면 늘 바구니가 넘쳐나곤하였다. 그래도 떠나오고싶지 않아서 시간을 지체했다가 범이 나온다는 산길에서 화불을 들고 찾아떠난 늙은 부부를 만난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애모쁜 마음으로 구봉산에 다니면 다닐수록 광복된 나라에서 혁명군을 맞이할 그날이 더욱 간절해지곤하였다. 언제면 그런 날이 올가?

그럴 때 가슴뭉클하게 떠오른것은 《보금이가 마음이 급하구만. 늦잡아도 10년안팎에 오지.》하고 말하던 중대장의 목소리와 함께 《빠르게 세월이란다, 내 말이 틀리는가 돌을 한개씩 놓아보렴.》 하고 일러주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10년! 돌배나무그루에 엮은 돌은 《돌배나무가지에 걸린 짚신》의 슬픈 노래처럼 되어버렸지만 혁명군이 한 그 말이야 어찌 드림이 있을가. 모든 사람들이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애오라지 **김일성** 장군님만을 우러러보고있는데… 그리하여 보금은 간절한 소원을 안고 다시 해마다 구호나무앞에 조약돌을 가져다놓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구호나무무리에 어지럽게 자란 잡관목과 풀도 베어버리곤하였다. 그레놓고나면 구호나무를 지켜간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그러나 그렇게 마음의 기둥으로 삼았던 구호나무를 남겨놓고 고다지골을 떠나 났을 일이 생길줄이야… 5년이 지나 로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외롭게 남게 될 할머니와 보금에게 평남도에 있는 친척을 찾아가라고 당부하고 세상을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서 나는 별방의 가시내가 되었던 거라오. 해가 바뀔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굴발을 외우며 돌을 엮곤하였지만… 이고장을 떠나서 구호나무를 지켜오지 못한 생각을 하면…》

오보금할머니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다할길없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구호나무를 쓸어만지었다.

초급당비서는 그 무슨 말로도 위로할수 없다고 여긴듯 생각깊은 눈길을 발앞에 떨구고있고 은희는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조약돌 한개를 꼭 쥐고있었다.

세사람의 숙연한 침묵을 깨뜨린것은 밀림속에 울리기 시작한 북소리였다. 소년단행렬이 들어오고있었다.

《학교에서도 구호문헌견학을 오겠다더니 …》

초급당비서가 혼자말처럼 뇌이며 립산의 미래의주인들을 마중하러 걸어나갔다.

단풍든 밀림속에 꽃대문처럼 열린 길로 소년단행렬이 흘러들었다. 오보금할머니는 어제 령마루에서 내려다본 끼긋한 아이들의 행진대오를 눈앞에서 보게 된것을 기쁘게 여기며 구호나무앞에서 멀찍이 둘러섰다.

소년단행렬은 구호문헌앞에 너렁청하게 닦아놓

은 공지에 이르러 정연하게 대오를 지으며 멈춰 섰다.

그럴 때 마중나갔던 초급당비서와 함께 한 중년의 오보금할머니앞에 다가오면서 머리를 수그리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립산사업소학교의 교장입니다.》

《예, 수고하오다.》

인사성 밝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오보금할머니도 마주 인사하였다. 그런데 녀교장은 실로 뜻밖의 청을 하는것이 아닌가.

《방금 초급당비서동지로부터 할머니이 이 구호문헌과 관계있는분임을 알았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때의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기를...》

《에구- 이 촌로친네가 어떻게... 난 못해요. 못해!》

오보금할머니는 그런 부탁은 어렵도 없다고 손까지 들어 뉘뉘 내저었다. 그 강경한 태도에 녀교장은 무참해서 다시 권고해볼념도 못하고있었다.

이때 케를 보고있던 은희가 다가서더니 할머니의 팔을 잡아 마구 흔들어들었다.

《할머니,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응석받이가 또 나를 망신시키지 못해 안달아났군.)

오보금할머니는 성화스럽게 생각하며 손녀를 내려보는 순간 흠칫 놀랐다. 결코 응석으로만 볼수 없는 손녀의 정색한 얼굴에서 촘촘한 살눈섭이 이슬에 젖어 파르르 떨고있지 않는가.

《할머니 얘길 저만 알고있어서야... 그런 얘긴저 애들도 다 알아야지 않아요?》

(여기 오더니 우리 은희가 썸이 다 들었구나.)

가슴을 쿵 울리는 감동에 싸여 잠시 자기를 잊고있는데 초급당비서가 수군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웁습니다. 이 구호문헌이 어떻게 씌여졌으며 또 어떻게 지켜가야 하리라것을 똑바로 알려줘야지요. 저 애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가 아닙니까.》

오보금할머니는 소년단대렬앞에 나가 섰다.

녀교장이 소개의 말을 하자 아이들은 짜그르르 박수를 쳤다.

오보금할머니는 수만 눈동자가 쳐다보며 보내는 환영에 당황해났다. 무슨 말부터 할것인가. 말머리가 잡히지 않아서 안타까이 저고리앞섰만 여미었다. 그러다가 손에 만져지는것이 있어 뒤돌아서서 품속에서 당목천으로 싼 자그마한 꾸레미를 꺼내어 헤치었다. 그것은 한자루의 붓과 꼬투리먹이었다.

오보금할머니는 다시 돌아서서 자기에게 집중된 수많은 시선앞에 그 붓과 먹을 쳐들어보이며 흥분에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애들아, **김일성**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우리 혁명군이 여기 나무에 써놓은 글발은 바로 이 붓과 먹으로 써놓은거란다.》

《아-》

폭음처럼 터져오른 찬탄의 환성에 밀림은 꽃보라와 같은 락엽을 우수수 흘날리었다.

가보로 소중히 간수해온 붓과 먹, 세월은 흘러도 영원히 남을 불멸의 글발을 쓴 붓과 먹울 손에든채 대를 이어 지켜갈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는 오보금할머니의 눈에서는 행복에 겨운 눈물이 고여올라 불편으로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다운 공원에서

황성하

우리네 탄전엔 푸른 공원이 있어
나는 일마치면 그리로 가군했네
기쁨에 함뿍 취한 꽃들의 노래속에
막장의 자랑을 저마다 안고서
우리는 거기서 서로 만났었네

숫저이 지냈던 그 말들은
설령이는 잎새들이 걸어가교말았는지
애꿎은 풀잎만 자곡자곡 밝다
시작한 그 말은 탄이야기였네
그는 채탄이야기, 나는 운탄이야기

살뜰한 말 그 가슴에 없어주지 못하고
돌아온 풀발, -후회많은 공원길...
하여도 일마치면 그리로 달려갔네

만나면 탄이야기 또 그 이야기뿐
왜서인지 그렇게밖엔 되지 않아도

수렁수렁 설레는 수림가에서
천년을 기다린듯 우리 다시 만날적에
나는 알았네, 긴 밤을 공간없이 채우는
꾸밈없는 그 이야기 탄이야기 가득할 때
내 가슴에도 사랑이 가득차오름을

나는 정다운 공원으로 달려가네
땅속에서 푸르름이 그리워서만 아니라네
내 캐내는 검은 그 탄이
아름다운 꽃들의 노래로 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는곳이어서

영광이 있으라

장선

1

불로 태우려고
총칼로 짓누르려고
미친듯이 날뛰었노라
사나운 눈보라가
너를 얼कु려 달려들었노라

화전의 등불아래 태어난
너를 없애려
너를 지닌자
생매장하며
교수대에 매달며

네가 얼마나 억세고
너를 지닌 생명들이
얼마나 활기에 넘치는가를
원수들은 알고있었기에

너를 없애려
이 땅을
참혹한 피바다속에
잠그기도 했노라
너를 버리라
사방에서 악을 쓰며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노라

허나 너는
소리치며 일떠서게 했노라
폭압에 맞서
머리드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운명개척의 길 열어주었고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타지 않았노라
스러짐이 없었노라
원수를 태우며 무찌르는
우리의 불이 되고
우리의 칼이 되었노라

아 혈전만리
피어린 길마다에서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른것이여
조국광복의 새 아침을 불러온
위대한 주체사상이여

2

너는 가르쳤더라

혁명의 길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를
전쟁의 불길과
건설의 진펄길에서

결심한 혁명의 길을 가다
힘겨웁다 주저앉지 말어라
그러면 그 운명엔
흐름을 멈춘 강물에처럼
온갖 오물이 덮이고
쉬파리떼 날아든다는것을...

50년 전화의 그 가을은
얼마나 준엄했고
56년 겨울의 눈바람은
얼마나 모질었더냐

그러나 우리는 오직
너를 가슴에 새기여
그 온갖 난국을 뚫고
끝까지 혁명의 기치를
지키지 않았더냐

아 너는
력사의 진로를 가르쳤기에
이 세상에 벗도 많았건만
너를 해치려는
원수 또한 많았더라

그만큼
네가 가는 길은 힘겨웠고
함께 길을 걷던자들의
동요와 배신으로
우리는 가슴아픈 고비도
넘어야 했더라

허나 그 언제한번
너를 지닌 우리의 눈길
흐려진적 없고
발걸음 주저한적 없었노라
눈보라가 길을 물어버린대도
네가 준 진리의 라침판을
지니고있었기에
우리 혁명의 길은
단 한치의 예도 없었노라

오직
너를 가슴깊이 불안고
우리는 굳게 믿었노라

우리 기어이 원썬을 이긴다는것을
네가 있어
우리의 미래는 양양하다는것을

아 굶어죽고
얼어죽으면서도
지켜낸 사상이여
총에 맞고 매맞아 죽으면서도
높이 추켜든
우리의 위대한 주체사상이여

3

보아라 남쪽땅
경찰저지선에
날아가는 기와장
터지는 화염병

휘발유를 뿌린 온몸에
타번지는 불을 달고
민주를, 통일을 웨치는
아, 그 피타는 절규에
귀기울여보라

가까운곳 머나먼곳
거리에서 마을들에서
끓어번지는 항쟁의 대오
나뭇기는 프랑카드

-양키는 제집으로!
모든것은 제힘으로!
그래 그 웨침 그 글발들이
무엇을 원하더냐

십자를 긋는다
사납던 교형리의 눈길들이
너로 하여 떨며 허둥임을
세계는 본다

아 너를 지닌자의 발걸음소리
압제의 아성을 흔들고
가는 길 험난해
때로 눈물 흘린다 해도
그 눈물 원썬에게 향한
총탄으로 날아가더라

구부릴래야 구부릴수 없는것이여
꺾을래야 꺾을수 없는
우리의 주체사상이여

4

노래하노라
자랑하노라
내 나라 내 민족을
가리울수 없는 태양처럼
행성우에 한껏 추켜올린 사상이여

너는 우리의 기상
우리의 지조
광풍이 모질수록 더 높이 머리드는
존엄높은 이 나라의 정신
우리가 찾은 유일한 새 세계의 등대

승고한 희생과
깨끗한 피를 바쳐 얻은
혁명의 전취물들을
너를 지닌 사람들처럼
귀중히 여기는이 있더냐

인류가 지향하는
고상한 리념의 세계를
너를 지닌 사람들처럼
아끼며 앞당기려
온 넋을 다 기울인이들 있더냐

혁명의 량심으로
언제나 검박하고
진정에 차넘쳐 살게 하는 사상
누구나 인류의 앞날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진리의 길로만 달려가게 하는 사상

너를 지니면
대양건너에서 들려오는
돈주머니의 찰랑이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더라
그 무엇을 바래
그 누구를 넘보지도 않더라

사회주의에 어슬막이 왔다고
거품을 물고 떠드는 제국주의자들
감히 우리를 걸고드는자
우리앞에 무릎꿇고 비는 날을
네가 있어 세상은 기어이 보게 되리

아 너만 지니면

부닥치는 어려움
 웃으며 헤칠수 있어라
 그 어디나
 가지 못할 험난한 길 없고
 맨밥에 소금국을 먹는대도
 언제나 승리를 믿어
 궁지와 차부로 부풀어라

너는 그 어디서나
 인류의 키를 자래우고있어라
 인간완전해방의 그날과
 이 나라의 허리에 꽃힌
 칼날을 뽑아던질
 통일의 그날도 펼쳐가고있어라

이 땅을 떨치는 찬란한 빛
 영예와 꽃피는 희망
 원쑤의 불과 총칼을 이기는 의지와 신념
 갈피갈피 인류의 모든 행복이 다 있는
 아 너는 천하제일사상

너만이 오직
 세기의 운명을 결정하려니
 영광이 있으라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이여
 천세만세 세월의 한끝까지
 영광, 영광이 있으라

따르는 마음

림종근

푸른 아지에 피어난 잎새
 떨어지면 못살더라
 못살더라 인생도
 안아주는 품을 떠나

내 아이적엔
 그저 고마움에 목이 메여
 머리숙여 따르던 당
 철이 들어선 의리에 가슴 불타
 심장으로 우러르는 우리 당

덕을 보자고 따르는것도 아니
 은혜 갚으면 돌아설길도 아니
 한말자육이라도 떨어지면
 내 어이 살리
 한순간이라도 헤어지면
 내 어이 동행자라

아! 소리높이 고백하노니
 나의 운명
 당을 따르는 그 길에 있고
 나의 행복
 당을 받드는 그 길에 꽃피거늘

누가 불러 가는것도 아니
 누가 떠밀어 따르는것도 아니

아니가면 못살 몸이기에
 내 스스로 마음내켜
 따라선 길이거니

그 무엇이 유혹해도
 나는 순간의 멈춤도 없으니
 폭풍이 막아서도
 내 조금도 주저함을 모르리

의리에 불타 신념에 넘쳐
 따라선 이 몸 짐이 되랴
 마음다해 아파하는것 풀어드리고
 한몸바쳐 근심하는것 덜어드리며
 걸음걸음 기쁨만을 드리리

푸른 나무잎새
 아지에 붙어있어도 떨어저도
 그 나무의 그 잎새이듯
 나는 살아도 당의 아들
 나는 죽어도 당의 전사

아! 당을 따르는 길
 멀어도 가까와도
 한본새로만 우러르며 가리
 험해도 평탄해도
 한마음 변함없이 받들어가리

돌격대원들의 하루

림길명

《중기 31 호》 공사차는 숨가쁘게 칙칙거리며 자작령의 구배 심한 차굴을 통과하고있었다.

굴뚝이 달린 다섯개의 자그마한 숙영차방통이 기관차뒤에 조롱조롱 끌려가고있었다.

전기화공사가 한창인 차굴요소요소에서 공사차를 통과시키며 주고받는 청년돌격대익살군들의 우스개소리가 연방 날아왔다.

《무슨놈의 기관차가 굼벵이한가지야.》

《석탄을 먹으니까 그렇지. 이제 전기만 먹여보라구, 화살같이 달리지 않나.》

《젠장! 그놈의 연기에 담배불이 다 사망하시는구만...》

《성냥을 달라나?》

《그만두라구. 차라리 기관차굴뚝에 대구 불이 는게 낫겠어...》

《하하하...》

서서히 지나가는 숙영차안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이동작업을 가는 북부철길 자강도려단 제 4 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이다.

대대에서는 이번에 북부철길전기화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열개의 크고작은 구조물건설을 더 맡았다. 이 과업을 수행하려면 우선 방대한 량의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골재의 원천지가 문제였다. 골재채취장이 100 여리나 떨어진 강가에 있었던것이다.

대대에서는 즉시 이동작업을 조직하였다. 온 대대가 함께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럴때면 모든 일이 다 경쟁으로 시작되고 경쟁으로 끝나기마련이다. 의협심이 많고 남한테 지기를 싫어하는 청년들의 집단인 돌격대인 경우에 그 경쟁심은 더욱 큰것이였다.

어쨌든 연포역을 떠나면서부터 중대들에서는 승벽내기를 하듯 오락회로 기세를 올리고 자기네중대의 특기를 보이려고 애를 썼다.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북부철길건설 초창기부터 함께 일하였고 그 과정에 지휘성원으로 성장한 30 대의 골골한 청년들이다. 지휘관들은 흔히 이름대신 《룡림》, 《화명》, 《랑림》, 《시중》이라고 자기네 군의 이름을 따라 불렀는데 때로는 《돌격앞으로》, 《호랑이》, 《선생님중대장》이라고도 부르군한다. 그것은 대원들속에서만 통용되는 중대장들의 별호였다.

대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그런데 이날 룡림중대대원들의 기분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대대참

모부협의회에 갔다온 중대장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보통키에 처너처럼 곱살하게 생긴 중대장 윤영복은 자기 대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웃지휘관들앞에선 언제나 순한 양같이 마음이 어진 사람이다.

대대부에서 무슨 일이든지 과업을 주면 쓰다 달다 아무소리 없이 수행한다. 과업이 아름답고 방대한것일 경우에는 아예 입에 빗장을 지른듯 더욱 침묵하는 성미다.

영복은 중대숙영차방통에 오르지 않았다. 맡겨진 과업이 너무도 아름답서 대원들에게 실망을 줄가봐 누구도 보지 않는곳에 가서 혼자 속을 끔끔 앓고있는지도 모른다.

(어디 댔을가?)

중대원들속에 휩쓸리다가도 가끔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사색하기를 즐기는 중대장임을 잘 알고있는 1 소대장 박문철은 저도 모르게 기관차운전실쪽을 내다보았다. 순간 그는 조수자리인 차창가에 팔굽을 걸치고 서있는 중대장을 발견하였다. 굴길을 밝히는 기관차의 환한 조명등불빛에 중대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안겨왔던것이다. 중대장은 무슨 편지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다 읽고는 물기 번들거리는 차굴벽을 바라보며 선선한 굴바람을 한껏 들이키는것이였다. 어디서 온 편지일까? 혹시 애인한테서 온것일까?무엇이라고 썼기에 저리도 생각이 깊을가?...

《털럭 털럭!...》

기관차화실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이따금 옥옥 용을 쓰는 화부의 목소리가 섞이여 날아왔다. 그것이 다름아닌 중대장의 목소리임을 문철은 벌써 짐작하고있었다.

편지에서 받은 그 어떤 심리적충격이 중대장으로 하여금 기관조사의 탄압을 빼앗아들게 한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차굴이 어찌나 긴지 미처 빠지지 못한 매캐한 연기가 방통짚으로 새어들기 시작하였다. 연기에 개끼여 켉켉거리는 대원들도 있었다. 그런속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참, 너무 고지식한게 탈이야.》

《누구말인가?》

《누구긴 중대장이지 ...》

잔뜩 불이 부어 대꾸한 사람은 중대에서 《소식통》이라 불리우는 구대원 장명호다. 그는 중대가 그 어떤 작업에서 남한테 떨어지거나 하면 그것

이 마치고 지휘관들의 잘못이거나 한것처럼 두들대길 잘한다.

《더러 못할건 못하겠다구 해야지 그저 <샌님>이라니까.》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구 <돌격앞으로> 중대장처럼 말할건 말해야 돼.》

《그러게 말이야. 그저 곰상곰상하니까 더 받을 수 있는 자동차두 못받아, 골채채취장두 제일 먼 곳이 차례져...에- 일복이 있는 중대장을 만난덕이라구 봐야지 뭐...》

지금껏 중대장걱정을 하다가 기관차운전실에 있는것을 보고 좀 안심되어 소설책을 펼쳐들던 문철은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해 버럭 성을 냈다.

《뭐? 일복이 있는 중대장을 만난 덕이라구? 중대장동문 북부철길전기화공사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구 애를 쓰고있단말이야!》

《나두 일을 더 많이 하자는겁니다.》

《그런데 무슨 불평이 그리 많아?》

《불평이라구요?》

《됐어, 됐어!》

다른 구대원이 명호를 말렸다.

《동문 그저 소대장의 말이라면 한사코 걸고드는게 달이라니까.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기로서니...》

그 말에 문철은 면구스럽게 웃음을 짓고나서 좀 누그러진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다.

《속담에두 일이 끝나는 말이 있지 않아...》

명호는 싱겁게 웃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지요.》

《뭐가 그렇게 되지 않아?》

문철은 따지고들었다.

《소대장동문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모두 귀를 강구었다. 바로 뒤숙영차방통에서 시중중대동무들의 떠들썩한 오락회소음이 들려왔다. 지금 한참 대원들이 모여앉아 손벽을 치며 변호를 이어 호출하다가 걸리는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게하는 놀음을 하고있었다.

《착착...》.

《하나 셋!》

《착착...》

《셋 다섯!》

《착착...》

《다섯 여덟!》

과연 누가 걸릴것인가?모두 긴장하여 듣는데 열한번째 사람이 그만 덤비면서 자기 변호를 끝없이 불렀다.

《야! 대대장동지다! -》

대원들이 환성을 올리었다. 은근히 대대장에게

집중공세를 들이대며 성공한것이였다. 대대장은 엉터리들이라고 하면서 버티기를 하였다.

《나오시오 나오시오!》

《안나오면 졸장부!》

《나오면 대장부!》

《박수! -》

대대장이 끝내 일어나고야만것이였다.

이윽고 대대장의 시원하면서도 웅글진 목청이 선물을 타고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노래는 곧 대원들의 합창으로 변저갔다.

...잊지 못할 청춘시절 동무여

우리 우정 그 어데서 꽃폈나...

시중중대의 오락회에 흥취되어 저도 모르게 발장단을 치며 흥얼거리던 대원들이 서로 눈길이나 주치자 못들을것을 들은 사람처럼 어색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보십시오. <돌격앞으로>중대장이 씨원씨원하게노니 새로 온 대대장두 마음이 끌리지 않나. 대대장은 노상 시중중대에 붙어살다싶이하거든. 난 그제 시샘난단말입니다.》

명호는 자기 흥분에 못이겨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두드리기까지 하였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졌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명호의 말에 공감한것인지도 모른다.

대대장이 룡림중대에 제일 어렵고 힘든 공사만 맡기군하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고려없이 대대에서 난문제로 제기되는 일이면 의례히 룡림중대에 파업을 준다. 레루상차차, 침목방부, 막돌채취, 지어 명절날 돼지잡이까지 시킨다. 이것이 다 중대장이 고지식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문철은 코방귀를 귀며 명호의 견해를 부정하듯 소설책갈피를 벌컥벌컥 소리내어 번지였다.

(뭐, 중대장이 고지식하다구?)

문철은 자기 지휘관에 대하여 제멋대로 평가하는 명호가 어이없었다.

문철은 중대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 5 년동안 돌격대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함께 로반을 닦아왔다. 아찔한 벼랑중턱에서 눈사태와 싸우며 착암도 하였고 물결사나운 강물속에 뛰어들어가 교각을 지켜싸우며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온 그들이 다.

영복은 룡림군에서도 제일 오지인 남상마을 중학교 소년단지도원이다. 그는 나어린 학생들에게 재미나는 동화이야기를 들려주듯 중대원들앞에서도 한쪽 덧이를 반짝거리며 조용조용 작업총화를 짓군한다. 북부철길건설기간에 대원으로부터 분대장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이 된 영복은 남달리 공사물계에 밝았다. 그 어떤 공사대상을 맡겨

주어도 그자리에서 필요한 자재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등 대원들의 역량상태까지도 구체적으로 타산하는 사람이다. 그가 대대에서 어려운 과업을 받을적마다 침목을 지키는것은 결코 성미 탓이 아니라 그 지나친 타산때문인지도 모른다.

달포전에 있는 일만해도 그렇다!

대대앞에는 전기화공사구간의 낡은 침목을 새 침목으로 교체해야 할 파업이 떨어졌었다. 대대 참모회의에서는 침목생산문제를 놓고 의견들이 구구했다. 어떤 사람들은 중대들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침목을 보장하는 작업조를 따로 조직하자고 하였고 어떤 중대장들은 국가에서 받은 침목 채벌림지를 중대들에 뜯어맡기자고 하였다. 그러나 두 의견이 다 자체의 우단점을 가지고있어 중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할수 없이 대대장이 일어나서 침목채벌림지를 중대들에 떼맡기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제기하십시오.》

려단자재참모로 사업하다가 대대에 새로 조동되여온 그는 중대장들을 처음 대상하는만큼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자는 심산이었다.

《없습니다!》

《돌격앞으로》라 불리우는 시중중대장이 찬성하자 모두 호응했다. 그런데 영복이만은 침목을 지켰다.

《룡림중대장동문 왜 말이 없소?》

대대장이 의아하여 물었다.

《...》

영복은 여전히 입을 꼭 다문채 있었다. 웅성거리던 중대장들이 갑자기 숨을 죽이었다. 참모회의때마다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의례히 침목을 지켜 다른 사람들을 안달게 하여 가슴을 조이는 데 버릇된 그들이었다.

《중대장동무의 침목은 무조건 찬성이라는데... 그게 사실이요?》

《...》

영복은 한숨을 내그었다.

《아무리 생각해두 침목생산계획을 못받겠습니까.》

《못받겠다?》

대대장은 당황해났다. 부임하여 첫 사업조직부터 그것도 무슨 일이나 고분고분 잘 수행한다는 중대장의 반대에 부딪치고보니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랐던것이다.

그러거나말거나 영복은 자기대로 그 이유를 조용조용 설명했다. 침목하산거리리는 몇키로인데 달구지조차 다닐수 없는 심산속이라든지, 때문에 하루한사람당 두대의 침목밖에 끌지 못한다는것, 그렇게 한다쳐도 계획수자는 절반도 못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중대가 받은 립지에 침목으로 쓸만한 규격재가 얼마 없기때문입니다.》하고 영복은 꺼내보던 깨알같은 수자투성의 조그마한 수첩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것이였다.

《? ...》

모두 웅성거리였다. 《돌격앞으로》중대장은 립지의 침목재대수를 세여본것처럼 딱 찍어 말하는 영복이가 엉터리라는듯 좌중을 휘돌러보며 허거픈웃음을 웃었다.

《그래 중대장동문 침목생산계획을 절반도 할수 없다는것을 어떻게 담보하오?》

대대장의 심중한 물음에 영복은 도리어 놀라며 반문하였다.

《그럼 대대장동진 립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과업을 중단말입니까?》

《...》

대대장은 입이 벌어버리고말았다.

《돌격앞으로》중대장이 대대장을 보기 파분했던지 한마디 끼였다.

《대대장동지야 어저께 부임해오지 않았소. 침목생산계획두 먼저대대장이 받았구...》

《그렇다구 자기 대원들이 힘들게 될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명령할수 있겠소?》

《지휘관이 <앞으랏>하면 대원들은 나간다니까.》

《나가지요. 군말없이... 하지만 우리 대원들은 지휘관의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닙니다.》

《웁소! ...》

대대장이 책상을 탕 치며 일어났다. 그의 벌거우리해진 얼굴은 실책을 뼈아프게 느끼는 표정이였다. 방안의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오늘 협의회는 이만합시다.》

대대장은 휴회를 선포하였다. 그리고는 그길로 립지를 찾아 떠났고 사흘동안 부르트는 발바닥에 성냥딱총을 놓으며 침목재대수를 다 세여본 다음에야 돌아와서 협의회를 계속했던것이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있는 참모회의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이번 이동작업은 누구도 예견치 못한것이여서 대대에서도 미처 운수수단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 려단으로부터 돌발적으로 제기되었던것이다. 대대에서는 현재 있는 자동차를 매 중대에 한대씩 배차해주었다. 그것으로 막대한 량의 골재를 8 일동안에 운반한다는것은 사실상 말이 안된다. 그런만큼 중대지휘관들속에서 의견이 없을수 없었다. 자동차를 더 구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사람, 계획수행기일을 늦추어달라는 사람, 채취장이 먼 중대에 자동차를 더 배차해달라는 사람...

그런데 영복이만은 골재운반거리가 제일 멀면

서도 아무 의견없이 수행하겠다고 나섰다.

누구보다 놀란것은 대대장이었다. 타산이 밝은 영복이만은 꼭 무슨 의견이 제기될것이라고 믿었던 그였다.

《중대장동문 이번 골재운반이 침목생산때와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는걸 잊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재가 무진장하지 않습니다. 운반문제 지휘관들이 머리를 써야할 일이지요.》

《그래 무슨 방도라도 있소?》

《아직은 없습니다.》

《없다. ...음...》

대대장은 이렇게 입속으로 되뇌이며 오래도록 사무실창가에 마주서있었다고 하였다. 룡림중대장이 자신없어할가봐 몹시 걱정되었던 모양이었다.

명호는 대대장의 그 걱정이 공연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자동차 한대를 가지고 그것도 제일 먼거리에서 3일동안에 골재를 다 운반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불보듯 뻔한 일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래서 일부 대원들까지 심란한 감정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러나 문철은 중대장을 믿고있었다.

영복은 가장 어렵고 방대한 임무를 받을 때만이 지휘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곤하였다. 왜냐하면 방도가 다 구체적으로 선일은 누구나 다 수행할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대앞에 어려운 난공사가 제기될적마다 중대장은 군말없이 말아 수행해내지 않았던가.

영복은 그 과정을 통하여 지휘관으로서 자신을 준비해왔고 중대를 강철의 대오로 이끌어온것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대앞에 맡겨진 임무가 아름차고보니 문철이자신도 어딘가 자신심이 없어지는것 같았다.

《차굴 통과!-》

중대의 막내동으로 사랑을 받는 꼬마 인형이가 기관조사의 흉내를 내며 소리치자 갑자기 사위가 확 밝아졌다. 드디어 기관차가 굴을 빠져나온것이다. 차창유리에 뽕얇게 서리어 감돌던 연기가 초를 친 순두부처럼 흐르려져 뭉치더니 이내 맑고 투명한 대기속에 녹아버리었다.

인형이가 창문을 활짝 열어제겼다. 저녁무렵의 신선한 산바람이 열기를 풍기며 확 쓸어들어왔다. 모두 싱그러운 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미소했다.

문철은 기지개를 켜다. 머리가 거뻐해지는것이 마치도 지루한 꿈에서 깨어난듯싶었다.

《야! -》

누군가가 차창밖의 풍경에 탄복하여 소리쳤다.

그리 크지 않은 산언덕등판이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지였다. 새초며 우영풀들이 한벌 깔린 등판에 울긋불긋한 이름 모를 야생꽃들이 석양의 빛을 받아 점점이 불타고있었다. 그 한복판으로 양떼가 구름처럼 흐른다.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자 오물오물 풀을 뜯던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고 허리 잘록한 양몰이쳐너가 빨간 머리수건을 흔들어주는것이였다.

《그 처녀 인사성이 밝은데! ...》

명호의 익살섞인 소리였다.

《마음에 들면 한번 말을 걸어보지요 뭐...》

인형이가 새물새물 웃으며 지꼇게 줄랐다.

명호는 어이없다는듯 인형의 방울코잔등을 투박한 손끝으로 툭 건드리였다.

《조꼬만게 뭘 안다구 그래!》

양떼와의 거리가 가까와질 때 명호는 손을 들어 흔들며 소리쳤다.

《처녀동무! - 수고하오! -》

《돌격대동무들이 수고해요! -》

《어느 목장이요? -》

《리평목장이예요.-》

《이름이 뭐요? -》

《왜 그래요? -》

《알구 지냅시다! -》

《어마나...》

처녀는 무엇이랴 말을 하려다말고 수집어하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돌아서는것이였다.

《뭘라구 했어?》

명호는 뻥해하였다.

《이름을 못대주겠다는거야요.》

인형이가 통역하듯 말하고나서 혼자 키득거렸다.

《거 비싸게 노는걸...》

《하하하...》

목소가 터졌다.

자존심이 울컥 치밀어오른듯 명호는 다시 처녀를 향해 웨쳤다.

《동무! 내 3일후에 다시 올테요! -》

그러나 처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듯 멀어지는 열차를 향해 머리수건을 흔들기만 하였다. 기관차가 산굽이들 돌아서자 양떼도 처녀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결에서 떠들썩 웃어대는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책에서 눈을 떴 문철은 명호를 나무람하였다.

《동문 목장처녀앞에서 돌격대망신을 시켜두 분수가 있지 그게 뭐요?》

《아니 한번 똥을 한걸 가지구 뭘 그림니까?》

명호는 삐딱하니 쓴 모자채양을 바로잡으며 푸

접 좋게 웃었다.

《부끄럽지 두 않아! 한쪽에선 오락회를 하는데...》

《그럼 어찌라는겁니까? 노래두 안불러 롱담두 하지 말래...》

《에- 이러다간 안되겠어. 여<기관조사>!기타를 가져와!》

문철은 기관조사홍내를 곧잘 내는 인형이를 가리켜 《기관조사》라 불렀다.

인형이가 기타를 가져옴과 동시에 대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오직 명호만이 시큰둥해서 한쪽옆에 비켜서있었다.

공사차는 기세 좋게 달리였다. 그와 경주하듯 차창밖의 전주들이며 산봉우리들이 따라왔다.

문철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원들의 노래소리는 매지구름 피는 저 하늘가로 메아리쳐간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이끌며

우리 함께 험한 령도 넘으며

처음에는 제뿔뿔이여서 맞지 않던 각이한 음정들이 점차 화음이 되면서 듣기가 좋았다.

문철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중대장이 지금 골재 운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것인가 하고 점쳐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종잡을수없는 생각에 짜증난 문철은 저도 모르게 기타줄을 힘껏 튕기였다. 악상의 요구에 따라 감정이 중화되는 대목에 이른듯 열정적으로치는 기타반주에 대원들도 제법 흥이 나서 몸을 제끼며 건드려지게 목청을 뽑았다.

《잘해. 잘해!》

제판에 심취된 대원들의 노래소리는 단조로운 기차바퀴의 동음을 싣고 어디론가 저멀리로 퍼져갔다.

어슬넛에 대대는 목적지에 닿았다.

골재채취장은 숙영차가 몇어선 간이역에서부터 한 십리 되나마나한 강가에 있었다. 작업장까지 행군한 대대는 강버들숲에 중대별로 숙영천막을 전개시켰다.

이튿날 날이 밝자 작업장마다에는 오색기가 주런이 꽃혔고 여기저기서 기세를 울리며 골재를 무지무지 쌓아놓기 시작하였다.

눈치 역은 기록수들이 서로 다른 중대의 골재무지를 몰래 《럼탐》하고 와서는 자기네 중대원들에게 바싹 열을 올려주곤하여 골재무지는 턱없이 높아지기만하였다. 경쟁이란 참 좋은것이였다.

벌써 이틀동안에 해야 할 골재전량을 하루에 다 채워놓았던것이다. 이제는 골재를 화차에 실을수 있도록 역까지 운반해가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았다.

운수수단을 보충할 어느 중대나 다 묘연했다.

영복은 운수수단해결문제를 대중토의에 붙이였다. 그러나 자동차를 해결할 방도는 나지 않았다.

(끝내 이려고마는가?)

영복의 얼굴빛은 여느때없이 심각해졌다.

《중대장동무, 너무 근심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철은 벌써 결사전을 벌릴 잡도리를 하고있었다. 그는 우선 래일작업성과를 위해 대원들을 일찌기 취침시켰던것이다. 그런데도 중대장은 여전히 지휘부천막안을 거닐기만하였다.

문철은 눈을 좀 붙여야지 않겠는가고 사정하고 싶었지만 중대장의 침묵을 깨뜨리기란 산을 허물기보다 더 힘들다는것을 잘 알고있는지라 그만두었다. 비가 내리겠는지 날씨조차 음산해졌다.

침실로 돌아온 문철은 중대장을 기다리다 못해 깜빡 잠들어버리고말았다. 아침에 깨어나보니 중대장의 잡자리에 류벌사업소로 간다는 글썽지가 놓여있었다. 밤새껏 모대기던끝에 류벌사업소에가서 자동차를 해결하기로 결심한것임이 틀림없었다. 좀해서 남한테 손을 내밀지 않는 중대장이 그런 용단을 내린것으로 보면 정말 방도가 서지 않았던것이다. 어쨌든 문철은 숨이 좀 나가는 것 같았다.

새벽부터 내리던 이슬비가 날이 밝자 제법 대줄기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제길! 얹친데덜친다고 이젠 다 튕 작전이야!》

천막을 마구 두들겨대는 비방울소리에 소름이 끼듯 목을 움츠르려하던 명호가 개탄하였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문철은 자동차때문에 류벌사업소로 간 중대장의 소식을 아는것처럼 말하는 명호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늦었지요. 다른 중대들에서 가만있는줄 압니까? 벌써 <돌격앞으로>중대장은 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방에 사람을 띄웠답니다. 자동차를 해결하라는거지요...》

《그게 정말일가?》

대원들이 귀가 한발이 돼서 모여들었다.

《명호동문 남의 중대의 비밀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인형이가 회한해하였다.

《여, 내가 <소식통>이라는걸 몰라?》

명호가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문철은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아닌개아니라 명호는 러단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죄다 알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얼굴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얻어듣는것이 또한 많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놀라울 정도로 정보가 빠른 《소식통》이였다.

문철은 어쩐지 중대장이 허탕치고 돌아올것만 같은 생각이 자주 들었다. 이럴 때 중대장의 대리인인 1 소대장으로서 어떤 결심을 내리는가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곰곰히 생각하는데 명호가 불쑥 다가와서 제기하는것이였다.

《우리두 늦지 않았으니 농장에 가서 트랙토르를 해결해보는게 어떻습니까?》

《이 바쁜 농사철에 어디다 손을 내밀어? ...에-이러다간 안되겠어. 모두 질통을 메구 모였!》

문철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비는 억수로 쏟아붓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까운 시간을 보낼수가 없는 일이였다. 중대장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보면 자동차가 해결되지 않는것이 뻔하다. 그러니 이제는 돌격앞으로 할수밖에 없지않는가.

《동무들, 우리가 당앞에 결의한대로 북부철길 전기화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기자면 흘러가는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됩니다.》

문철은 질통을 지고 천막을 나서는 대원들앞에서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기승스럽게 퍼붓는 비발소리에 가끔 파묻히기도 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대원들의 심정을 격동시키는것이였다.

《동무들도 알다싶이 우리는 오늘부터 3 일동안에 걸쳐 이 골재를 역까지 운반해가야 합니다.

물론 파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편안히 일하자구 북부철길 건설장으로 왔습니까?》

《웁습니다!》

중대원들이 한결같이 그의 말에 호응했다.

《동무들! 날따라 앞으로! ...》

문철의 구령에 따라 질통에 골재를 듬뿍듬뿍 담아 진 대원들이 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몇행보했을 때였다. 멀리 뒤에서부터 《중대 서-엿!-》 하고 웨치며 쫓아오는 사람이있었다. 뜻밖에도 중대장이였다.

《누가 이렇게 하라구 했소?》

영복은 얼어질듯이 달려와 대원들의 앞에 떡막아섰다. 마치도 그 모습은 병아리들이 평화로이 모이를 못는 마당가에서 독수리를 본 엄지닭의 기상을 방불케 하였다. 어린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어루만지던 그 다정한 눈빛, 조용조용 재미나는 동화이야기를 들려주던 때의 웃음 비긴 입술이 것처럼 무섭게 노하는것을 문철은 처음 보았다. 가슴이 후둑 뛰었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뻗었다.

《중대장동무! 우린 등짐을 저서라도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이만한 애로쯤이야...》

문철은 이발이 덜덜 맞췄으면서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그 정상을 보던 중대장이 문철의 팔을 붙잡고 사정하듯 말하였다.

《난 이런 식으로 동무들을 사정없이 내모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휘관이 되고싶지 않단말이요. ...물론 자연과의 투쟁이니만큼 간고한것만은 사실이요. 그러나 동무들의 어깨에 피멍이 들도록 철길을 건설하게 해서는 안되오. 그래서 당에서는 우리 지휘관들에게 돌격대원들을 맡겨주었던 말이요.》

문철은 목구멍이 뜨끔하여 아무 소리도 못했다.

대원들도 침묵했다.

《좌측좌측! ...》

대줄기같은 비발이 머리위에 마구 쏟아져내렸다. 번개치고 우뢰가 울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일줄을 몰랐다. 마치 땅에 뿌리박힌 말뚝들처럼 ...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도가 없지 않는가?)

문철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뻥해있었다. 그는 중대장의 구령소리를 아득히 먼 메아리처럼 들었다.

《중대 날따라 앞으로!》

철버덕철버덕...

대원들이 진창을 텅기며 중대장을 따라 우르르 몰려간다. 어디로 무엇하러 가는가? 문철은 뿌연비발속으로 자꾸 달리기만 하는 중대장을 보며 안타까와했다.

한참만에 대오는 골재채취장에 와서 멈춰섰다.

《이제부터 폐목우에 골재를 실겠습니다.》

중대장이 침착하게 입을 뻗었다.

문철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몰랐다. 중대장이 설명했다.

《말하자면 류벌사업소폐동에서부터 역앞에 있는 폐장까지 내려가는 폐목우에 골재를 실어나르기로 했단말입니다. 폐목이는 내가 견습주겠소...》

(아니 폐우에 어떻게 골재를? ...)

영복은 확신성을 담보하듯 강가쪽을 가리켰다. 중대장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던 대원들의 눈길이 일제히 한곳에서 굳어졌다. 물안개 서린 강기슭에 난데없는 길다랗게 무은 폐목이 뚱뚱 떠있었던것이다. 폐우에는 커다란 자동차적재함같은 함통들이 놓여있었다. 거기에 골재를 무진장 실는다는것이다.

《히야! -》

너무도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에 대원들은 환성을 올렸다. 아니 중대장이 밤잠도 자지 않고 모태기던끝에 그런 훌륭한 방도를 생각해냈고 자기 혼자 류벌사업소에 가서 폐를 끌고 왔다는것을

알았을 땐 모두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었다.

《어…참, 무슨놈의 비가 이렇게…》

명호는 동무들 보기 무뎠던듯 돌아서서 얼굴에 마구 흐르는 눈물인지 비물인지 모를 뜨거운것을 흠치고있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억제못해 대줄기로 쏟아지는 허공을 향해 입김을 허허 토하던 문철은 커다란 주먹으로 명호의 잔등을 철썩 때렸다.

《보라구, 내 뭐라던가!》

《아니, 간떨어지겠습니다.》

문철은 엄살을 부리는 명호를 와락 끌어안고 한바퀴 돌았다.

갑자기 강가에 난데없는 웃음이 터졌다. 울다가 웃는 사람처럼 모두 눈물이 글썽한채 시원스럽게 웃는 웃음이다.

꿀재를 가득가득 실은 때들이 닳줄을 풀었다.

(이건 정말 썰렁구 알먹기야, 꿀재두 운반하구 떼두 끌어 주구…참 참…)

문철은 대원들에게 질통을 지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어깨에 피멍이 들면서 철길을 건설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던 중대장의 말이 다시금 심각히 돌이켜졌다.

《아니, 저게 시중중대 성팔이 아닌가?》

명호의 목소리에 문철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강기슭길로 비를 출출 맞으며 내려오는 사람이 보였는데 분명 시중중대의 안면있는 친구였다.

홀라닥거리길 좋아하는 명호가 가만있지 않았다.

《여 어디 갔다 오나?》

《자동차때문에 광산에 …》

《아니 중대장이 <돌격앞으로> 하지 않아?》

《남의 지휘관을 모욕하지 말라구. 중대장동진 자동차를 구하겠다구. 밤새껏 온텔 뛰어다니다가 발목까지 풀쳤단말이야…》

《그렇다면 용서하라구.》

명호의 진정어린 사과였다. 자기 중대장을 옹호할줄 아는 성팔이가 기특하게 여겨졌던것이다.

성팔이도 너그럽게 웃었다.

《그런데 동무넌 꿀재운반은 어떻게 하구 강가에서 떼놀이를 하나?》

《허허…하긴 떼놀이지… 보면 몰라?》

물안개속을 한참 살펴보던 성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떼우에 무지무지 쌓여져있는 꿀재를 보고는 무릎을 탁 소리나게 치기까지 하였다.

《야! 이치들이 멋들어진 생각을 해냈는걸!》

《어때, 이만하면 북부철길 건설력사에 특기할 만한 일이지?》

《기가 막혀. 우리 중대장동진 어째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빨리 가서 알려야겠어! …》

성팔은 어떻게나 흥분했던지 경충경충 발고랑

을 서너개씩 단숨에 뛰어넘으며 중대를 향해 달려갔다. 풀숲에서 비를 굶던 개구리들이 놀라 같이 뛰었다.

강가에 웃음이 넘실거렸다. 떼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산골강은 급류가 심하다. 그러나 문철은 안심했다. 첫 길잡이떼의 키를 중대장이 잡고있기때문이었다. 그는 류벌공의 아들이었다. 지금 꼬리를 물고 떠내려오는 떼우에는 중대장의 견습을 받은 《돌격대신인류벌공》들이 키를 잡고있다. 서투른 류벌공들은 제법 중대장의 흉내를 내며 자신만만하게 키를 저어간다. 한굽이 또 한굽이…

강녘으로는 수려한 버들숲과 각아지른듯한 절벽들과 우중충한 메부리들이 엇바뀌며 끊임없이 흘러지나간다. 한여름의 싱그러운 향기가 그 숲에서도 절벽에서도 알싸하게 풍겨온다. 물우에서 쌍쌍이 헤엄치던 물오리들이 떼꼬리우에 푸르르 날아올라 젖은 것을 다듬으며 우짖는다.

자연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끌어들이고 정화시키는것이어서 웃음 많고 감정이 풍부한 청년들은 자연앞에서 곧 천진란만해진다.

방금 질통을 지고 비발속을 힘겹게 달리던 사람들갈지 않게 기분이 들뜬 중대원들은 마치 유년시절로 되돌아간듯 오리의 울음소리를 흉내내 기도하며 떠들썩 웃어댄다.

갑자기 절벽밑에 넓은 소가 나타났다. 이런데서는 떼가 흐르는듯마는듯한다. 이를테면 떼의 자연정류소나 다름없다.

떼몰이에 신바람이 난 문철은 잠시 노를 세우고 허리를 폈다.

강가의 바위코숭이에 허리굽은 로인이 밀짚모자를 쓰고 앉아 낚시질을 하고있었다.

《아바이, 고기가 많습니까?》

문득 명호의 호기심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아두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내 손자보려 이 고장에 첫 개통렬차를 타구 왔다가 고기잡이에 반해서 여태 떠나지 못하구있네.》

《고향은 어디세요?》

《리평이라구.》

《그럼 리평목장사람들을 잘 아시나요?》

《알다마다. 그고장에서야 좌상이니까.》

《아바이! … 담배를 피우십시오.》

떼가 바위앞을 서서히 지날 때 명호가 로인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그리고는 무슨 말인지 소곤 소곤 몇마디 주고받더니 이내 작별하는것이였다.

(저치 푸집이 좋단말이야!)

문철은 어디 가서나 웃사람이건 아래사람이건 잘 사귄줄 아는 명호를 부러워하였다.

이때였다. 갑자기 바위돌에 나무가 굽히우는 소리가 아츠럽게 들리더니 선두떼가 멈춰섰다.

중대장이 탄 길잡이때가 여울목입구에서 바위뿔에 걸렸던것이다. 그 순간 낚시질을 하던 로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뒤에 내려오는 떼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선두떼에 부딪친다는것이였다.

문철은 몸서리쳤다. 금시 눈앞에 떼도 골재도 물속에 흐트러지는 광경을 보는것만 같았던것이다.

그 찰나에 중대장이 나는듯이 여울목의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철은 《앗!》 소리를 대며 굳어졌다.

《젊은이, 잘해! ...떼를 밀라구... 그렇지, 덤비지말구...》

낚시군로인이 선협자답게 강덕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며 지휘하는것이였다. 중대장은 사품치는 물속에서 로인이 가리키는대로 떼밑에 어깨를 들이밀고 안간힘을 쓰고있었다.

무시무시한 광경에 얼었던 문철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중대장이 위험하다고 말리는것도 물속에 침범 뛰어들었다. 뒤따라 대원들도 들어섰다. 사나운 여울물속에서의 전투는 가렬했다. 문철은 대원들과 어깨를 결고 떼를 구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마침내 떼는 서서히 바위뿔에서 풀려났다.

《중대장동진!》

《동무들! 상한데는 없소?》

떼우에 올라선 중대장은 대원들의 몸을 하나하나 어루만져보고 아무 일 없자 기뻐서 얼싸안고 돌아갔다.

《젊은이, 살았나?-》

여울목기슭까지 험떡거리며 쫓아온 낚시군로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바이 걱정마십시오. 이렇게 펄펄합니다.》

영복은 우정 팔다리를 흔들어보였다.

《하하하...》

로인도 대원들도 즐겁게 웃었다.

기승을 부리던 비도 멎고 해가 짙게 났다.

골재운반은 오후에 한탕 더 하였다. 시오리 물길에 떼가 한벌 늘어섰다. 다른 중대들도 룡림중대의 뒤를 따라나선것이다.

문철은 마지막떼에서 골재를 다 부리우고 중대장한테 보고한다음 대원들에게 휴식구령을 주었다. 삼복더위에 구슬땀을 한껏 흘린 대원들이 강물속에 뛰어들어 물장구 치며 미역을 감기 시작하였다.

문철은 명호와 함께 바위뒤에 옷을 벗어놓고 물속에 홀랑 몸뚱아리를 잠그었다.

《어-시원해!》

《어-좋구나!》

그들은 보통때의 지휘관과 대원들이라는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린듯 붙어잡고 룡질하며 좋아서

흑흑 흐느끼었다.

그들은 한고향 친구다. 버들꽃 피는 산골마을의 앞내가에서 코흘릴적부터 이렇게 물장구 치며 자랐다. 북부철길 건설장에도 함께 탄원하여나왔고 한중대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일해왔다.

비록 오늘은 서로 소대장과 대원이라는 관계에 있지만 그들은 노상 비둘기처럼 같이 다니고 또 허물없이 지낸다.

《여, 이젠 떠날 시간이 다 되는것 같애...》

문철은 한동안 자맥질을 하다가 강덕으로 나와 옷을 입었다.

그때 바위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뜻밖에도 대대장과 중대장이였다.

대대장은 저으기 갈린 음성으로 중대장을 나무람하고있었다.

《이것 보지. 어깨에 타박을 받은것 같은데 아프지 않나구?...돌아가면 즉시 의사선생에게 보십시오.》

《일없다는데요.》

《고집두, 정 그러면 <처벌휴가>를 보내고말려요!》

두 지휘관은 마주보며 웃었다.

문철은 눈굽이 확 젖어올랐다. 아까 떼를 구원할 때 중대장이 어깨를 몹시 다쳤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걸 나는 어째서 보지 못했던가?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원들이 상했을가봐 하나하나 아태우를 어루만져본 중대장을 모르고있었던것이 더 가슴아팠다.

《대대장동진 어째서 우리 중대에 오지 않습니까?》

중대장의 좀 섭섭해하는듯한 어조였다.

《어쩐지 가게 되지 않는구만.》

《그래두 자주 내려와서 도와주어야지요.》

《왜 힘이 드오?》

《제가 힘든건 참을수 있어두 대원들이 섭섭해하는건 ...》

《가슴이 아프단말이지. ...허허허...》

대대장이 껄껄 호탕히 웃었다.

《중대장동무가 자기 대원들을 극진히 사랑해주면서 일두 잘하는데 뭐라오. 난 대원들은 어떻게 되던지간에 무조건 돌격앞으로 뚫다밀기만하는 시중중대장이 걱정돼서 그 중대에 자주 내려가있군한다니까. 아마 시중중대장동문 이번에 생각이 많았을거요.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대원들이 욕본다는 말이 있지 않소. 그래서 대원들은 언제나 지휘관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되는거지...》

(아! 지휘관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문철은 저도모르게 풀잎을 한줌 뜯어 햇빛에 어리광치듯 굵이는 물결우에 뿌리며 조용히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대대장의 다정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이어진다.
《중대장 동문 전번에 교대를 미루었다는게 사실
이요?》

《북부철길전기화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어
떻게 여길 떠날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보구싶지 않소?》

《보구싶지요. 힘들게 일하다가두 자리에 누우
면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
른답니다. 귀기울이면 창밖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쟁쟁하구요.

우리 학교는 벚꽃이 하얗게 피는 산기슭에 자
리잡고있습니다.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까치둥이
를 인 백양나무들이 운동장둘레에 숲을 이루고...

이따금 일이 잘되지 않을 때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구서야 돌아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
르치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군답니다. 그
때마다 아이들의 편지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곤하지요. 어저께두 그 애들한테서 또 편지가
왔답니다.》

문철은 문득 이동작업을 내나올 때 기관차운전
실에서 중대장이 보던 편지가 생각났다.

《그래 학생들이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글쎄 철이 없는줄로만 알았더니 제법 어른스
럽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오늘도 사랑
하는 대원들을 데리고 철길전기화공사를 하느라
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지도를 펼
쳐놓고 선생님이 건설하고있는 철길을 찾아보곤
합니다. 지리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북방방
의 산악은 험하고 강물은 사납고 눈비가 사정없
이 쏟아진다니요. 그런곳에서 차굴을 뚫고 다리
를 놓아가느라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돌격대아저
씨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제가 물려서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난
관이 앞을 막아설 때마다 대원들이 웃음과 랑만
에 넘쳐 일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더욱 다지
군합니다.》

《정말 선생님중대장》이 다르긴 다르구만. 우리
가 어깨에서 피가 나도록 이 철길을 건설하였다
고하면 당에서도 기뻐하지 않소. 중대장동무! 우
리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참된
기쁨을 드리기 위해 지휘관으로서 자기 임무에
더 충실합시다.》

두 지휘관은 뜨겁게 손을 잡아흔들고있었다.

조국을 위한 보람찬 로동속에서 뜻을 같이하게
된 때처럼 의의깊은 일이 어데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 지휘관을 새롭게 알게 될 때의 대원들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큰것이다.

×

《증기 31 호》 공사차는 숨가쁘게 칙칙거리며 자
작령의 구배심한 차굴을 통과하고있었다. 굴뚝이
달린 다섯개의 자그마한 속영차방통이 기관차뒤
에 조롱조롱 끌려간다. 이동작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친 대대가 어느덧 귀로에 오른것이다.

하루로동의 피로를 푸는 중대원들의 흥겨운 노
래소리가 방통마다에서 흘러나온다.

롱림중대원들의 사기는 남달랐다. 문철은 기타
를 타며 노래를 지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흥이 나서 대원들과 함께 한바탕 어깨춤을 추
고난 중대장은 차칸 한쪽구석 문턱앞에 앉아 무
슨 글을 쓰고있었다. 한참 쓰다가는 생각하고 또
쓰다가는 즐겁게 노래부르는 대원들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한껏 기쁨이 어리고있었다.

《차굴 통과!》

갑자기 인형이의 쩌랑쩌랑한 목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노래소리가 푹 끊어졌다. 마침내 기차가
차굴을 빠져나오는것이였다.

문철은 기분 좋게 차창을 활짝 열어제꼈다. 황
혼에 묻힌 산기슭언덕이 시야에 펼쳐지였다. 그
이슬이 반짝이는 풀밭으로 양떼가 구름처럼 흐른
다.

《명호동무! 양몰이쳐녀입니다.》

인형이가 차굴같은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웨쳤
다.

《어디어디...》

풀밭어귀를 허둥거리던 명호의 눈길이 빨간 머
리수건을 흔들고있는 처녀에게로 질주했다.

《옥희동무! -》

명호는 차창밖으로 몸을 쑥 내밀며 소리쳤다.

《나요! -》

《어마나!》

처녀는 깜짝 놀란다.

《또 왔소!》

《3 일후에 온다더니 벌써 와요?》

《우린 돌격대가 아니요. 3 일동안에 할 일을 하
루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했단말이요.》

《3 일에 할 일을 하루에?!》

처녀는 봉긋이 부푼 가슴에 손을 모아잡으며
탄복을 금치 못한다.

문철은 자기도 모르게 궁지와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옥희동무! 또 만나지요! -》

《언제요?》

처녀는 뭐라고 안타까이 소리쳤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거리가 점점 멀어졌던것이다. 이제
는 처녀의 빨간 머리수건이 하나의 점으로 보였

다.

《동문 어느새 처녀의 이름을 알아냈어?》

문철은 하도 이상해서 물었다.

《아까 낚시군로인한테서...》

명호는 시뭇히 웃으며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갔다.

《아! -》

그제서야 문철은 무릎을 쳤다. 그 로인이 리평에서 왔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하여튼 <소식통>이 다르긴 달라! ...》

《하하하...》

차판에 웃음이 넘친다. 영복이도 한쪽 금이발을 반짝거리며 대원들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본다.

공사차는 래일의 기적을 약속하듯 해저물기 시작하는 대지우를 줄기차게 달린다. 또 하루가 지나간다. 돌격대원들의 평범한 하루가...

아버지 모습

리금녀

우리 아버지가 떠나다니

평양의 대회장으로

정녕 꿈만같아

믿어지지 않아요

밥상에 마주앉았다가도 기적소리 나면

버릇처럼 창가에 다가섰어요

어디서 떠난 차라고

짐은 얼마나 실었다고

손금보듯 환한 아버지의 마음

철길우에 렬차와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하루도 번진적 없었어요

철길 보살피는 일

비 오나 눈이 오나

침목을 손질하는 일

한생을 선로감시원으로

살아온 아버지

산아래며

벼랑끝 철길에만 가있어

철다리에만 가있어

눈여겨보는데 없이 말 나눈이 별로 없이

아버지의 한생은 이대로 마쳤을수도 있었으련만

아 어떻게 아셨을가

어떻게 다 보고계셨을가

온 나라를 돌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름도 없이 해놓은 일 크게 없는

우리 아버지를

조약돌 하나 흘러내려도

제자리에 고이고야 걸음 옮긴 그 정성

한밤중 보슬비 내려도

로반에 나와 살피고야

시름놓던 그 진정

아버지의 하루하루

그 걸음걸음을 다 지켜보시고

이런 동무가 숨은 공로자라고

이런 동무가 있어

우리 렬차들이 정시 무사고로 달린다고

그토록 믿음에 넘쳐 치하하시고

대회에까지 불러주신 뜨거운 은정이여

식구들이 따라서고

온 마을이 떨쳐나서

아버지를 바래우는 이 아침

늘 보던 아버지건만 처음 보는듯

눈시울 뜨거이 보고 다시 보게 되는

그 모습

숲에 가리워 산에 가리워

보이지 않던 아버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 내세워주시어

오늘은 어떤 산도 숲도

뒤로 물러서나니

따사로운 그 은정에 받들려

인제는 온 나라가 다 알게 되고

온 나라가 다 보게 된

우리 아버지의 장한 모습이며

지배인의 대답 외 1편

백일호

굴진마구리를 돌아
채굴장을 돌아
조쇄장확장공사장을 돌아
공무직장생산협의회를 연
지배인을 찾아
전화가 왔다

그자신이
착암수로부터
갱장으로
지배인으로
세월과 함께 자라온
바로 그 금산갱에서

- 지배인동지
여기 실정이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레루가 걸렸습시다
굴길이 갈래 많고
채굴장이 넓다고
그 목소리를 모르라
성미 결절한 소대장을
눈앞에 보며
대답은 간단했다

- 그래 알지
알아도 잘 알지
헌데 그것은 벌써 가있소
한해전에 폐쇄시킨
그 우측 마구리에 가봤소?

잠간 얼퍼름해진 모양인지
정말 그리로 달려갔는지
이윽도록
수화기만 뽕뽕거릴 뿐...

얼마후
마구 뛰어오며 울린 발자국소리인듯
기쁜 목소리가
책상을 두드리듯 울려왔다
- 지배인동지,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때 미처 옮겨오지 못한게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다 들리도록 울려오는
그 말을 들으며
지배인의 얼굴엔 웃음이 불그래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더욱 좋구나

- 여보, 소대장동무
손을 내밀기전에
제발밀을 볼줄 알아야지 .
그래야 제발로 걷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수 있지 않소
알겠소? 하하하...

보화의 땅속같이 웅심깊은
광부의 가슴속을 먼저 볼줄 아는
지배인의 호탕한 그 웃음을
키를 솟구며 듣고있었다
온 백금산이

분노의 시

나는 광부 시인
지우며 썼네
열정을 떨치는 착암소리도
지구를 흔들어보는
대발파의 동음도

허지만
내 신천에 와
피에 절은

못을 보고 쓴 시
고쳐쓰고싶지 않았네

드문히 글줄마다
거치른것 있어도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증오가 분노가
그속에 재워져있기에

초병의 서정

김기호

짜르릉 짜광—
하늘이 무너지는가
땅이 꺼지는가
우뢰울고 번개치는 초소의 밤

쓰러질듯 갈대숲은 설레이고
못짐승들 겁에 질려 울부짖어도
총을 쏜 나의 가슴
나의 눈동자
순간도 흔들릴 줄 모른다

이런 날 이런 밤이면
가슴을 조이며
내 어린 꿈을 지켜 잠 못들던
어머니의 그 품은
천리런가 만리런가 머나먼곳

여기엔 없다
힘겨운 등산길에 부추겨주던
벗들의 다정한 손길도
산수문제 풀이를 지켜보던
너선생의 그윽한 눈길도

높뛰는 가슴에
지그시 땅을 끌어안으며
평양하늘 우러르노라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마음속에 비쳐오는 당중앙 불빛

그 품이여라
여기가 전조선
조국을 지키는 첫자리라고
이 병사를 세워주고

홀로 선 이밤도
나와 함께 잠 못드는것은

보통병사 이 가슴에
다정한 벗들과
정든 고향사람들의 당부
온 조국이 바라는 기대를
하나의 총창으로 안겨준 당이여!

그 믿음이 없다면
총창이란 무엇
심장이란 무엇
그 믿음이 있어
뢰성도 나의 노래
번개도 나의 기상

하늘땅이 울부짖어도
나의 신념 흔들림없고
천만원췌 덤벼 덤벼들어도
나의 총창 꺾일줄 모르나니

때가 되면
저 번개발 한손에 잡아
그대로 총창에 꽂고
저 뢰성을 한가슴에 재워
원췌의 머리에 터치리라

아, 나는 당의 전초병
한몸 성세되고 방패되어
크나큰 그 믿음을 지켜가노라
이밤도 초소를 지켜가노라

아이 이름짓는 마음

최상희

자식의 앞날을 바라는 마음이어서
이름짓기 이리도 힘든것인가
어떻게 지으면
한생은 짧았어도
우리 수령님 아시는 전사들의 이름처럼

영광의 절정우에 빛날수 있으랴
내 이제 짓는 아이이름은
출생중에 법으로 포박포박 씌여지리

자라는 세월따라 그 이름을
유치원 너선생이 상냥하게 불러주고

소년단에 입단하는 선서명단에도
저녁마다 사관장이 대렬앞에서 부르는
군공많은 중대의 점검대렬명단에도
아니면 국장찍힌 대학졸업증에도
이름은 또렷이 적힐수 있으리니

그 한자한자에 뜻을 담자니
이름짓기 정녕 험치 않건만
뜻과 같이 키우기는 더 험치 않으리

아름다운 꽃도 잘 가꾸지 않는다면
꽃은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말듯이
뜻있는 이름 가졌어도
잘 키우지 않는다면
집울타리 안에서만 불리워지는 이름되리

정의를 위해서는 사심이 없고

혁명을 위해서는 목숨 아낄 줄 모른다면
모래알같이 흔하고
많은 이름들가운데서도
수령님은 내가 지은 그 이름을
보석 다루듯 귀하게 골라내시여
불러도 보시고
자랑도 해주시려니

아 아이이름은 한순간에 지울수 있어도
이름이 사람을 빛내이지 않아라
위훈이 이름을 빛내이나니

쇠물아, 너는...

김경찬

쇠물아, 언제부터 내 희망
너에게 깃들기 시작했느냐

소고를 울리며 용해공들 축하하던
소년단 그 시절인가
아동궁전 자연소조 실험실에서
광석표본을 익히던 그때인가
군대가는 형님께 배낭을 안겨줄 땐
과학자가 되고픈 생각

쇠물아, 언제부터 내 희망
너에게 깃들기 시작했느냐

제대배낭 메고 돌아온 형님
대를 이어 용해장에 세워줄 때
한생을 쇠물과 함께 살아온
아버지 그 이야기 듣던 겨울밤인가

아, 건국의 나날
5.1 절 시위대렬도
첫자리는 용해공들
화려한 집을 세워줄
사랑의 훈장을 주어도
첫자리는 용해공들

그래서 용해공은
영광도 첫자리
행복도 첫자리
진정 그래서였던가 쇠물아

내 희망 너에게 깃들기 시작한것은

아니여라
명예도 첫자리
내세워도 첫자리
그것을 바래서였다면
조국은 신성한 쇠물앞에 설 자리
나에게 주지도 않았으리

시련의 나날
우리 수령님 결심을 내리실 때도
용해공들 먼저 찾아주시고
행복한 나날
우리 당 휘황한 설계 펼칠 때도
쇠물부터 먼저 헤아리거니

아, 아
우리 수령님 믿음의 첫자리에
우리 당 설계도의 첫자리에
쇠물, 쇠물아 네가 있어
너의 귀중함을 깨달은
그 나날들이었다
내 희망 너에게 깃들기 시작한것은

그래서 쇠물아, 너는
우주를 준대도 아니 바꿀
네 희망의 영원한 첫자리
내 충성의 영원한 첫자리

한 당일군의 모습

리의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의 당일군들은 누구나 다 사회와 집단앞에서 생활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쓴다.

여기에 바로 그런 당일군이 있다.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내가 만난 황해남도청년건설려단 재령대대 정치지도원 김세환동무는 사람들을 믿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다심한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이끌어주고있는 당일군의 한 사람이다.

그에 대하여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몇가지만 적으려고 한다.

1. 필요한 사람

대대장 김응룡은 두툼하게 담배를 말아물고 라타를 찾느라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한참이나 뒤져냈다. 그에게는 가끔가다 여러대의 담배를 까

서 엄지손가락만하게 말아피우는 버릇이 있었다.

대체로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면 그의 두손가락째에서 이런 《굴뚝담배》를 자주 볼수 있었다.

공병출신제대군관이고 건설물계에 들어서는 려단안의 대대장들치고 단연 1인자다. 모두들 그를 가리켜 《불도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억척스레 일을 밀고나가는데서 받은 영예로운 별명이었다.

아닌게아니라 려단이 말은 30층살림집의 기초공사를 할 때 대대는 정말 불도젤처럼 일을 제겼다. 대대장이 억대우모양으로 내밀기만하는 성격이다보니 소대장으로부러 분대장, 아니 온 대대가 자기 지휘관을 닮게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골조공사가 한창일 때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실적이 그전같지 못했던것이다. 그것은 바로 새로 뽑은 자갈투성이의 대통로를 따라 만경대갈림길쪽으로 가는 사람이면 누구나다 볼수

있는 길옆에 세운 대형경쟁도표판이 그대로 말해 주고있었다. 20여개나 되는 대대들이 서로 키돋음을 하고있는데 대대는 의연히 3등권안에서 더치

달아오르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한때는 그렇게도 용맹하게 종횡무진하던 《불도젤》이 커다란 돌뿌리에 걸려 헛바퀴질만하고있는것이였다.

(정치지도원은 왜 아직 올라오지 않는가? ...)

응룡대대장은 며칠전에 군에 내려간 정치지도원 김세환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였다. 지금 앞선 대대들을 보면 정치일군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이였다.

정치지도원들이 두팔을 걷어붙이고 대문짝만큼씩 큰 전투속보를 써서 내다붙이는가 하면 작업장에서 주먹을 부르짖고 즉흥적인 선동연설을 하기도 했다.

전투에 북소리를 앞세우는것이 얼마나 위력한가.

그전날 군사지휘관이였던 응룡은 정치사업이 가지는 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대대가 갓 조직된 어느날 정치지도원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그저 뒤에서 북만 크게 울려주십시오. 일선엔 제가 서겠습니다.》

한데 대대장의 이 기대는 며칠 안가서 허물어지고 말았다.

정치지도원은 권고개가 훨씬 넘은 나이닷인지 위낙 성품이 잔잔한 사람이여서 그런지 대원들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침시간마다 선동원 최선옥을 시켜 신문독보를 하게 하고는 자기는 필요한 말만 그것도 극히 압축해서 몇마디 하는것이 고작이였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개력도 있는것 같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30년가까이 당사업을 해오고있는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대대가 앓은 방아를 찧고 있는 지금에조차 앞에서 소리치며 대오를 이끌어 나갈대신 증기밥가마를 만든다 어쩐다 하며 소일거리에 신경을 쓰고있는 사실이였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자는건가?)

대대장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정치지도원의 존재가 너무나도 미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

응룡은 아래웃주머니를 몽땅 뒤지다가 한참만 예야 담배종이를 찢어낸 종이장 밑에서 라이타를 찾아 불을 켜댔다. 이때 뜻밖에 배낭을 진 정치지도원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지금 오는 길입니까?》

《인차 돌아선다는게 그만...》

대대장은 정치지도원에서 배낭을 받아들다가 몸을 휘청거렸다. 쇠붙이들이 들어있는 배낭은 엄청나게 무거웠다.

《아니 이견 어디에 쓸겁니까?》

대대장은 배낭에 들어있는 양수기부속품들과 공구를 가리키며 물었다.

《수도를 놓자고 그러오, 저 길아래컨 로반열으로 지하수가 지나갔는데 거기다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퍼올리면 물문제는 풀릴것 같습니다. 전투원들이 시원하게 머리로 감고 목욕도 자주 하면 몸이 거뜬해서 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더우기 대대엔 파반수가 녀성동무들인데 지금처럼 물을 자동차로 실어다가야 그들이 어떻게 빨래인들 깨끗이 해입겠습니까.》

대대장은 아연해졌다. 정치지도원은 역시 《소일거리》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던것이구나!

《지금이 어디 그런 사소한 생활조건을 놓고 타발할 때입니까? 불편해두 참아야지요. 그보다도 정치지도원동문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대대장은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것을 겨우 참았다.

그런데 수도공사가 끝난 며칠후에 대대장을 아연케 하는 일이 또 생겼다.

려단참모회의에서 돌아오던 김응룡은 식당결에서 흙구덩이를 파고있는 전투원들을 보고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웬일이요?》

《대대장동지, 소대는 파외작업으로 지금 <지하목장>을 건설하구있는중입니다.》

1 소대장 최동산이 익살을 부렸다.

《지하목장이라구?!》

《옛, 말그대로 땅속에 짓는 목장이지요. 우린 1소대와 경쟁을 하구있습니다.》

이번에는 2소대장 박필선이 대답했다.

그러자 웃음판이 터졌다.

대대장은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지하목장》이란 바로 정치지도원이 생각해낸 지하식돼지우리

였다. 언제인가 김세환이 대대장에게 대대자체로 돼지를 길러 고기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말한바있었다.

새끼돼지를 계단식으로 한 20 여마리만 기르면 전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고기를 먹일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쟀장, 대대가 부업작업반인가?)

그때 그는 속이 울끈했으나 입안에서 삭이였다. 어쨌든 정치지도원의 의견이 아닌가. 그는 달갑지 않았으나 《그럼시다》 하고 선선히 대답해버렸다. 그리고는 그 생각을 까맣게 잊고있었다.

한데 정치지도원은 또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돼지우리 문짝을 짤다, 구유를 만든다 하며 그 일에 여념없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소일거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있는가?)

대대장은 정치지도원이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그의 이런 생각은 뒤집혀지고말았었다.

어느날 현장을 돌아보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던 대대장은 녀성호실앞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안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도간도간 흘러나오고있었던것이다.

《우리 대대장은 그저 <돌격앞으로>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정치지도원동진 그렇지 않아. 인정두 많구 생각이 깊구...정치지도원동지가 없으면 집안이 텅 빈것처럼 허전한게 참 이상하거든...》

《그러게말이야, 대대가 요즘 또다시 실적을 올리기 시작한것두 실은 정치지도원동지때문이지 뭐겠니?》

처녀들은 두 지휘관을 저울판우에 올려놓고 경중을 가리는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대대장은 무엇엔가 정수리를 한데 얻어맞은듯했다. 정치지도원은 평소에 말수가 적고 잔잔한 사람이지만 대원들의 마음은 그에게로 쏠리고있었던것이다.

어느 일요일에 대대에서는 어은동혁명사적지견학을 조직했다. 만경대를 뒤에 두고 대동강을 거슬러 패속으로 달리는 유람선우에서 전투원들은 신명나서 노래를 불렀다. 이윽하여 배에서는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맨처음으로 정치지도원이 지목되였다.

(저 사람이 꽤 독창을 해내겠는가?) . 대대장은 마치 자기가 지명을 당한것 같은 심정으로 정치지도원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김세환은 스스로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 노래도 썩 잘 불렀다. 박수소리와 《재청!》소리가 배안을 들었다놓았는 데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아니, 저런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여 지금껏 전투원들앞에 나서서 선동연설 한마디 하지 않았는가.)

견학을 마치고 돌아온날 밤 두 지휘관은 어둠 속을 거닐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치지도원동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군요.》

대대장의 말에 정치지도원은 빙그레 웃었다. 그 말의 의미를 너무도 깊이 알고있었던것이다.

《대대장동무, 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추억을 간직하고있는데 들어보겠습니까?》

한발자국 앞섰던 정치지도원이 대대장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난 어렸을적에 아버지를 몹시 두려워했지요. 아버지는 원래 별목공이었는데 하루는 내가 아버지의 고불통(담배통)을 몰래 꺼내가지고 장난하다가 그만 잃어버렸단 말이요. 무서운 곤경을 치러야 할 생각으로 잠을 못들고 누워있는데 글썽 밤늦게 돌아온 아버지는 내가 자는줄로만 알고 엉마를 들치고 투박한 손으로 내 엉덩이를 두들겨주더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엄엄하게 굴다가도 내가 잠든 다음에는 이런다는걸 나는 펄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지휘관들은 전투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한 애정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장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정치지도원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는 소일거리를 만지면서도 큰일을 하고있는 사람이였다.

자식들에게 바로 그런 부모가 있어야하듯이 전투원들에겐 정치지도원과 같은 지휘관이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했다.

그렇다! 정치지도원은 참말로 필요한 사람이였다!

2. 굴 이야기

정치지도원 김세환에게는 병식에 누운 사람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약이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볼수도 없는 특수한 약이다.

광복거리 8 호구획의 30 층살림집 골조공사가

16 층계선을 넘어서고있던 때였다.

한층분의 층막휘틀로 공사속도를 배이상으로 올릴 새 공법을 시험하던 현장기사 문충서가 독감기에 걸려 갑자기 쓰러졌다. 40 도나 오르는 고열, 눈을 뜰수 없는 두통으로 하여 그는 꼼짝 못하고 병실에서 신음소리를 내고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대장 응룡의 가슴은 부글부글했다.

(젠장, 긴장한 대목에서 거꾸러지다니.)

사실 이번 시험만 성공하면 대대의 실적은 두 배로 정충 뛰어오르게 된다.

그래서 응룡대대장은 문충서가 요구하는대로 로력과 설비들을 아낌없이 들이밀고있던터였다. 그러던 그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쓰러졌다고 생각하니 육한 성미가 다시금 머리를 들었다.

《그래 열이 몹시 나오?》

방안에 들어선 대대장은 선자리에서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환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머리가 마구 쭈서대겠지? 걱정 마오. 독감기라니까 며칠 휴식하면 낫겠지. 이제부터는 꼼짝 말고 누워있기만하오.》

그는 방안에 널려진 도면들이며 연필, 자, 등속들을 걸어가다 한쪽에 무쳐놓고 형하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식당에 들러 환자에게 입에 맞는 음식을 해주라고 일렀다.

이튿날 출장갔던 정치지도원이 돌아왔다. 그는 현장기사가 앓는다는 소식을 듣자 그달음으로 침실에 찾아왔다.

정치지도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러 들어오던 대대장은 현장기사의 이마를 짚어보는 김세환과 눈길이 마주쳤다.

《이것보십시오. 몸이 불덩이같구만요. 입술이 다 이렇게 갈라터지고...》

《그래서 며칠간 그저 푹 쉬라고 했습니다.》

대대장은 주땃거렸다.

《그런데 푹 쉬다구 쉽사리 일어날것 같진 못합니다. 무엇이든 좀 먹여야지.》

세환은 한열에 그대로 놓여있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때 주방책임자 오금희가 쟁반에 여러가지 식찬과 죽그릇을 담아들고 나타났다. 그가 내려놓는 죽그릇을 이윽히 바라보던 정치지도원이 말했다.

《주방장동무. 기사동무의 입술을 좀 보오. 저렇게 갈라터졌는데 죽을 어떻게 떠넣겠소. 미음을 쭈어오우, 미음을...》

얼마후 미음을 쭈어오자 세환은 도리머리질하

는 문충서를 마치 어머니가 아이달래듯하며 그의 입에 떠넣어주기 시작했다. 이윽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대대장에게 시내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그날저녁 작업총화를 짓고 문충서의 방에 들어서던 대대장은 환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어느때인데 이렇게 소담하고 먹음직스러운 굴이 생겨났는가.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쪽 그릇엔 굴껍질과 즙을 짜낸 찌끼가 담겨있었다. 뒤미처 들어온 오금희가 정치지도원이 굴을 가져다 기사동무에게 즙을 짜 먹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지도원이 굴을?!)

문득 그의 눈앞에는 설명절때 굴을 공급받고 기뻐하던 정치지도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책우에 수독히 쌓였던 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일이 상기되었다.

대대장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진귀하고 맛있는 것일수록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그 심정을 바로 이 한접시의 굴에서 읽고 또 읽었던 것이다.

이튿날 현장기사 문충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새 공법의 마지막 시험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3. 지휘관의 위치

광복거리 8 호구획에 일떠서는 30 층살림집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대대는 려단의 선두에서 전진했다.

건설장은 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 기록영화촬영가들, 텔레비존기자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들었다.

대대장 김웅룡은 이즈음엔 《굴뚝담배》를 말아 피울 사이도 없다. 하긴 이제와서 그럴 필요가 없어 졌다. 타입공사에서 이 《불도젤》부대는 다 시금 본때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대장은 기록영화란 일하는 모습들을 그저 돌아가며 찍으면 되는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거기에다 연출가가 있었다.

《지휘장면을 먼저 찍어야겠는데 대대장동무는 이쪽 앞줄로 나오십시오. 가만, 또 누구 지휘일군이 없습니까?》

연출가의 물음에 대대장이 성급하게 대답했다.

《있지요. 우리 정치지도원동무가 있습니다.》

대대장은 정치지도원을 찾느라고 작업장을 빙 둘러보았다. 그런데 방금전까지 전투원들과 함께 다짐봉을 찢고있던 세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치지도동무가 어디 갔소?》

이때 아래층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휘틀에 구멍이 났다!》

그 소리에 모두들 타입장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갔다.

《동무들, 휘틀밑에 구멍이 났소. 빨리 저 구멍을 막소!》

목소리의 임자는 다름아닌 김세환이었다.

그는 온몸이 몰탈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어깨로 콩크리트혼합물이 쏟아져나오는 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정치지도원동지!》

전투원들이 달려가 저마다 어깨를 들이밀었다.

《정치지도원동지, 위험합니다. 빨리 비키십시오.》

사태는 위급했다. 차끼봉이 휘여 금방 타입한 몰탈이 팔팔 밀려나오는게 이대로 몇분만 지나면 벽체가 내려앉을수 있었다.

《정치지도원동무, 구멍은 내가 막겠소!》

웅룡은 숨저고리를 벗어 말아안고 김세환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정치지도원은 그를 떠밀었다.

《대대장동무, 여긴 동무가 설 위치가 아닙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대장은 위기일발의 이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소대장들을 불렀다.

《1 소대, 빨리 립시휘틀을 만드시오.》

《알았습니다!》

1 소대장 최동산이 대답하고 번개같이 달려갔다.

《2 소대는 받침목과 쇠기둥을 날라오시오!》

순식간에 긴급대책이 세워졌다.

전투원들은 불일듯이 달려다. 판자들과 받침목을 메어나르고 한쪽에선 휘틀에 못을 박았다. 이윽고 립시휘틀이 만들어지자 그것으로 몰탈이 밀려나오는 구멍에 대고 쇠기둥과 받침목들을 번치였다.

긴장한 전투끝에 위기는 지나갔다.

대대장은 정치지도원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다.

《정치지도원동무가 아니였더라면 정말 큰일난 뻔했습니다.》

《대대장동무가 더 큰 역할을 했지요. 이번 사태에서 지휘관이 자기가 설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정치지도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날 기록영화촬영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세환은 대대장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대대장동무는 대대에서 우리 지휘관들이 서야
할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거야 두말할것 있습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모퉁이지요.》

세환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난 우리 지휘관들은 언제나 전투원들속에, 그
들의 마음속에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
격구령을 내릴 때 그들의 심장에 지휘관의 마음
이 자리잡지 못했다면 대오는 결사전으로 나가지
못하지요.》

대대장은 감동되었다.

결국 정치지도원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살고있
는 사람이 아닌가.

용해공이 불을 다루어 강철을 버려내듯이 정치
일군은 인간의 심장을 다루어 의지와 신념을 키
워주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같지만 정
치지도원은 가슴속에 불을 안고있으며 열정의 태
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헤아릴수 없는 충성의 열
도로 수많은 심장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그 열정의 힘이 심장과 심장들
을 녹여 대대를 하나의 강철같은 집단으로 키워
나가고있는것이였다.

새 비날론이 쏟아진다

황송명

얼마나 그리던 이날인가
온 나라가 소리쳐 일어서며
기쁨에 설레이는듯
방사직장 넓은 구내에
터지는 환호소리 만세소리
-비날론이 쏟아진다!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아도
정말로 쏟아지구나
신비로운 전설같이
밤마다 꿈속에 어리던
순천의 새 비날론이

누가 말했던가
정성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안아보고 만져보며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동무들이
기쁠 때면 이야기도 많더니
어쩌면 그리도 말이 없느냐

련포벌을 감돌아흐르며
기슭에 철썩이는 대동강아
네가 말하여다오
어떻게 강변에 덩굴던 그 모래알도
비날론공장의 기둥으로 솟았느냐

아 조선의 몸에 주체공업의 새 옷자락인양

비날론 무지개를 피워보시며
오래오래 이 강변을 거니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가

그 사랑으로 뜨겁고
그 믿음으로 높뛰는 심장을 안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위훈을 세운
그 젊은이도 여기에 있구나
교대와 교대를 이으며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천년을 전해도
만년을 전해도 못다 전할
하많은 사연을 안고
또하나의 기적 또하나의 승리를
온 세상에 떨치며
너무도 가슴 벅차
이런 날 말을 못다 한들 어떠랴

온 나라가 듣는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것을 안고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끝없는 행복을 속삭이는 소리
-비날론이 쏟아진다
순천의 새 비날론이!

시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개인시집들을 펼치고-

류만

시인들의 개인시집을 읽는것은 마치도 생활에서 새 친구를 사귀는것과 같다고 할가. 그렇게 반갑고 의의있는 일이다.

독자들은 시인의 고심과 탐구의 자취가 있는 그래서 시인의 얼굴이 있고 체취가 풍기는 그런 시집을 좋아하며 또 요구한다.

시인이 진정으로 창작적개성이 산 이런 좋은 시집을 내자면 자신이 시인으로서의 자기를 잘 알뿐 아니라 특히 독자들이 본 자기자신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어떤 시인들은 시집까지 냈으니 자기에게는 개성이 뚜렷하다고 자부할수 있지만 독자들이 보건대는 다르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시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개성적특성과 독자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시인들로 하여금 독자들이 본 자신을 잘 아는것이 개성적면모를 바로잡고 편마해나가는데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런 견지에서 나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시집을 펼치고 시인의 개성과 관련하여 생각되는 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

시인 김상오는 서정시 《나의 조국》으로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이 시인의 대표작일뿐아니라 당의 령도밑에 새롭게 발전한 우리 시문학의 성과를 과시하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아마도 시인이 자기의 시집 제목을 《나의 조국》이라고 단것은 이러한 사정과도 관련되리라고 짐작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정시 《나의 조국》을 잘 썼다고 하시면서 이 시에서는 조국을 노래하면서 정치적표현을 많이 쓰고 사상을 지내 로출시키던 지난 시기의 결함을 극복하고 시형상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흘러넘치고있다고 하시였다.

구체적인 생활감정에 대한 진실한 시적형상, 이것은 서정시 《나의 조국》의 성과를 담보한 요인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시집 《나의 조국》의 시작품들을 관통하고있는 기본특징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의 조국》이라는 시집의 제목은 시인의 개성적면모를 특징지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시인은 이 시집을 내기전에 세권의 시집을 냈다. 평화적건설시기에 나온 첫 시집 《우리의 날》은 아직은 시인의 개성적면모를 뚜렷이 엿볼수 없으나 거기에는 현실공정의 기백이 열정적으로 울리고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그 근처에는 생활의 진실에 대한 진지한 추구가 안반침되어있었다. 시인은 전쟁시기의 시집 《증오의 불길》을 거쳐 전후시기에 시집 《아름다운 기슭》을 냈다.

《아름다운 기슭》은 이미 《우리의 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시인의 개성적인 면모가 틀잡힌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집이였다.

우리는 이 시집에서 시집 《나의 조국》의 시적정서, 서정의 세계를 보며 《나의 조국》에서와 같은 그런 시적억양과 격조, 툴동을 느낀다. 《소원》, 《아름다운 기슭》을 비롯한 《소원》의 편에 실린 시들과 《농장의 봄》편에 실린 시들의 세계는 생활에 대한 환희와 랑만으로 끓고있으며 생활의 아름다움으로 진하게 채색되어있다.

시인의 이런 시세계가 시집 《나의 조국》에서 보다 원숙하게 나타났다.

시집 《나의 조국》을 읽으면 시인 김상오는 그 누구보다도 생활의 시인, 진정의 시인이라는것이 대번에 알린다.

그의 시들에는 그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 없다. 반면에 시에는 세태적이다할 정도의 그런 느낌, 감정세계까지 날날이 드러나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고상함과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진심이며 마음의 심정에서 울려나오는 뜨거운 사상과 열정의 울림이며 누구나의 심장에 새롭고 강한 정서적충격을 안겨주는 여운있는 메아리인것으로 하여 그 진정의 가치는 크고 심원하다.

이것은 그가 쓰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은 진실을 추구하는것이며 작가는 언제나 현실을 미화분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신조로 삼고 걸어》(시집 《나의 조국》의 머리말에서)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결실이다.

생활적인 진실, 진정은 그의 모든 시작품들에 뜨겁게 격동하고있다.

그의 시집에서 유난한 빛을 뿌리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의 정을 노래하는것은 우리 시문학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지만 이 시인에게 고유한 생활의 진실, 진정에 대한 추구로 하여 감사의 정을 노래한 그의 시들은 류다른

향기를 풍긴다.

…고요히 깊어가는 밤, 수도의 거리는 이미 잠들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배려하여주신 70 뿔 생일상을 받아안은 시인은 진정할수 없는 가슴을 안고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든다.

남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온 그로서 이 격동적인 순간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감사… 그렇다. 이런 순간에 흔히 쓰이는 감사라는 좋은 말이 있다. 그러나 벗들과 동지들에게도, 스승과 어머니에게도 써온 그런 말로써 이밤 시인의 심정을 표현하기엔 도저히 성차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그의 심장에 간직된 진정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었다.

하여 그는 자기의 심장이 가리키는 그대로 진정의 말을 뿜어올린다.

아 드디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러한 말이 없다는것을
…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말 아닌 높이 뛰는 심장만이
그러한 뜨거움을 지닐수 있다는것을
당이 준 심장
당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을 받아
그 뜨거운 피로 뛰는 심장만이
이 뜨거운 감사의 정을
지닐수 있다는것을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저의 이 심장을 바치읍니다
대를 이어 충성으로 보답할 한마음으로
높이높이 뛰는 이 심장으로
감사의 큰절을 드리옵니다

그렇다. 오직 당에 의하여 키워지고 높뛰는 심장만이 그 감동적인 순간의 심정을 대변할수 있는것이다. 하여 시인은 그 어떤 백마디, 천마디의 화려한 말이 아닌 심장을 고스란히 당에 바친다.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진정에 넘치는가. 남다른 인생의 체험이 깊은 시인 말고 또 누가 이렇게 심장을 바치듯 그렇게 진정을 노래할수 있을것인가.

이런것으로 하여 그의 시들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감정은 지극한 효성에 안받침된 참으로 친근하고 다정한 정시로 뜨겁게 심장에 젖어든다. 이것은 시인이 뜨겁게 느낀것을 느낀 그대로 가식없이 진실하게 진정을 담아 노래하였기때문에 도달할수 있는 시세계의 높이라고 말할수 있다.

생활의 시인, 진정의 시인으로서의 이 시인의

개성적인 면모는 당과 수령을 노래한 시에서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노래한 시에서도 특색있게 나타났다.

어느면에서 보면 그의 시는 어떤 경우엔 너무 세태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엔 즉흥적이라고 느껴질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들을 읽고 세태성과 즉흥에 대하여 나무람할대신에 생활의 환희와 기쁨, 만족과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하여 흐뭇이 느끼며 시대정신을 량만적정서로 감수하게 되는것은 시인이 그 생활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느낀 시대의 숨결과 정신, 맥박들을 바로 그 생활자체로서 진실하게 노래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평양시초》와 《고향시초》, 《생활시편들》 편에 들어있는 작품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고향시초》에 들어있는 《사촌형님》은 생활적인 시인, 진정의 시인으로서의 이 시인의 고유한 체취를 강하게 특색있게 느끼게 하는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다.

우리는 이 시에서 농장세포비서사업을 30 년 하고 둘러앉은 팔손에 난 사촌형님과 동생의 감동적인 상봉을 보며 동생의 눈에 비쳐진 사촌형님의 뒹뒹과 생활을 본다. 아직은 누구도 노래하지 않은 그러나 흔히 있는 일상사이다.

시인은 마치도 고향에 갔던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사촌형님에 대하여 구수하게 엮어가고있다. 자칫하면 우리는 시를 읽는다가보다 구수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을 가진다.

그러나 그 생활속에서 시인이 다음과 같은것을 찾아내었을 때 독자들의 심장의 박동은 얼마나 높뛰고 감정은 또 얼마나 숭엄해지는가.

빈 방에 홀로 앉아 휘둘러본다
수령님 굽어보시는 맞은편 벽에
손수 만든 소박한 서가, 가득한 책
저작집, 교시집, 문헌, 말씀집 그외에도
정치지식, 과학지식, 세계상식
정성껏 간수한 당보철…

팔손에 난 형님이 나간 농가의 빈방에서
우리 당이 숨쉬고있다, 움직이고있다
그 심장의 박동이
그대로 여기서 맥박치고있다

나는 생각에 잠긴다. 이런 일 그리 흔할가?
아니, 우리 나라방방곡곡 어디나 다 그럴거야
우리 당은 바로 이런 당인걸…

여기에는 말로는 다 헤아릴수 없는 그런 숭고한 것이 있다. 하여 우리는 팔손에 난 형님과 동생

의 감격적인 상봉과 소박한 술상을 보면서 느끼던 흐뭇한 감정을 안고 그 생활속에 간직된 인간 정신의 숭고한 높이를 우리르게 되는것이다. 그 높이는 바로 시에서 노래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지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곳이나 또 팔순에 이른 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곳에, 모든 사람의 심장에, 정신에 뿌리내리고 숨쉬는 당의 숨결인것이다.

팔순에 난 형님과 동생의 상봉에 대한 생활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높은곳에 이르렀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평범하게 스쳐지나는 일상사에도 시대의 거대한 숨결이 약동하고있음을 새삼스럽게, 뜨겁게 느낀다. 생활의 시인으로서의 이 시인의 개성적인 면모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을 두고 생활의 시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면서도 그가 생활을 보고 그 미를 감수하는 높은 시인적 안목과 리상에 대하여 매번 시대정신과 결부시켜 그것도 시대정신의 숭고한 높이에서 이야기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촌형님》이외의 많은 시들도 다양한 생활감정의 진실로 하여 독자들의 흥벽을 강하게 두드린다.

시는 《평양시초》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는 자기가 살며 거니는 도시의 거리와 가로수, 다리에 대하여 노래하는가 하면 시초 《생활시편들》에서와 같이 안해와 손녀에 대하여 로년기와 인생에 대하여 노래하기도 하며 또 《우리 당》, 《나의 조국》, 《참된 삶이 탄생하는 집》 등에서와 같이 어머니 당과 조국, 고향에 대하여 그 변모와 파사로움에 대하여 노래하기도 한다. 이 시들에서 한결같이 느껴지는것 역시 생활감정의 진실이다.

그의 시에서의 생활감정의 진실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사랑과 애착,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 낭만과 결부되어있다.

그가 어떤 대상을 노래하든지 그의 시는 현실궁정의 열정이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한 찬양과 결부되어 웅심깊게 노래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시들을 읽으면 마음과 정신이 아름답게 정화되고 숭고한 경지에 이르며 우리 시대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는 숭엄하고 긍지높은 감정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

인간과 그 생활을 진정을 담아 노래하면서 거기에서 아름답고 숭고한 향취가 풍기게 하는데 이 시인의 시들의 독특한 예술적품위와 독창적인 면모의 또 한측면이 있는것이다.

시집 《나의 조국》을 읽으면서 느껴지는것은 또한 이 시인에게 있어서 생활의 진실, 감정의 진실의 개방은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시형상방식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시인에게서 특색있게 두드러지고있는 시적 사색과 환상을 주로 넘두에 두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색과 환상은 시창작에서 필수적인것이며 그것은 작품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시집 《나의 조국》을 읽으면 이 시인은 확실히 시적 사색과 환상에서 자기의 고유한 세계가 있으며 이것이 그의 시의 사상적, 정서적 심오성과 풍만성, 다양성을 담보해주는 바탕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많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생활과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생활의 변모에 대하여 류다른 감각으로 노래하는 시인이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대상을 노래하면서 결코 대상 그자체의 재현으로 시를 끝낸적은 한번도 없다. 반면에 대상은 대상으로 제시되고서는 사색과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시의 세계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많은 시들이 시인의 개성적면모를 특징지을수 있게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또 매 시마다는 특색있게 씌여지고있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시 《혁명박물관에서》를 보면 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며 실에서 실로 걸음 옮기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이 보일뿐 다음에는 밀림, 눈보라, 굶주림, 행군을 거친 조국으로의 진군길이 련상되면서 그것이 시인의 온 심장을 덥히는 불길로 승화되었으며 시 《나의 도시를》에서는 도시의 황홀경에 취한 시인의 모습이 비끼고는 인차 아이들, 친구들, 이역의 벗들, 남녘동포들, 먼 후대들과 거니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며 지어 원썬들에게까지 이 홀륭한 도시를 보여주고픈 충동과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노래되고있다. 또한 시 《옥류교》를 보면 금방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옥류교에 들어서 그 웅장함에 감탄하는 시인의 모습이 보이고는 어느새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의 힘과 아름다움에 대한 환희의 목소리와 함께 그 다리를 철이나 세멘트의 혼합체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붉디 붉은 의지로 감수하는 심오한 세계가 펼쳐지고있으며 시 《천리마동상에》에서는 천리마에 올라타고 《공산주의역》까지 날으는 시인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그의 시가 얼마나 폭넓고 자유분방한 사색과 환상의 나래를 펴고있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는것으로서 시적일반화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특히 별로 관심하지 않은듯하면서도 의미깊게 씌여진 결구로 하여 시의 사상정서적심오성과 철학적깊이는 한결 참신하고 숭고하게 느껴

진다.

물론 시집의 몇몇 시편들에서는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며 생각하게 하는 그런 충동이 덜하게 느껴 지는데 그런 시들을 보면 레외없이 시인이 다른 성공한 시에서와는 달리 자기의 고유한 체험 세계를 가지지 못하고 썼다는것이 알린다. 이것은 이 시인의 경우 생활의 시인, 진정의 시인으로서의 표상이 바로 그자신의 체험세계를 벗어날 때에는 벌써 인위적으로 꾸미는 현상을 발로시키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시인이 자기의 개성적면모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험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하면서 그 뜨거움을 계속 지속시켜나가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함께 시집의 일부 시들은 생활의 진실을 소박하게, 진지하게 추구한것은 좋았으나 어느면에서 보면 그에 집착하던 나머지 그 진실이 걸쳐야 할 《웃》이 품위있게 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 많은 경우 《사람》이 매혹적이어서 《웃》이 무시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매혹적인 《사람》일수록 《웃》까지 그에 따라서게 마련되였다면 그 미는 한결 둔구어졌을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인에게 운률에 대한 요구도 계속 내세우면서 보다 좋은 시창작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기를 부탁하고싶다.

시집 《나의 조국》에 실린 대부분 작품들이 시인이 로년기에 창작한 시라는것을 생각할 때 그의 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시인의 심장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진정인것으로 하여 그 이전의 시들보다 더 생활의 숨결이 높고 열정이 끓고있으며 청신하고 생신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맛을 준다. 이것은 이 시인의 시창작이 계속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더욱 굳게 해준다.

×

시집 《행복한 땅에서》를 읽으면서 먼저 생각되는것이 시인 오영재의 창작적개성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것이다. 하긴 1973 년에 나온 이 시집을 두고 오늘에 와서 시인에 대해서 말한다는것도 문제이지만 보다는 그의 시세계가 결코 그런 여지와 가능성을 주지 않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세계가 종잡을수 없다는것은 아니다. 매우 변화무쌍하고 다양다채롭기는 하지만 가만히 음미해보면 갈래많은 그 시들도 그에 관통하는 고유한 세계가 있다.

아마 우리 시단에서 이 시인만큼 시세계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시인적인 자질이 폭넓은 영역

에서 드러난 시인은 흔치않을것이다.

그의시집과 그 이후의 시들을 통털어 볼 때 그는 그 어느 시인보다도 시대에 자신을 부단히 따라세우면서 시대정신에 민감한 시인이다. 그에게는 당과 수령을 칭송한 송가작품도 있고 조국을 노래한 시도 있으며 창조적로동에 대한 시도 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시도 있다. 또 전쟁의 준엄한 격전장을 노래한 시도 있고 전후의 보람찬 병사생활을 노래한 시도 있으며 시대에 대하여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하여 사색을 펼친 시도 있다. 그런가 하면 매 시기 당이 제시한 정책적방침을 제때에 반영하여 창작된 전투적이며 호소적인 작품도 있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규탄의 감정을 토로한 작품도 있다.

특히 최근에 오면서 그의 시세계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감정을 폭넓게 일반화하는데로 지향된 특징을 보이고있는데 이 모든것은 이 시인의 시대정신에 대한 적극성, 민감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리고 시형상의 견지에서 볼 때 그의 시에는 서정시와 가사도 있고 정론시와 풍자시, 담시도 있으며 장시와 서정서사시도 있고 서사시도 있다. 또한 명상시, 기행시 등 다양한 양상적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그의 시세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형상 역시 시형식과 양상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있다고 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집 《행복한 땅에서》와 그 이후의 시들을 통하여 보여진 시인 오영재의 모습은 일반적인 견지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부단히 시창작을 따라세우면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시인적인 개성을 드러내는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이 시인의 시들을 통털어놓고 볼때 그의 얼굴은 크게 두 측면에서 두드러지고있다.

시집 《행복한 땅에서》와 그 이후의 시들을 통해서 시인 오영재는 무엇보다도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이며 량만적인 시인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전화의 나날에 병사생활의 소박한 첫 시들을 발표하면서 고심어린 탐구로 미지의 시세계를 뚫아 오던 그는 1963 년에 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를 통하여 마침내 자기의 시인적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할수 있다. 이 시는 우리 시단에 이채롭게 피여 난 한떨기 꽃인 동시에 시인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난 시였다.

이 시에서 시인은 우리 시대의 평범한 인간, 평범한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고상한 시인적안목과 함께 생활의 진실을 다감한 정서로 류다른

열정과 흥분, 낭만적색채로 노래하는 특기를 보여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데 있는것이다.》

정서는 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이다. 정서를 떠나서는 시를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굳이 시인 오염재를 두고 정서의 다정다감성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그의 시에서는 이것이 유난한 광채를 뿌리기때문이다.

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를 보면 독자들앞에 천리마시대 농촌의 그 어디에 가나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소박한 처녀가 서있는데도 어찌하여 그는 그리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높은곳에서 돋보이는것인가.

그것은 시인이 생김새와 옷가지, 일쭉씨와 생활에서 그 처녀의 보석같이 빛나는 정신의 아름다움을 보았기때문이다. 시인은 우리모두의 생김새와 다름없는 처녀의 수집음을 머금은 두눈, 누빈 숨저고리며 무지개빛 머리수건에서 그에 내비친 심장의 뜨거움, 로동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보았으며 마침내는 그를 시대의 높은 언덕에 내세웠다. 이것은 시인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에서 시를 감수할줄 알고 남다른 흥분을 간직하며 그것을 시대의 미학적리상으로 뽑어올릴줄 안다는것을 의미한다.

평범한것에서 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심장의 흥분된 느낌으로 다양하게 노래하는 여기에 이 시인의 시에서의 다정다감한 정서의 특징이 있다. 때문에 어떤 대상을 노래하던 그의 시에는 대상이 환기하는 정서와 시인의 심장의 박동, 호흡간에 간격이 없으며 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에서 보는바와같이 대상을 심장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을 다감한 정서로 다양하게 노래함으로써 언제나 대상이 간직한 정서적특성을 깊은 뜻을 담아 생활의 정서로, 시적정서로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노래하고있는것이 느껴진다.

이 시에 구현된 다정다감한 시세계는 이 시인의 창조적로동과 생활을 노래한 다른 많은 시들에서도 보게 되는데 시초《릉라도 건설의 노래》와《수도건설청년돌격대시초》는 다정다감성이 낭만적열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낭만적열정은 그의 시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웨치는《소리》의 높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체험하고 심장으로 뽑어올리는 그 강렬한 느낌속에 있는것이다.

시인 오염재의 시에서의 이러한 다정다감성, 낭만적열정을 두고 생각할 때 다른 측면에서 그것

이 시인적관찰의 예리성과 섬세성, 체험의 감성적심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 시인이 최근에 창작한 《아기엄마의 사죄》라는 한편의 시가 있다.

...일요일의 공원길, 아기를 데리고 거닐던 어머니가 잠깐 헛눈을 판사이 나비를 쫓아 아장아장 잔디를 밟으며 잔디밭에 들어가는 아기,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주단같은 공원의 잔디를 차마 밟을수 없어 안타까이 아기를 부르며 가슴조이는 어머니, 마침내 돌아온 아기를 안고 순간이나마 아기가 잔디를 밟게 한 자책감으로 여기에 잔디를 입히고 공원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양의 아름다움앞에 깊이 사죄하는 어머니 ...

이것이 이 시의 전부이다. 웬만한 시인 같아서 는 눈에 차지도 않고 또 흔히 스쳐버릴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생활의 한 세부가 이 시인에게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정신적미와 그 높이를 가늠하는 숭고한 시세계로 승화되었다.

이 시인의 창작전반을 두고볼 때 이 시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있기는 하나 앞에서 언급한 시를 비롯하여 로동과 생활에 대한 시들 그리고 시초《대동강을 거닐며》를 비롯한 많은 서정시들에서 느껴지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인은 예민한 시적관찰과 뜨거운 체험과 흥분, 풍부한 감정을 지니고 우리 시대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그 생활을 다정다감한 정서로 낭만적열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으로 개성적얼굴을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시집《행복한 땅에서》와 그 이후의 시들을 통해서 시인 오염재는 또한 뜨거운 열정과 심오한 사색의 세계를 높은 격조로 펼치는 자유분방한 시인의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안겨온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노래한 송가적인 작품들을 비롯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감정을 일반화한 작품들에서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통일열망과 원수들에 대한 준엄한 단죄와 규탄의 기백을 토로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집에 들어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한《수령께 드리는 송가》,《주체의 태양》,《태양은 누리를 비친다》가 그리하며《복수자의 선언》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열망을 토로한 작품들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러한 특성은 시인이 최근에 창작한《나의 신념》,《세상에 오직 하나》와 같이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께 영원히 충성다해가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감정을 토로한 작품들에서도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고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시의 격조는 깊은 사색과 철학을 담은 다감

한 정서로 물들어지면서 시의 격조가 웅심깊게 열정적으로 울리는것이 특징이다.

아, 당이여 그대 없이
이 몸을 어디에 의지하고
내 한생을 살아가라
나는 그대의 아들
그대를 따름은
오직 하나의 내 신념

참답게 살고싶어
아름답게 지고싶어
이 가슴에 의지로 간직한 이 신념
그것은
지녀서 내가 있고
잃으면 내가 없는것
...

평범한 날의 백마디 말과
맹세의 눈물이 대신할수 있으랴
신념이여, 그것은
엄혹한 날 준엄할 생의 기로에서
서슴없이 내대는 전사의 심장

언제나 자신을 그 길우에 세워보며
당이여, 성스런 그대 기폭에 얼굴을 묻나니
죽음으로 이 지조 지킬수 있다면
아까울것 있으랴, 이 한목숨

온갖 달콤한 유혹의 손이
내 옷소매를 잡아끈다 해도
바람따라 돛을 달지 않으리
당이여 그대만이 변함없는
오직 하나 내 신념의 향도성이기에
(시 《나의 신념》에서)

시인은 우리 시대 인간의 신념을 두고 그것을 인간의 운명문제와 련관시켜 파고들면서 신념이 미칠수 있는 공간, 신념이 뜻하는 인간의 지성과 정신, 사상의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배회하면서 그 신념의 뜨거움, 불변함과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이 시인에게서의 사색은 집요 하달만치 매우 끈질긴것이다. 왜냐하면 신념을 상식으로가 아니라 신념이 뜻하는 세계를 끝까지 파고들어 인간정신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웅심 깊게 펼쳐보였기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시들에서의 사색과 환상, 격조는 시로 하여금 철학적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어 숭고한 격정에 젖게 하며 높뛰는 심장의 박동을 안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서야 할 시대정신의 아

름다운 경지로 열렬히 지향하게 한다.

리성의 조명으로 철학적사색을 심화하여 대상이 뜻하는 세계를 그 심오한 경지에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심오하게 파고드는 여기에 그의 시들에서 보게 되는 독특한 세계의 다른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시들에서도 찾아보게 된다.

시 《세상에 오직 하나》에서는 당의 품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운명의 피줄》로, 《운명의 샘, 진리의 샘》으로 그리고 《힘과 지혜, 생명의 문체》로 사색과 환상의 나래를 펼치었는데 이것은 당의 품과 자신의 운명을 련관시키는 우리 시대인간들의 생각이 미칠수 있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심오한 운명과 인생의 경지를 철학적사색으로 깊이 파헤쳐보인 심오한 정서세계로 된다.

그의 시에서의 이러한 심오한 사색의 세계는 시에서 대상자체를 현상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노래한데서 온것이 아니다. 그는 대상자체를 아기자기하게 노래하는 그런 시인은 아니다. 즉 그에게는 일정한 생활소재를 시적으로 그리면서 거기에서 느낀 주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가 매우 드물다.

물론 그에게도 시 《또 하루》 등에서와같이 전 반부에서는 일정한 《공정》을 그리고 마지막에 《결구》를 토로하는 식의 시가 없지 않으나 이 경우를 보면 대체로 시들이 성공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시인이 자기의 체질에 맞지 않게 흥분이 없이 시를 쓴 경우인것이다.

그의 시에서의 사색은 대부분 경우 대상에서 체험된 감정을 심화시키고 승화시켜 심장으로 뿜어 올리는데서 생겨난다. 때문에 그의 시들을 읽어 보면 일정한 대상, 생활소재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은 없지만 열정적으로 뿜어져나오는 주정을 통하여 그 모든 대상, 생활소재들이 그 사색과 열정, 격조의 바탕에 깔려있다는것이 알린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의 시는 사색과 환상의 세계가 넓고 자유분방한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할수 있다. 시《세월과 함께 빛나는 집》, 《주체의 태양》, 《당에 끝없이 충실할 때》 등이 이러한 특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시인에게서 나타나고있는 사색과 환상의 폭과 깊이, 높은 격조는 곧 언어표현의 깊이이며 폭이며 격조라는데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위대한 대상을 노래하여 사회정치적문제를 다루는 시들에서 그는 《작고》보다 정서적이며 낭만적인 시어들이 아니라 뜻이 넓고 진폭이 크고 호흡이 높은 그런 언어표현들을 즐겨 골라쓰고있는것이다.

임의의 실례로 시 《태양은 누리를 비친다》의 첫 몇면에서만 보더라도 《아시아대륙의 동방에서 태

평양을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간 조선》, 《아시아의 분노》, 《세기의 설움》, 《봉건의 밤》, 《장안의 기둥들이 눈물에 얼룩지던 망국의 곡성》, 《근로의 호미》 등은 그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 시인의 시집과 그 이후에 나온 시들을 읽어보면 그가 모든 경우에 다 자기의 얼굴이 있게 시를 쓰는것이 아니며 또 얼굴이 내비치는 경우에도 그 시가 모두 만족스럽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시들에 때로는 설명투가 있으며 때로는 심장에서 샘솟는 정서가 아닌 《채색》된 정서의 흔적도 있다.

이런 시들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그에게서 특징적인 체험의 열도가 있고 리성은 있지만 심장의 흥분과 무르익은 사색의 열정이 결여되어있는것이다. 또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나 《복수자의 선언》에서와 같이 우리 시단에서 류달리 긴

시행으로 성공한 시를 창작한 반면에 그의 일부 시들은 시행의 길이가 필요이상 길어져 지루한 느낌도 주는 때가 있다. 이 경우를 보면 시인이 주정만 생각하지 운률에 대해 때때로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한다.

물론 앞에서 본바와 같이 뜨거운 체험과 열정이 낳은 시행의 《길이》는 성공했지만 반면에 체험과 열정이 빈약하고 리성의 웨침이 앞선 시행의 《길이》는 시가 시로 되게 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 시인의 경우 자기의 얼굴을 더 확연히 드러내자면 매 시련을 창작하면서 뜨거운 체험과 느낌을 간직하고 심장의 열정을 뽐아올리는 그 장점을 계속 살리며 다변적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그것이 람발되어 운률에 대한 홀시를 초래하지 않도록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흘러라 떼목이여

서동린

벗어다오 잠시라도
물결타고 살같이 흘러가는
나의 떼목이여
잠시라도 진정
흐름을 멈추어다오

보슬비 내리는 물동가 저 언덕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서시여
우리를 바래주고계시거니
머리깊이 숙여 인사를 드리게
잠시라도 멎었다 가다오

떼타고 내리는 우리 모습 보고싶다고
현지지도로 바쁘신 어제
다시금 말씀하셨다더니
저렇게 비내리는 물동가에 우산도 없이 서시여
우리를 손저어 바래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떼목공들을 잘 돌봐주라고
언제나 다심한 사랑을 펼치시는 그이
그 사랑 그 보살피심
이 장강의 세찬 흐름우에만 실려있던가

앞가슴을 메우는 빛나는 훈장들만이라
림산 채소밭에 내리는 분수비에도
그 은정 파사로이 깃들고
목적지에 떼를 대이고 나누는

푸짐한 식탁에도 그 사랑 뜨거웁거니

떼목아
여울타고 사슴벼랑 돌아서니
그이의 미소어린 모습 아니 보여도
물길에 어린 저 평롱한 햇빛이
그이의 사랑처럼 앞길에 밝구나

머리깊이 숙여
우리 인사를 못드렸음을
안타까워만 하지 말자
달려가자 떼목이여
통나무 산더미 하늘높이 쌓아
우리의 인사를 대신하자

천만마디 울리고싶은
우리의 인사말보다
천만대의 통나무
락원의 강산에서 제몫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
값진 인사가 아니겠느냐

더 세차게 흘러라 물결이여
더 빨리 달려라 떼목이여
산숲도 우리를 따라서느냐
물새도 우릴 따라 날으느냐
아아 떼목이공이
의리의 길을 쳐절씩 내린다

하나의 맥박속에

리기창

흔히 작가들은 취재과정에 만나보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속해 일하는 집단의 정신적 면모를 뚜렷이 가늠해보곤한다.

나는 얼마전 도예술단의 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펼쳐나선 2.8 비날론련합기업을 찾아갔다가 이곳 로동계급들의 숨결을 통하여 뿜어내는 시대의 세찬 맥박을 뜨겁게 느끼었다.

이곳으로 말하면 지난날 나의 보람찬 로동생활의 자욱이 짙혀있고 작가의 푸른 꿈을 펼쳐준 정든 일터여서 찾을 때마다 새로와지는 감회와 함께 변모되는 공장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던 나였다.

이 뜻깊은곳을 찾는다는데로부터 가슴 설레는데 나의 정든 옛일터가 이번에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생산에서 전례없이 혁신을 일으킨다니 마음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에 의거하는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경공업의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 좋은 일용품수품과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해 8월에 몸소 함경남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면서 함흥지구에는 우리 인민들이 먹고 입는데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가 있는것만큼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기업소정문으로 들어서는 나의 눈앞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힘있게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을 말해주듯 울긋불긋한 대형속보판들이 줄드러히 나붙어있었다.

속보판들을 바라보느라니 카바이드직장으로 부터 마감공정인 방사직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눈에 보이는듯이 한눈에 안겨오는듯싶었다.

우리가 발생로직장에 이르렀을 때였다. 때마침 교대를 마친 발생로직장 운전공들이 퇴근하고있었다. 경제선동대원들은 환영곡을 울리며 그들에게 달려가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한 처녀가 고개를 숙인채 경제선동대원들을 피해 슬그머니 돌아가는 모습이 나의 눈에 띄웠다.

검손성때문일까? 아니면 부끄러움 잘 타는 사춘기의 처녀여서일까?

호기심에 끌려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경제선동대원처녀가 그한테로 뒤쫓아가서 꽃다발을 내미는것이였다. 했으나 처녀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꽃다발을 사양했다. 그래서 나는 작업반장동무에게 그를 가리키며 혹시 실습생이 아닌가고 물어보았다.

《실습생이라니요? 공장기능공학교를 얼마전에 마치고 우리 발생로를 맡아보는 운전공이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저렇게 꽃다발을 받지 않고 피하듯 달아납니까?》

나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겨 서있던 그는 그럴만한 일이 있다는듯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에 접한후 우리도 발생로능력을 높일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은 현저히 높아졌으나 로운전조작에서는 아직 일부 동무들이 숙달되지 못했지요. 그러나 오늘까지 모두가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온 결과 한건의 오조작도 없이 정상운전을 보장했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작업총화때였습니다. 글썽 저 신입공처녀가 스스로 일어서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로운전조작을 책임성있게 하지 못해서 계기관 온도조절자동기록지에 끈은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이나마 <곡선>이 그어지게 했노라고 자기 비판을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쯤한 류동곡선은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기때문에 생산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지요. 하지만 그 동무는 하나의 맥박으로 이어지는 모든 공정의 흐름속에 작은 흠집이라도 남긴것처럼 무거운 자책감으로 느끼고 꽃다발조차 받기 부끄러워한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나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몽글해 졌다. 그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한 처녀를 만나보고싶었으나 이미 나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여서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허전한 마음으로 그 처녀가 인계했을 발생로배전반을 찾아갔다. 그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배전반계기판의 자동기록지에는 정상치를 가리키듯 빨간줄이 일직선으로 끈게 새겨지고있었다. 아니 그 직장뿐아니라 내가 뒤이어 찾아간 합성과 중합, 정

류와 방사직장들의 계기판들에도 하나의 맥박이 흐르듯 빨간선이 곧게 그어 지고있었다.

마지막으로 섬유하조장에 들렀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발생로직장의 운전공처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는 하조장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분명히 그 운전공처녀가 정련건조기에서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비날론숨을 한아름 안고 방그레 웃고있었다. 발그스름하니 홍조가 어린 두볼에 하얀 비날론숨을 비비는 처녀의 모습은 한송이 꽃처럼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저 처녀는 어쩌서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들렀을까?

나는 자못 의문이 실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다가갔다.

《저 미안하지만 발생로운전공동무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그는 가볍게 고개인사를 하더니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에 들렀는가요? 혹시 지원왔는가요?》

《아이참, 여기에 무슨 지원할 일이 있다구요. 그저 퇴근하던 길에 우리가 보내준 원료가 제대

로 손색없이 일등품 비날론숨으로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들렀었어요...》

하더니 처녀는 저쪽으로 달려가며 그쪽에 쌓여지는 비날론숨을 두손 가득 퍼드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그를 불러세울 생각도 잊어버린채 그 지리에 무춤 굳어졌다.

그에게서 더 다른 말을 들어보지 못한들 뭐랴!

우리가 하조장에 들린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그 처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정 퇴근길을 에돌아 이곳에 들러서 섬유의 질상태며 자기 교대의 생산 실적에 대하여 알아보고야 발길을 돌려고있지 않는가!

그제야 나는 순간의 파동성도 없이 모든 설비와 기대마다 만부하, 만가동의 세찬 동음이 울리고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며 자랑찬 기록을 새겨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심장으로 뜨겁게 느낄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바라심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받들어가는 충성의 열도와 하나같이 높뛰는 세찬 맥박이 끊임없이 폭포저내리는 비날론오리마다에 뜨겁게 스며드는것이리라.

하기에 하조장에 쌓이는 하얀 비날론숨을 두손으로 소중히 안아보는 나의 가슴속에도 봄빛같은 따뜻한 훈향이 후덥게 스며드는듯싶었다.

미래앞에서

박철

전투의 나날에 차려진 휴가
간석지 일터를 잠시 떠나
고향집에 들어서니
미처 인사도 나눌새 없구나
와락 달려와 품에 안기는 딸애

이처럼 기다렸단말인가
딸은 내 얼굴을 쓰다듬고
나는 딸애를 얼싸안고...
상봉의 기쁨은 온몸을 휩싸는데
오 문득 심장을 치는 그 무엇이여

고난도 시련도 아니였구나
파도
감탕
추위
날바다와 싸우던 그 낮과 밤들은

잔물도 얼어붙던 한겨울

채석장에 제방우에
내 뿌린 더운 땀방울이 없다면
이렇듯 온몸을 맡길수 있으랴
이 기다림 이 애무속에

와아-두팔 벌리고 달려갈
딸애의 아름다운 래일
무연한 새 땅을 이 가슴으로 안아올리지 않았다면
내 미래를 안고
이렇듯 기쁨에 웃을수 있으랴

아 나는 알았노라
집 떠나 조국의 새 땅을 넓히며
해풍에 다스려진 내 얼굴
미래가 살뜰히 풀어주는 이 순간
알았노라, 오늘에 세우는 위훈이
자식에게 줄수 있는
아버지 한생의 가장 큰 사랑임을

수기

속담풀이

△ 보는바가 크면 이루는바가 크다.

사물현상을 고찰하는바가 넓어야 더 큰 결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뜻으로 모든것을 넓은 안목을 가지고 뜻이 크게 볼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 만석군비 교방쌀보다 내 쌀 한피가 낫다.

아무리 남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적은 재산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자기것이 귀중함을 두고 이르는말.

△ 부끄러울 때는 두덜거리도 낫다.

줄렬한 수단으로 창피를 모면하려고 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 사람은 작게 나서 크게 길러야 한다.

사람은 크게 나서 큰사람이 되는것이 아니라 교양을 잘하여 키워야 큰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생활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두고

하정웅

소설작품들에서 생활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보장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생활반영의 구체성과 생동성, 이것은 오늘 소설작품창작에서 매우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생활의 본질은 구체적인 형상을 거쳐나와야 생동한 정서적임을 가지고 안겨올수 있다.》

생활을 생동하게 그린다는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과 계기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문학작품에 산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수 있는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생활도 언제나 구체적이며 개성적이다.

실생활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진 소설작품만이 산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수 있으며 인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 념원을 뚜렷이 구현할수 있다는것을 창작실천은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오늘 일부 현실주제의 소설작품들을 보면 생활을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지 못하고있다.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 문제는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더없이 중요하고 절실한 미학적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벽찬 현실이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는 기적적인 생활사실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차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대전설에서 비약적인 속도와 기적적인 성과를 일으키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생활은 그자체가 세상사람들을 끝없이 경탄시키고 있으며 풍부한 사상적내용을 체현하고있다.

우리 시대 근로자들의 생활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격동적인 사실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이 담겨져있는 현실적조건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소설작품에서 생활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는 문제가 중요한 미학적요구로 제기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현실생활은 문학작품의 모체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 현실에는 기적과 혁신으로 충만되어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기적적인 사실들이 그 얼마나 많이 수놓아져있는가.

그렇다고 하여 현실에 있는 여러가지 미담들과 사실들을 이것저것 라렬하는 식으로 작품을 창작할수는 없는것이다.

지금 일부 소설가들속에서는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소행과 공산주의적품모에 감동된 나머지 현실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그리모아가지고 작품을 구성하는 편향이 있다. 이런 소설가들이 쓴 작품들은 그 어떤 생활소재의 참신성과 생활내용의 풍부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생활을 높은 차원에서 생동하게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소설작품에서 생활묘사는 사건묘사와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생활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성격이 드러나며 생활이 규제된다. 그것은 생활사건이란 바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의 생활과정의 반영이기때문이다.

소설작품에서 생활의 본질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을 취사선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구성을 조작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기 위한데서 더없이 중요하다.

단편소설 《길동무들》, 《백일홍》이 오늘도 사람들에게 깊은 미학적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천리마시대와 천리마기수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품모를 그림처럼 선명하게 펼쳐보이는것은 그 단편소설들이 뜻깊은 생활사건을 기초로 하여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낸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소설작품에서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가 못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특색있는 생활을 그리는가 못그리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작품에서 생활반영의 구체성과 생동성은 묘사되는 생활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생활은 끝없이 다양하며 풍부하다. 한 사람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생활이 있으며 같은 류의 생활도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소설작품에서 특색있는 생활을 탐구하고 그리지 않는다면 생활반영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잘 보장할 수 없다.

단편소설 《백일홍》은 산간지대 락석감시원의 생활이 그려져 있고 단편소설 《길동무들》은 양어장 처녀의 생활이 그려져 있다.

이 단편소설들이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드러내 보이고 천리마시대 정신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이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특색있는 생활이 묘사되어 있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과 3대혁명기수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미학적 감흥을 안겨주는 새로운 생활, 특색있는 생활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우리 소설가들이 자기의 작품에서 생활반영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생활세부를 잘 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 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생활세부들을 옳게 설정하고 잘 그려내는 것은 작품에서 생활반영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요란한 사건이나 특정한 생활사실들을 그려내는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레사로운 생활사실들에 대한 세부묘사를 통하여 뜻있고 의의있는 사상적 내용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소설작품에서 세부묘사는 인물들의 성격을 뚜렷이 살리고 주제사상을 형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견지에서 주어져야 한다. 작품에서 세부형상이 이렇게 되려면 세부자체가 생활의 본질과 사회의 특징을 체현한 전형적인 생활세부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전형적인 생활세부의 묘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생활사실들을 그려내는 것으로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재능있는 작가는 극히 평범하고 레사로운 생활사실들을 통하여서도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술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뜻깊은 사상적 내용을 구현할 수 있다.

단편소설 《령북땅》에는 주인공 명운이가 우등불가에서 평양으로 올라간 자기의 애인이었던 현숙이가 보낸 편지를 볼 때 휘버리는 생활세부가 있다. 이 간단하고도 평범한 세부들 통하여 작품에서는 명운의 사상정신상태의 변화과정, 일시적으로나마 도시생활에 유혹되어 동요하던 정신상태에서 벗어나 령북땅에 생활의 보금자리를 펴고 채순을 비롯한 령북땅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리라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간단한 세부는 작품에서 수십개의 문장을 대변하면서 주인공 명운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주제사상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작품에서 생활세부가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반영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면 생활세부자체가 생동하게 인상깊게 그려져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 작품들에서 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사회력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을 집약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내면세계, 심리적 적응임을 보여주는 생활세부들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생활의 어떠한 단면을 분석적으로 그려내는 방법으로 세부들을 묘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소설작품창작에서 생활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더 잘 보장하여야 한다.